

V. 죽왕면 연혁과 리별현황

1. 죽왕면 연혁과 리별현황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에 간성군 죽도면(竹島面)과 왕곡면(旺谷面)으로 분리 되었으나, 1915년 간성군 죽왕면으로 통합되었다. 그후 1919년 양양군(襄陽郡)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8.15 해방이후 복귀치하에 계속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인 수목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권에 들어온 후 1963년법률 제1178호에 의거 양양군에서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해안을 접하고 있어 농어촌 취락을 형성 한 죽왕면은 송저호·삼포·물포 해수욕장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추고



죽왕면사무소 전경

있으며 법정리는 12개리 이며 행정리는 17개리에 74개 새마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50.07km로 태백산맥의 주봉인 설악산과 연결해 있다.

1996년 4월 23일 죽왕면 마차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이 일대의 많은 산림과 주택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역대면장명단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崔昌吉	1954.11.26	1959. 9.29	
2	咸仁山	1959. 9.30	1963.12.11	
3	文彰圭	1963.12.12	1964. 6.17	
4	全貞仁	1964. 6.18	1969. 7. 3	
5	李炳燮	1969. 7. 4	1972. 3.17	
6	金正福	1972. 5. 1	1973. 6.30	
7	金鎮沅	1973. 7. 1	1974. 2.10	
8	咸正根	1974. 2.11	1975.12.30	
9	劉贊基	1975.12.31	1978. 1.24	
10	咸正根	1978. 1.25	1981.12.20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1	崔光允	1981.12.21	1982.10. 6	
12	南正鉉	1982.10. 7	1984.11. 9	
13	崔光允	1984.11.10	1987. 1.20	
14	李炳燦	1987. 1.21	1993. 6.30	
15	尹明根	1993. 7. 1	1995. 3.22	
16	崔永郁	1995. 3.23	1995.12. 8	
17	南基柱	1995.12. 9	1998. 3. 31	
18	咸永煥	1998. 4. 1	현 재	

죽왕면 마을 명칭 변천표

읍 면 별		리 명
~1914년 까지	현재 및 8.15해방시	
旺谷面		旺谷, 芝道(龍浦), 香木, 笛洞, 加浦(加津), 公峴津, 蓬壺, 仙遊(東湖), 長峴 (9)
竹島面		五里津, 麻佐, 西城, 九嶺, 甫呂(三星, 茂松), 黃浦, 花井, 甘仁堂, 錦園, 新亭, 坪村, 石橋, 尊浦, 掛津 (14)
	竹旺面	五湖里, 香木里, 加津里, 公峴津, 五峯里, 仁亭里, 九城里, 麻佐里, 三浦里, 野村里, 松岩里, 文岩里 (12)
	竹旺面	香木, 加津, 公峴津1.2, 五峯1.2, 五湖1.2, 仁亭1.2, 九城, 三浦1.2, 野村, 松岩, 文岩1.2(17) 麻佐里 미거주 마을제외

◆ 17개 행정리별 현황 ◆

◎ 오호리(五湖里)

△ 위치 : 동쪽은 동해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인정1리, 남쪽에는 삼포리가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에는 오봉리와 공현진리가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속칭 오리진(五里津)이라고도 하며 옛날 마을근처에 송지호(松池湖), 금지호(錦池湖), 번개, 버덩개(野浦), 황포라고 불리던 다섯가지의 개가 있어 오호리(五湖里)라 칭하였다

고 한다. 1996년 4월 23일 대형산불로 인해 웅장한 주변송림이 크게 소실되었다.

○ 오호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3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236명, 여자가 199명으로 총 435명이다.



오호리 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5가구, 경상도가 17가구, 경기도가 8가구, 서울 5가구, 전라도 3가구, 부산과 대구출신 각 1가구씩이다.

성씨별 가구분포현황은 김씨가 27가구,李씨가 24가구,朴씨가 18가구,崔씨가 12가구,鄭씨와 劉씨가 각각 5가구씩,張씨와 趙씨,尹씨가 각각 2가구씩,吳씨와 魚씨,池씨,林씨,高씨,元

씨가 각각 2가구씩,嚴씨가 4가구, 기타 14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30가구, 상업이 42가구, 농업이 9가구, 기타 49가구이며, 총지호해수욕장으로 인해 상가가 늘어나고 민박운영 등으로 주민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7.6ha, 밭 2ha, 임야 18ha로 경지가 적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14척, 1톤이상~5톤미만 6척, 10톤이상 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호항에 소재를 두고 인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10두, 개 50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1970년 8월에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 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전기는 1964년 7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2월에 가설되어 현재 13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30대, 냉장고 130대, 자가용 71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58가구, 기독교가 43가구 등으로 많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70년 6월에 자본금 1백만원과 지원금 2백만원으로 마을의 소하천인 인정천 200m를 정비했다.

1991년 3월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들여 오호~인정간 도로 460m 포장, 암거 15m를 설치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7천8백60만원을 들여 재해위험지역 옹벽축조 80m, 마을길포장

7.52a, 호안분력 156.56m, 하수도 110m, 난간대 170m를 시설했다.

1996년 11월 사업비 4천1백만원을 들여 오호리 보도분력 287m를 정비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정월 대보름에는 망월놀이와 율놀이를 즐긴다.

△ 회다지 노래

〈가사대용〉 산지조정 골운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하수라 에헤루와 달구

골운산맥이 멀리 떨어져서 배두산에 기봉을 하고 에헤루와 달구

금강산맥이 흘러서 수중진국이 되었구나 에헤루와 달구

고귀한 자 음이 되고 강보한자 양이르다 에헤루와 달구

아들을 나면 충신을 낳고 딸을 나면 열녀를 나소 에헤루와 달구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만우로다 에헤루와 달구

△ 명소현황

• 고성죽도성지(高城竹島城址) : 마을의 동북쪽 864m 떨어진 오호리 산1번지에 있다. 토축으로 길이 약360m이다 전하는 얘기로는 백당 이식(李植 1584~1647)이 이곳에 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성을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무술을 연마하였다고 하며 성지 남쪽에 용바위가 있는데 가물때 개를 집어 넣으면 부정을 피워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 오호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7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313명, 여자가 314명으로 모두 627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01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라도가 25가구, 경상도가 23가구, 충청도가 10가구, 경기도가 8가구, 서울이 6가구, 제주도가 2가구, 인천이 1가구 등이다.

성씨별 가구분포현황은 김씨가 41가구,李씨가 26가구,朴씨가 17가구,崔씨와 조씨가 각각 11가구씩,張씨와鄭씨가 각각 7가구씩,趙씨와韓씨가 각각 5가구씩,申씨와徐씨,孫씨가 각각 3가구씩,梁씨와龍씨,高씨,林씨,尹씨가 각각 2가구씩,許씨,曺씨,宋씨,安씨,郭씨,魏씨,咸씨,方씨,薛씨,文씨,陳씨,黃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52가구, 상업이 21가구, 농업이 20가구, 기타 83가구이며, 송지호해수욕장으로 인해 상가가 늘어나고 빈박운영 등으로 주민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 일반 현황 : 정지면적은 논 10.4ha, 밭 4.8ha, 임야 7ha등이며, 주요농기구는 정운기 10대 등이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12척, 1톤이상~5톤미만 21척 등으로 오호항에 정박해 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10두, 개 73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1970년 8월에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 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전기는 1964년 7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68년 3월에 가설되어 현재 176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76대, 냉장고 176대, 차가용 130대, 세탁기와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45가구, 기독교가 40가구 등으로 많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123동, 아파트 53동으로 영외거주 군인의 아파트가 있다.

아울회관은 1974년 3월 10일 15명의 벽돌조스타브로 신축하였으나 지금은 건물이 노후 되어 개축이 필요하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9년에는 오호1리에서 오호2리까지 약 70m가량의 도로를 포장했다.

1991년 6월 사업비 4천6백만원을 들여 오호천 제방 284m와 하상 6,123m를 정비했다.

1992년 11월 사업비 1천8백만원을 들여 배수로시설 양저 48m(폭 5.4m)를 설치했고 12월 사업비 8백89만원을 들여 오호항 물량장 850m를 포장했다.

1993년 12월 사업비 3천6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28m 하수도 및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6백30만원을 들여 오호항 1,403m를 준설했다.

1996년 3월 사업비 3천3백만원을 들여 재해위험지구 옹벽 40m를 설치했고, 1996년 6월 사업비 4천7백50만원을 들여 오호천 1,100m를 준설했고, 8월 4천8백만원을 들여 오호천 910m준설과 제방 3개소를 보강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5천6백60만원을 들여 배수로 70m를 시설했다.

△ **마을신앙** : 해마다 음력 1월 3일에 성황당에서 마을의 모든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며 풍어를 기원하는 성황제를 올리는데 이는 최초로 마을이 설립된 후 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사를 지내는 날에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제에 참석치 못하도록 한다.

처음 제를 지낼 당시에는 송아지를 사용하여 의식을 행하였으나 10여년전부터 소값의 앙등으로 소머리와 간단한 음식만을 준비하여 제를 올리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러마라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쪽에서 달 밝아온다.

어닐날 상사드어야

◎ 향목리(香木里)

△ 위치 : 동쪽은 동해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간성읍의 달동리, 북쪽에 간성읍의 동호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은 가진리가 연결되어 있다.



향목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지금부터 약700년전인 1285년에 향목리 정씨 선조(정씨가 문 6대조)가 울릉도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 오면서 3본의 향나무를 갖고 와 처음으로 향나무가 크게 자라자 그때까지 없었던 마을명을 향나무와 연결하여 향목리(香木里)라 칭하였다.

현재는 향나무가 없고 그 자리(현재 박화실씨 집터)만 남아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3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60명, 여자 59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0가구, 경기도와 전라도 각각 4가구씩, 서울 2가구, 경상도와 부산출신이 각각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朴씨가 10가구, 손씨와 劉씨가 각각 3가구씩, 張씨와 咸씨, 崔씨, 申씨, 姜씨가 각각 2가구씩, 李씨와 洪씨, 鄭씨, 柳씨, 林씨, 姜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2가구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마을이 국도변에 위치해 자동차 정비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29ha, 밭 9ha, 임야 170ha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111두, 닭 42마리, 개 42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주요농기구는 경운기 12대, 트랙터 4대, 콤바인 1대 등이 부족한 영농일손을 대실하고 있다.

1970년 8월에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 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전기는 1964년 7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68년 3월에 가설되어 현재 3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2대, 냉장고 32대, 차가운 15대, 영입용차량 79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11가구, 기독교가 5가구 등으로 많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2년 11월 5일에 1천9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향목리 마을앞 제방

128m를 축조하여 소하천을 정비했다.

1996년 10월 사업비 3천2백70만원을 들여 농업용수로 584m와 수로관 292본을 시설설했다.

△ **마을신앙** : 매년 1월 3일이면 향목리에서 동남쪽으로 1km되는 곳에서 마을 주민들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성황당제를 지낸다.

• 의식절차 : 제에 참석할 사람은 미리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방둑이나 출타를 입체 금하여 부정한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제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행되는 동안 마을 안에도 들어 올 수 없다.

제물을 준비하여 차려놓은 후에는 일반 가정에서 제사와 동일한 절차로 제를 올린다.

△ **마을 세시풍속** : 옛날부터 향목리는 평온하고 아담한 마을로 구정을 지내며 특히 정월 대보름과 추석에는 남여가 한자리에 모여 간단한 생활용품인 비누와 수건 그리고 과일 등을 상품으로 마련해 놓고 가족 단위의 권을 구성하여 율놀이판을 하며 하루를 즐기는 고유의 미풍양속이 있다.

△ **회다지 노래** : 묘 또는 집터를 다질 때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 산지조성 골운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하수라 에혜루와 달구야

골운산맥이 뚝뚝어져 백두산에 기봉을 하고 에혜루와 달구야

백두산맥이 흘러서 금강산을 도읍하니 세계명산이 아닌가

금강산맥이 흘러서 수중전국이 되었구나 에혜루와 달구야

만두성신 둘러보고 음향가를 불러보세 에혜루와 달구야

고귀한자 음이되고 강보한자 양이로다 에혜루와 달구야

산지배복 모르면은 헐지하실 어이하리 에혜루와 달구야

천원향상 되었으니 좌정세지 학자도다 에혜루와 달구야

△ **바위 등의 전설**

• **범바위** : 향목리 노평골 산59번지에 있는 범바위는 크기가 15평 정도의 집채만하고 옛날에는 이곳에서 범이 살아서 곧 잘 주민들의 눈에 띄었으며 산림이 울창하여 사람의 왕래가 없었던 곳이라 한다.

△ **속칭이름**

• **남천(南川)** : 고성군 간성읍을 중심으로 할때 간성 남쪽에 위치한 하천이라 하여 남천이라 부름.

• **큰서낭 고개** : 이 고개 마루터에 커다란 성황나무가 있었으므로 큰 서낭고개로 불려진다.

• **화합송** : 지금은 없어졌으나 옛날에는 서낭고개에 큰 소나무 2그루가 있어서 이를 화합송이라 불렀었다.

• 노명골 : 골짜기

◎ 가진리(加津里)

△ 위치 : 동쪽은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간성읍 탐동리, 남쪽으로는 공현진 2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향목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어촌마을로 옛부터 다른 어항보다 수산물이 많이 나서 주민생활에 덕이 많이 되었다고 하여 약 100여년전부터 속칭 더포라 불렸으며 후에 작은 나루가 하나 더 생겨나자



가진리 마을전경

가포진(加浦津 더포)이라고 불리웠는데 1914년 리명 개편시 가진리(加津里)로 고쳤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6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92명, 여자 321명으로 모두 61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35가구, 경상도 11가구, 충청도 4가구, 경기도와 전라도 각각 3가구씩, 서울

과 대구, 부산, 인천이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 분포현황은 김씨가 36가구, 박씨와 이씨가 각각 20가구씩,徐씨와 손씨가 각각 8가구씩,洪씨와崔씨가 각각 7가구씩,張씨와安씨가 각각 5가구씩,韓씨와鄭씨가 각각 4가구씩,池씨와黃씨,劉씨,沈씨,朴씨가 각각 3가구,高씨와羅씨,卞씨,尹씨,禹씨,元씨,裴씨,趙씨,河씨,文씨,채씨,姜씨,申씨,秋씨,千씨가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74가구, 어업이 66가구, 상업이 12가구, 기타 8가구로 많은 가구가 반농·반어로 비교적 생활이 윤택한 편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2.3ha, 밭 18.5ha, 임야 240ha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143두, 닭 72마리, 개 154마리로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최근 개를 집단사육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

선박보유현황은 1톤미만 22척, 1톤이상 5톤미만 30척, 5톤이상 10톤미만 4척, 10톤이상 1척 등으로 죽왕면에서는 비교적 많은 어선이 가진항내 소재하고 최근 활어 집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농기구는 경운기 17대, 트랙터 4대, 콤바인 2대 등이 부족한 영농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1994년도 위관실적으로는 쟁어가 8억1천6백만원, 오징어 6천2백만원, 쥐치 5천8백만원, 도미 5천만원, 도루묵 5천2백만원, 이면수 4천만원, 양미리 3천7백만원 등으로 총 12억1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전기는 1963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 비교적 늦게 개통되었으나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16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60대, 냉장고 160대, 자가용 15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가 50가구, 유교 33가구, 불교 20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4년 9월21일 철근콘크리트 스타브 2층 70평 건물로 아담하게 신축해 노인들의 여가시설로 활용도가 높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3년 10월에 자부담 20만원과 지원금 25만원을 들여 7m 교량을 가설했고, 1977년 10월에는 응골에 소하천 270m를 자부담 27만원과 지원금 175만원으로 정비했다. 또 자부담 95만원에 양회 500포를 지원받아 50m, 폭 5m, 높이 0.15m로 마을안길을 포장했다.

1992년 11월 사업비 2천5백30만원을 들여 파제벽 50m와 석축보호벽 50m를 공사했고, 사업비 2백5십7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50m(폭 4m)을 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 파제벽 50m(높이 3.5m)를 설치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2억1천8백만원에 들여 가진항 해안도로개설 및 확포장을 위한 파제벽 80m, 도로 23.6a포장을 시행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1월 3일에 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내고, 또 3년에 한번씩 해남사고 방지와 마을 안녕 그리고 풍어를 지원하는 풍어제를 3일동안 지내기도 한다.

• 의식절차 : 해물과 산나물, 과일 등을 제사상에 준비하고 마을어른이 거행하며 무당이 굿을 한다.

△ 바위 등의 전설

• **벼락바위** : 고려말기 무렵 양반집의 젊은 일꾼이 주인 마님과 부정한 짓을 하다 발각이 나자 둘이 함께 도망가다 비를 피하여 이 바위 밑 동굴에 숨었었는데 하늘이 노여워 했는지 바위에 벼락이 떨어져 맞아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현재 밑에 있던 동굴은 없어지고 바위만 남아 있어 벼락바위라 부른다.

• **봉화대** : 옛날 동신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돼 오던 봉화터가 가진리 마을 앞산에 있었는데 그 흔적만이 남아 있고 지금은 군부대 기지가 생겨 옛터도 없어져 버렸다.

◎ 공현진리(公峴津里)

△ 위치 : 동쪽은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의 오봉1리, 남쪽의 오호1리, 그리고 북쪽의 가진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지금부터 약 400년전에 간성 현감 이백당이 선유담에서 작시한 글에 “공수왕



공현진리 마을전경

처세방회(公須往處勢方回)”란 글을 인용하여 속칭 공수진이라 하였는데 1970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공수진리의 ‘공(公)’과 인근부락 장현리의 ‘현(峴)’을 합하여 공현진리(公峴津里)가 되었다.

○ 공현진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3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243명, 여자가 277명으로 모두 520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11가구, 경상도가 10가구, 전라도가 7가구, 서울 출신이 6가구, 경기도 2가구, 충청도와 대구출신이 각각 1가구씩 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 46가구,李씨 19가구,朴씨 11가구,安씨 8가구,崔씨 7가구, 姜씨 5가구,鄭씨와 趙씨가 각각 4가구씩,尹씨,宋씨,申씨,郭씨가 각각 3가구씩,劉씨,姜씨,林씨,咸씨,高씨,張씨가 각각 2가구씩, 변씨, 길씨, 권씨, 빈씨, 방씨, 양씨, 황씨, 남씨, 노씨, 오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48가구, 농업이 45가구, 상업이 11가구, 기타 34가구 등으로 반농반어를 겸한 가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8ha, 밭 16ha, 임야 80ha 등이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12척, 1톤이상~5톤미만 7척으로 비교적 소형선박으로 공현진항에 소재를 두고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89두, 개 63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5년 4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1년 6월에 개통되어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138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 8월에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38대, 냉장고 138대, 자가용 65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20가구, 기독교 15가구, 천주교 3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95년 12월 22일 조직조 스타브 2층의 50명 건물로 아담하게 신축해 노인들의 여가시설로 활용도가 높다.

항포구시설로는 1970년 9월 5백만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50m를 축조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4백80만원을 들여 공현진항 모래 1,930㎥를 준설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4년 11월에 자부담 50만원과 지원금 3백만원 등을 들여 마을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소하천 80m, 폭 5m를 정비했다. 또 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초등학교 진입로점 농로 180m를 1백만원의 사업비로 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2천8백9십만원을 들여 파제벽 100m(높이 3.5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1월달에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마을 서쪽 300m지점에 위치한 학교 뒷곶에서 마을의 안녕과 행운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는 설황당제사를 지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전(당시 리장 김보현씨) 농민과 어민간의 싸움, 또 미신 타파를 주장하는 마을 젊은 층과 노인들간의 충돌로 없어지고 말았다.

• 의식절차 : 1주일전여 도가(제사 지내는 사람)와 제비(제사 지내는데 실무를하는 사람)를 뽑아서 그집은 처마끝에 송침을 달아 부정한 사람이 못들어 오게 하였고 제삿날에는 돼지 또는 소머리와 여러가지 음식(떡, 과일, 명태 등)을 준비한 후 마을의 번영과 풍어를 기원하며 도가가 가가호호 호명해 가며 제를 지낸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지정다지기 : 집터 다지기 노래

〈가사내용〉 여-혜루 지정이야 혜혜루 지정이야

이집짓고 삼년안에 아들 낳려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려면 효녀를 낳세

혜혜루 지정이야 혜혜루아 지정이야

향로봉이 뚝 떨어져서 이 집터가 생겼네

혜혜루 지정이야 혜혜루아 지정이야

○ 공현진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10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170명, 여자가 175명으로 모두 345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2가구, 경상도와 전라도, 서울 출신 각각 3가구씩, 경기도



공현진2리 마을전경

2가구, 대구 출신 1가구 등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 30가구, 이씨 15가구,朴씨 13가구,崔씨 6가구,孫씨와鄭씨가 각각 5가구씩,林씨와黃씨,韓씨가 각각 3가구씩,文씨,高씨,陳씨가 각각 2가구씩,宣씨,白씨,張씨,郭씨,嚴씨,宋씨,姜씨,沈씨,申씨,南씨,尹씨,吳씨,龍씨,洪씨,安씨가 각각 1가구씩 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64가구,

농업이 19가구, 상업이 9가구, 기타 12가구 등으로 비교적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은 편이며, 피서철 간이해수욕장을 중심으로민박을 운영해 농외 부업 소득이 높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4.5ha, 밭 11.5ha, 임야 60ha 등이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12척, 1톤이상~5톤미만 6척으로 비교적 소형선박으로 공현진항에 소재를 두고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21두, 개 69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7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1년 6월에 개통되어 최근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104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 8월에 속초와 대진간을 잇는 시내버스는 현재 하루 108 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04대, 냉장고 104대, 자가용 43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에 사업비 92만원으로 15평의 아담한 스라브건물로 신축했다.

어종별 어획량을 보면 명태 2,500kg, 양미리 100kg, 도루묵 500kg, 광어 1,500kg, 문어 200kg 그리고 잡어가 3,100kg이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1976년 3월에는 1백6십3만원을 지원받아 공사구간 260m의 소하천을 정비했다.

1992년 11월 사업비 6백만원을 들여 해안도로 155m(폭 4m)를 포장했다.

1993년 9월 사업비 6백80만원을 들여 해안도로진입로 7.78a를 포장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1천5백30만원을 들여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55m를 설치했다.

1994년 8월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 버스승강장 5m와 앞지 147m를 설치했다.

1994년 12월 사업비 2백80만원을 들여 공현진항내 모래 1,700m를 준설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정월달에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마을의 서쪽 300m지점에 있는 학

로 뒷밭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황당 제사를 지내왔는데 약 8년전에 농민과 어민간의 싸움과 미신타파를 주장하는 젊은 층과 노인 층의 충돌 등으로 없어져 버렸다.

• 의식절차 : 제사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제사 지내는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을 뽑고 그 집은 처마 끝에 송침을 달아 부정한 사람은 못들어 오게 한다. 제물로는 돼지나 소머리, 그리고 떡, 과일, 명태 등을 준비하고 마을의 번영과 풍어를 기원하며 가가호호 호명하며 제를 지낸다.

△ 명소현황

• 가학정(駕鶴亭) : 마을 서북쪽에 정자가 있어 이곳에서 마을 선비와 주민들이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자는 없고 그 터만 남아 있으며, 주변에 조선시대의 우암 송시열(宋時烈)의 필체로 추정되는 '선유담(仙遊潭)'이란 글씨가 바위에 음각되어 있다.

• 선유담(仙遊潭) : 죽왕면 사무소에서 7번 국도를 타고 간성방면으로 북상하다가 공현초등학교를 지나면 왼편으로 현재 신축 중인 선유담모텔이 나온다. 이 모텔의 약 300m 거리에 지금은 논,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호수였다는 선유담 유적이 위치한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동원으로부터 10리 쯤의 거리에 선유담이 있으며, 이곳에 노승이 어우러진 자그마한 산이 있고, 그 산의 반석위에 백당 이식(澤堂李植)이 '가학정(駕鶴亭)'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한편 군구 집광우(金光遇)는 양조 22년(1746)에 선유담 산록에 '유한정(幽閑亭)'을 세웠다고 전하며, 이곳의 절경에 감탄하여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이 친필로 "선유담(仙幽潭)"이라는 글씨를 남겼다고 한다. 현지 조사 결과 가학정 기둥자리와 선유담이라는 글자가 음각된 암반이 두 곳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학정 초석이 있는 곳형태 지형의 민묘 부근에 있는 100cm×600cm×90cm 정도의 암피 위에 좌해의 "선유담(仙幽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담(潭)' 자는 자연박리에 의해 멸실되었다. 글자 크기는 55cm×35cm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남편 지역 약 200m거리의 산능선 아래 바위에 세로행의 '선유담(仙幽潭)'이라는 글이 음각으로 새겨진 바위가 또 하나 있고, 고성군에서 1995년 5월에 세운 알림포석이 서 있다. 이곳의 글자는 완연하게 남아 있으며 크기는 52cm×37cm이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집터 다질때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에 해이 지정이야 애 해이 지정이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 낳으려면 효자날고

딸을 낳으려면 효녀를 낳세.

여해루 지정이야 여해루 지정이야

향로봉이 똑떨어져서 이집터가 생겼네

여해루 지정이야 여해루 지정이야

◎ 오봉리(五峰里)

△ 위치 :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서쪽으로는 구성2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정2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공현진리가 인접되어 있다.

△ 마을유래 : 조선시대 금성(鎭城), 왕곡(旺谷), 적동(笛洞)으로 불려오다가 한일합방과 동시에 금성, 왕곡, 적동이 합하여 오봉리(五峰里)로 되었다.

마을의 뒷쪽에는 오음산(五音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주위에 있는 장현리(長峴里), 왕곡리(旺谷里), 적동리(笛洞里), 서성리(西城里), 탑동리(塔洞里) 등 6개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와 개짖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하여 오음산(五音山)이라 불렀다고 하며 오봉1,2리를 중심으로 5개의 높은 산이 둘러져 있어 오봉리(五峰里)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오음산에 대한 다른 전설로는 옛날 산밑에 선유담이 있었는데 신선이 이 산에 성 오음 옥을 즐겼다하여 오음산이라 칭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왕곡마을은 병화하입지(兵火下入地)의 형소한 분지로 해발 200m이상인 5개의 야산과 하나의 커다란 호수인 송지호에 의해 외부와 차단되어 6.25당시 대부분의 손락이 전파(戰禍)를 입었으나 국도에 1km내륙으로 들어간 이곳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 몇차례의 기총소사와 폭약 투하가 있었으나 모두 빗나갔고 마을 한가운데 두하된 3발의 폭탄도 모두 불발하여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 병화불입지(兵火不入地)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 오봉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총 52가구가 살고 있다.



오봉1리 마을전경

인구는 남자가 86명, 여자가 82명으로 모두 168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50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가구씩으로 비교적 토속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咸씨가 25가구,崔씨각 8가구, 俞씨가 6가구, 全씨가 3가구, 趙씨가 2가구, 朴씨, 宋씨, 黃씨, 申씨, 張씨, 尹씨, 韓씨, 梁씨가 각각 1

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45가구, 기타 7가구 등으로 대부분 단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29.2ha, 밭 16.9ha, 임야 140ha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57두, 개 36마리, 닭 43수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6년 7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4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52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52대, 냉장고 52대, 자가용 22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유교 27가구, 불교 19가구, 기독교 1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7년 3월에 연건평 30평의 2층 스라브전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새마을사업 실적은 1973년부터 1980년에 걸쳐 자부담 1백28만1천원과 지원액 1백4만7천원 들여 마을 안에 5개소의 교량 31m를 가설했고, 1977년 4월에는 2백31만6천원의 지원을 받아 마을 안에 있는 소하천 420m를 정비했다.

1994년 11월 사업비 6백60만원을 들여 소하천 50m정비와 마을안길 50m(폭 3m)를 포장했다. 1995년 6월 소하천 97m를 정비했다.

1996년 11월 사업비 9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95m를 포장했다.

△ **마을 특산물** : 1980년대까지 10가구가 참외를 재배하여 연간 6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고, 7가구가 수박을 재배하여 연간 4백만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1가구가 양봉을 하여 연간 2백만원의 고소득을 얻고 있다.

최근 송지호에서 채취하는 민물조개, 일명 채집이 성인병에 특효가 있다고 하여 매년 6월부터 10월사이 조개잡이가 이루어져 외지로 팔려나가고 있다.

△ **마을신앙** : 음력 1월 3일에 마을 뒷산의 성황당에서 마을의 번영과 풍년을 비는 성황제를 올린다.

옛날에는 소를 잡아 제사를 올렸으나 현재는 소머리 또는 돼지고기를 이용 제사를 지내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1월14일에는 오곡밥을 해먹고 뽕을 뽑아 부스럼을 깨물며 밥 9그릇먹고 나무 9집 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정월 대보름날에는 윷놀이와 망월놀이를 즐겼다.

또한 2월 1일은 불영등 바림영등이라 하여 여자는 남의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라 하였고,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슬맺힌 약쑥을 베어다 말려 한방치료 재료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지정다지기 노래

〈가사내용〉 태백산맥이 낙맥이 뚝 떨어져서 태백산맥이 생겼네

태백산맥이 뚝 떨어져 금강산이 생겼네

금강산맥이 뚝 떨어져 설악산이 생겼지

설악산맥이 뚝 떨어져 고성산이 생겼지

고성산맥이 뚝 떨어져 오음산이 되었네

짐을 지으면 명당이요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밭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아들을 낳으면 평양감사요.

△ 산·호수 등의 전설

• 오음산(五音山) : 옛날 이 산 밑에 선유담(仙遊潭)이 있었는데 산선이 이 산에서 오음육음(五音六律)을 농(弄)하였다 하여 오음산이라 칭하였다고 하며 옛날 가뭄이 극심 하였을 때 부락주민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이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려 가뭄을 극복하였다고 한다.

• 송지호 : 조선 중엽에 금성리에 樞씨 일가문이 거주 하였는데 어떤 부인이 동자를 순산, 3일후 거드랑 밑에 낳개가 낳음을 알고는 모질 마음을 먹고 뽕 3가마니를 아이에게 털어 죽이 자마자 송지호에서 용마가 출현하여 산아의 가문으로 오다 황금계에서 산아가 죽음을 알고 용마가 굴레를 벗어 도망치자 가난한 전봉사 중이 시주를 구하러 다니다 이를 습득하여 전봉사가 전국적으로 부유한 자질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당시 거주하던 노인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 왕곡(王谷)마을(전통건조물보존지구 제1호) : 이 마을에는 수많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옛날 가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1988.8. 18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해 전국에서 처음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제1호로 지정됨 따라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모두 36억원을 들여 건물을 복원 및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1996년까지 변형가옥 21동 복원, 효자각 보수 2동, 소하천 석축 369m를 정비했다. 마을 내에는 지역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함정군가옥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8호로 1985년1월17일 지정했다.

△ 효자각

• 함희석 효자각(咸熙錫 孝子閣) : 함희석은 조선 현종때(1845년) 죽왕면 오폭리에서 출생했다. 1855년 겨울 부친이 병환으로 앓아 눕게되자 임종설한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가 약으로 봉양하고 소생케 했으며, 1860년 당시 나이 16세 었던 함희석씨는 마을에 천화(天禍)가 나서 부친이 큰화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지성으로 간병을 했으나 같은 해 3월 부친이 숨을 거뒀는데 또 3년간 시묘를 하는 등 그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임금은 신려(旌闡)를 하사하고 1891년 「효자통정대부행돈녕부 도정 강릉 함희석 지각(孝子通政大夫行敦寧府都正 江陵 咸熙錫 之閣)」이라 효자비각(孝子碑閣)을 건립해 그의 효행을 기렸다.

• 함씨 4세 5효자각(咸氏 4世 5孝子閣) : 동몽교관(童蒙敎官)인 함성옥(咸成郁)은 부친이 위독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7일을 더 연명케 해 조봉대부(朝奉大夫), 그의 아들 인홍(仁興)과 인홍(仁弘)이, 인홍(仁弘) 아들 덕우(德祐)가, 덕우의 아들 희룡(熙龍)이 각각 손가락을 잘라 부친의 생명을 연장케 해 통정대부(通政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등 4대(代)에 5명의 효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비각(碑閣)를 세웠다.

○ 오봉2리

△ **마을유래** : 옛날에 옥왕상제의 시녀인 의동선녀가 오봉 뒤편에서 켜리를 붙었다고 하여 속칭 적동리(笛洞里)라고도 하였다.



오봉2리 마을전경

적동(오봉2리)마을 동남쪽 산중턱에 적곡사(笛谷寺)라는 자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하도 많이 들끓어 이 절이 망하였다는 전설과 이 근처에서 옛날에는 온천수가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2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39명, 여자가 27명으로 모두 6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보면 21가구 모두 강원도 출신으로 토속적인 지역문화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가 15가구, 文씨 2가구, 鄭씨와 吳씨, 朴씨, 崔씨가 각각 1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21가구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 **일반현황** : 정지면적은 논 15.4ha, 밭 10.4ha, 임야 100ha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67두, 개 24마리, 닭 45수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낙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2가구가 있다.

전기는 1968년 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2년 4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2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21대, 냉장고 21대, 자가용 10대들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12가구, 기독교 6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0년 3월에 시멘트 500포를 들여 전평 20평을 건립했으나 1996년도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천주교구에서 20평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지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3년 3월에 2백만원의 지원받아 마을 앞에서 송지호 쪽으로 300m지점에 위치한 소하천 260m를 정비했고, 1982년 3월에는 자부담 3백만원에 현금 3백만원과 1,200포 등의 지원을 받아 마을 앞에서 인정리쪽으로 600m되는 곳에 27.5m 되는 교량을 가설했다.

또 1982년 4월에는 마을 앞에서 송지호 쪽으로 50m정도에 있는 마을안길 110m를 1백2십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장했다.

1996년 11월 사업비 1천5백80만원을 들여 집수정 2개소, 도수로 200m 등 간이상수도시설을 했다.

1996년 12월 사업비 3천8백90만원을 들여 오봉-인정간 도로 50m, L형축구 240m 등을 설치했다.

1996년 4월 24일 죽왕면 일대를 휩쓴 산불로 인해 마을 주변산에 송림이 모두 소실되는 재앙을 겪기도 했다.

◎ 삼포리(三浦里)

△ 위치 : 동쪽으로는 동해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구성리, 남쪽으로는 야촌리, 북쪽으로는 인정1리와 오호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적에는 순포리(尊浦里)라고 하였는데 순포리(荀浦里)라고도 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520년전(1415)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순포 서북방 300m지점에 3ha의 넓은 늪(개)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풀이 무성하여 풀이름 '순(荀)' 자에 호수 '포(浦)' 자를 써서 순포라고 불렀다. 현재 그곳은 논으로 변하고 인근 산아 및 집주위는 대나무가 무성하다. 후에 포월, 황포, 순포 등으로 부락이 분산되어 행정구역 분할시 삼포(三浦)로 개칭되었다.

1996년 4월 23일 마곡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근 산의 송림과 오래된 가옥이 모두 소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 삼포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71가구가 살고 있다.



삼포1리 마을전경

인구는 남자 110명, 여자 105명으로 모두 215명이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1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라도 8가구, 경상도 7가구, 충청도 6가구, 서울 5가구, 경기도와 대전 2가구씩 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魚씨가 20가구, 김씨 12가구, 홍씨 8가구, 최씨 7가구, 박씨와 鄭씨가 각각 5가구씩, 宋씨와 黃씨, 申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8가

구 등으로 함종(咸從) 어(魚)씨의 집성촌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4가구, 기타 37가구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은 편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33.6ha, 밭 16.3ha, 임야 320ha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115두, 개 13마리, 닭 28수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7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71대, 냉장고 71대, 자가용 39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유교 20가구, 불교 12가구, 기독교 10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3년 4월 사업비 4천9백40만원을 들여 마을길 259m를 화·포장했다.

1993년 6월 사업비 1억3천7백만원을 들여 도로 555m(폭 6m)포장, 옹벽 360m를 설치했다.

1994년 7월 사업비 6백10만원을 들여 마을길 100m(폭 4m)를 포장했다.

1996년 10월 사업비 1천6백90만원을 들여 하수관 1,761m, 맨홀 13개소를 시설했고, 사업비 2천5백만원을 들여 순포천 찰랑기 100m를 시공했다. 또 사업비 2천3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정비를 실시했으며,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포장 4.3a, 옹벽 60m를 설치했다. 11월 사업비 1천7백6십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02m를 포장했고, 동월 사업비 1억1천3백만원을 들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52.9m³)을 설치했다.

1996년 12월 사업비 3천6백40만원을 들여 안길포장 195m, 옹벽축조 43m, L형축구 60m를 시설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1월 3일에 마을의 성황당에서 부락 전주민의 안녕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성황제를 지낸다. 이는 옛날 사머니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마을이 생길

때 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의식절차는 음력 1월 30일을 정하여 송침을 한후 돼지머리를 준비하여 무당이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축문을 읽고 각 가구마다 건강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다.

△ 마을 세시풍속 : 해마다 음력 6월6일이면 부락의 전주민과 집주인 및 일꾼들도 한자리에 모여 막음껏 먹고 마시며 지나간 일들을 얘기해 가며 격식없이 하루를 즐기는 등 마을의 끈끈한 친분을 보인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향종가(香從歌) 및 회다지기

(가사내용) 일시암명(一時暗明)은 극락세세(極樂歲世)요 나무아미타불 천지(天地)는 분단후에 삼남화성(三男火星) 일어난이 세상천지(世上天地) 만물(萬物)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내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지상(地上)에 나온 사람 뉘덕으로 생겨났네
물보살님 은덕으로 아버님전 뵈를 타
어머님전 살을 빚고 칠성전 명(命)을 하고
제석님전 복(福)을 타고 석가열의 제도하여
인생일신 탄생하니 한두산에 철을 물라
부모은공 모르다가 이삼십이 탕해오니
옥한 고생살이에 부모은공 값을 소나
절통하고 애통하다 머리를 뽑아 신을 삼아
아버님 신으세요, 어머님도 신으세요,
부모은공 못다갚고 무정세월 약류하여
원수백발 당도하니 인간칠십 고래히라
절통하고 애타구나 한일 없도 할수 없다.
홍안백발이 되었으니 다시 젊지 못하리라
인생백년 다살아야 근심걱정 다제하면
단사심을 못살았노라 어제 오늘 성던 몸이
저녁나절 병이 들어 성성하고 악한 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으니 냉수로다
인삼녹용 소용없고 백약이다 무효구나
칠성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한들
어느 부처님이 알아줄이 십왕전(十王殿)에 명을 받아
한손에 배자들고 또한손에 철되들고

와라니를 벗겨치고 활등같이 굵은길로
 살대같이 달려들어 칠통같이 호령하며
 성명삼자(姓名參字) 불리내어 어서가자 바삐가지
 한번 매여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불쌍하다 이내일신 인간하직 망극하다
 이세상을 하직하고 북만산천을 가리로다
 어억갈고 실산유곡(深山幽谷) 청치없는 절이로다
 옛노인 말들으니 저승길이 머다드나 대문 앞이 저승일세
 구사당에 배(非)하고 신사당에 하직하니
 일직사자는 손을 잡고 일직사자는 등을 밀고
 천방지속 돌아갈새 높은데는 낮어지고 낮은데는 높아지니
 시장도하고 숨도찬다. 육진장포로 직끈 묶어
 소방선대틀에 덩그렇게 실어놓고
 잣나무 장공틀에 잣나무 연초대에
 안팎다줄(수)스물너발 향종군(香從君)아 팔마추어라
 초동군아 불땀려라 북만산천 찾아가서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을 좌우(左右)로 둘러 놓고
 청송(靑松)으로 울을 삼고 청(靑)대 홍(紅)대로 집을 남고
 공산명월(空山明月) 깊은 밤에 슬피우는 두견접동 벗을 살으니
 산지조종(山之祖宗)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水之祖宗)은 황하수(黃河水)라
 그 경치 제일이요 동남(東南)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요 파강(江)은 천리로다
 찬외무상 십리봉(十里峯)은 구름 밖에 멀리 있고
 향화(香花)소상 이천리는 군앞에 정계로다
 악량루 높은 집에 두장이 앉아 지은 글은
 동정(亭)함 월(月)로 개웅하고 낙포(浦)로 등등 뜨는 배는
 조각달 무광중(無光中)에 초패왕의 원혼가
 천하의 명승지는 간곳마다 글귀로다
 기산(奇山)명주 별건곤(別乾坤)에 소구홍유가 원호로 있고
 적벽강(江) 추야월(秋夜月)에 소자침이 늘어 있고
 채석강(江) 명월야(明月夜)에李志선이 늘어 있고
 화양누 몽화대 문장명필(文章名筆)이 재주로다.

도원도리 편시추은 명지강산을 허송마라
 나는 가네... 영결종천(永決終天) 나는 가네
 만당 같은 내집 두고 북망산천 나는가네
 이제가면 언제오나 병풍(屏風)에 그림 달이 날개치고 올면 오시려나
 뒷동산에 묻은 군밤이 바이 뜨면 오실려나
 만점청산(靑山) 들어가서 구척광산(九尺光山)을 깊이 파고
 칠성으로 요를 삼고 뱃장으로 이불삼아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진토되어
 삼흔칠백 흩어지고 어느 친구 날찾아오나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진다드나
 창해유수(滄海流水) 흐르는 물은 다시 오기 어렵거늘
 순우탕 문무(文武)주공공맹(公孔孟) 안정(顔程)
 정부자도덕(夫子道德)이 관천(貫天)하야 만고성천(萬古聖賢)이라 일렀건만
 미미한 우리인생이 어찌하여 알아볼이
 강태공(姜太公)과 황석공(黃石公)이 사마(司馬)양저 손(孫)빈오기는
 만고(萬古)영웅이라 일렀건만 한번 죽음을 못면하고
 명나수 담은 물은 굴상여의 충혼이요
 삼강수(三江水) 섬길때는 오자서의 정령이라
 재미하든 백이숙제 천추명절(千秋明節) 일렀건만
 수양산(首陽山)을 아사(餓死)하고 말갈하는 소진장
 육국제왕(六國帝王)을 다달래도 열나왕은 못말내여
 춘풍세우(春風細雨) 두견성에 슬픈 흔배 뿐이로다.
 만리장성(萬里長城)을 굳게 쌓고 육국조공 받았건만
 장생불사(長生不死) 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 오백인을
 삼신산으로 불사약(不死藥) 구하려 보냈더니
 소식조차 둔절하고 여산(如山)황초 뿐이로다.

△ 마을명소

• 봉수대(烽火臺) : 고려때 동진수단의 일환으로 삼포리 산1번지 상상봉 해발 180m에 직
 경 10m(사방)의 돌담(성)을 쌓아(높이 3.5m) 현재 약1m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아래 마을
 을 봉수동이라 칭하였고 마을 앞에는 호수(湖水1ha)가 있으며 가물치, 붕어, 잉어가 번식하고
 있어 한때 관광객의 낚시터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늪이 많이 매립되어 찾는 사람이 적
 다. 또 1996년 4월 23일 죽왕면 마괴리 부근에서 발생한 산화로 인해 이 일대의 송림이 전소

되기도 했다. 1997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청동기 유물이 이곳 주변에 산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칠성대 : 죽왕면 삼포리 산1번지 동쪽 해변에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 해발 60m의 칠성대가 있다. 옛날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칠월 대보름날 칠성대에 올라가 복두칠성을 보고 절을 세면하면 자식을 본다고 하여 칠성대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현재 상상봉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어명기 가옥(魚命驢 家屋) : 현 집터에서 생활한 것은 약 400년 정도 되었으며 1750년에 화재로 전소된 것을 어태준(1705~1758)이 3년에 걸쳐 동원장소에 재건축하였다. 이 가옥을 어명기의 2대 조부 어용주가 농토 약 300평을 주고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기와지붕 가옥이다. 영동 북부 지방의 민가 평면은 겹집이 대부분이며 그외 빗마루를 겹집에 붙여서 측면칸이 반칸 정도 더 긴 것은 있으나 이 가옥과 같이 완전한 측면 3칸 가옥은 현재까지 조사되어진 것으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평면 구성은 전면 2칸 마루의 경우 측면이 사랑방이 되고 그 뒤에는 도장방, 마루뒤로는 안방과 전년방이 있으나 여기서는 측면이 사랑방이 있는 것은 같으나 그 뒤의 방이 하인방이 되며 도장방은 안방옆의 중간방으로 옮겨져 있다. 이것은 평면이 민가의 형식이나 측면 3칸의 규모에서는 상류주택의 요소인 대청마루와 하인을 위한 공간이 도입되어 평면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가옥의 구조체에서는 지붕이 던집 형태로 되어 있어 측면의 길이의 증가에 따른 환기, 통풍을 원활히 해주고 있다. 본체의 기단은 장대석(길이 약 170cm)세점대 쌓기 기단(높이 85cm)이며 사랑방의 난방을 위한 아궁이가 전면에 있으므로 기단의 부분에 화강석 장대석을 3단 쌓아 사랑방 앞까지 연결하여 마루밑에 긴 아궁이 통로를 두고 있다. 전면 창호는 두짝 여닫이 세 살문이고 하부에 머름대를 두고 있다.

집의 우측면에는 뒷후문으로 가는 협문이 있고 빗마루에는 총에보를 걸치고 있으며 마루 상부는 서까래+회토 마감을 하고 있다. 뒤쪽 잘 꾸며진 후원에는 방+광+광으로 된 랑가 팔작기와 지붕의 헛간채가 있으며 방의 벽은 흙벽, 천정은 고미반자이고 광은 마루마단에 판벽으로 방과 광사이에는 외벽 여닫이 세살문이 있다. 본체의 좌측에는 우진각 지붕 흙벽의 방앗간이 있었으나 1996년 고성산을 화재로 소실되었다. 1997년 변소와 방앗간이 복원되면서 방앗간의 위치가 현재 위치로 변경되었다. 주초는 치석을 알고 덩벙 주초를 사용하였다.

△ 바위·나무 등의 전설

• 선바위 : 마을의 서남쪽 300m지점에 위치한 바위로 여러 개의 바위가 달라 붙어 있어 일명 입암(立岩)둥이라고 부른다.

• 노고암(老姑岩) : 마을에서 서쪽으로 500m지점에 위치한 바위가 마치 할머니의 허리처럼 굽어 있으며, 옆에는 손자인 듯한 바위가 손을 잡고 있는 모양으로 붙어 있어 노고암(老姑

뽕) 또는 일명 함미바위라고도 하며, 삼포리 주민 및 인근부락 주민들이 옛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곳에 와서 자식을 낳게 해 달라고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미나리 타령

(가사내용) 양부양천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저처녀야.

겉에 겉일 세쳐 버리고 속에 속일은 나를 주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아 종종 심어주게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고개로 넘어가네

이 논자리 모를 심어서 잘 가꿔서

천식만식 때어서 잘살아 보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도편에 뜨는 해는 서산으로 가는데

이 논자리를 언제 심을 라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② 선유애 : 소름 모는 소리

(가사내용) 이랴아 이랴 이에랴 소오

나서지 말고 골로 들어서라

씩 들어서라 들로 돌아서라

높은 들은 넘겨 달고

젠(낮은)등은 쓰러 달고

이랴 어디서 돌아서나

해는 서산에 돌아서나

이논자리들은 언제 다가느냐

어디서 돌아서

△ 민속놀이

• 순포마을 풍년농요놀이 ('90년 도대회 우수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곳 주민들이 농요를 통해 힘겨운 한해의 농사 일을 협동 단결해서 마치는 월련의 농촌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민속놀이로 입장과 제례, 논갈이와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한마당 놀이 등 5개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가래질 소리

〈가사내용〉 석이 퍼내는 모래박죽 가래요

어허둥둥 가래요

셋이서 하는 논부렁 가래요

어허둥둥 가래요

외양간 치는 마굿간 가래요

어허둥둥 가래요

불 담은 불가래요

어허둥둥 가래요

② 풍년농사놀이

〈가사내용〉 천하지 대본농사라니 풍년농사를 지어보라

농사한철 지어보라 풍년농사를 지어보라

알뜰도 천석 두루요 뒷뜰도 천석 두루요

이천석을 지어보라

훈지라 먹어라 돼지벼요 인간 70 노인 활이요

휘휘들러 상모찰이요

우물들러 상모찰이요

우물 밑에 샘 다래기요 여기저기 심었구나

가을 철 얼른되니 저농부 거동보소

낮자루 콩무니 차고 검정소 앞새우고

이려 득쳐서 썩 나가니 나갈적엔 빈말이요

들어올면 찬말이라

말마 같은 상노놈은 질뺑을 걸어 저들이고

비호같은 종년들은 따바리 받혀 여들이니

앞마당에 노적이오 뒷마당에 노적이라

노적가라가 풍을시고

③ 미나리

〈가사내용〉 심심하고 염염한데 지구나기를 풀어보세

양구양천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저 처녀야

곁에 것알을 다 제쳐놓고

속에 속알은 나를 주소

• 순포마을 들노래 (94년 도대회 장려상) : 밭 농사가 많은 이 마을에서 농부들이 밭갈이

에서부터 콩심기, 콩밭베기, 콩엮기 등 일련의 콩농사 과정을 연출해 화합하는 주민의 정서를 재현하고 힘겨운 농사 일을 농요로 승화시키는 삶의 모습을 재현한 민속놀이이다. 입장 및 산신제, 발갈이와 콩심기, 콩밭베기, 콩엮기, 한마당 놀이 등 5개과장으로 구성돼 있다.

〈가사내용〉 천하지 대본 농사라니

농사한절 지어보라.
알뜰도 천석 두루요
물이 말라 전답이며
무슨 뭇을 심었더냐
혼자서 먹어라 돼지벼요.
휘휘 둘러 살모잘요.
우물 밑에 섬 다래기도
가을철이 어른되니
낮자루 꿈무나고
이러 독 쳐 썩 나가니
비호갈은 종년들은
알미장에 노적이요
노적가리가 좋을 시고.

풍년농사를 지어 보라.

풍년농사를 지어보라.
뒤통도 천석 두루요
물이 층층 수답이라.
많이 먹어라 전자도요.
인간칠십 노인 찰이요.
여기저기 다 심었구나.
저농부 거동보소.
검정소를 앞세우고
나갈적엔 빈말이요. 들어 올땐 한물이라.
따바리 밭한 여인들이니
뒷마당에도 노적이라.

○ 삼포2리

△ 위치 : 동쪽으로 동해와 연결되어 있고, 서쪽으로 산이 막혀 있으며, 남쪽의 야촌리, 북쪽의 삼포1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삼포2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 황포리(黃浦里)로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마을 앞에 있는 소류지(小溜池)의 수면이 황색을 띠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984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국도변으로 이주해 현대식 가옥을 신축, 피서철 민박을 운영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25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22명, 여자 226명으로 모두 448명이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06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와 대전이 각각 5가구, 전라도 4가구, 경기도 3가구, 부산 2가구 등이다.

성세별 가구현황은 宋씨가 25가구, 崔씨 16가구, 金씨 15가구, 魚씨 10가구, 朴씨 9가구, 李씨 8가구, 鄭씨 7가구, 嚴씨와 尹씨, 柳씨, 張씨가 각각 4가구씩, 郭씨 3가구, 徐씨와 安씨, 申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10가구 등으로 여산(礪山)송(宋)씨의 집성촌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81가구, 상업이 10가구, 기타 34가구로 주로 농사일이 주업이나 최근 피서철 빈박을 운영한 농외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일반현황 : 정치면적은 논 67.0ha, 밭 20.5ha, 임야 400ha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150두, 개 46마리, 닭 70수, 오리 20수를 사육하고 있고, 양봉 70군을 기르고 있다.

전기는 1967년 8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1년 8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급격히 늘어 현재 125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25대, 냉장고 125대, 자가용 79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유교 20가구, 불교 15가구, 기독교 3가구, 천주교 1가구 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5월에 1백3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평 20평으로 신축했다.

1980년 12월에는 처음 자본금 5백만원으로 마을 공동구관장을 개설해 1985년에 자산액이 6백만원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 사업으로는 1975년 5월, 자부담 90만원과 지원액 1백50만원 등 총소요액 2백40만원을 들여 삼포천에 길이 30m의 교량을 가설했다.

1973년 6월에는 지원금 4백만원과 자부담 2백만원을 들여 삼포천 150m를 정비했고,

1977년 4월에는 삼포천 100m를 지원금 3백만원과 자부담 1백5십만원 등 총4백5십만원으로 정비했다.

1984년부터 1985년에 걸쳐 지원금 5백만원과 자부담 2백50만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300m를 시멘트 포장했다. 또 그보다 앞서 1980년 5월에는 지원금 36만7천원과 주민부담 94만8천원 등 총사업비 1백31만5천원을 들여 마을안길 200m를 개설했다.

1991년 7월 사업비 1억6백80만원을 들여 도로 1,080m(폭 7m)를 확·포장했다.

1991년 10월 사업비 4천5백90만원을 들여 삼포위락구조개신을 위해 도로 906m 포장, 하수도 292m, 상수관로 232m, 옹벽 116m를 설치했다.

1991년 11월 사업비 1천5백60만원을 들여 진입로 573m를 포장했고, 1992년 3월 사업비

- 1천3백7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85.5m(폭 4.5m)를 설치했다.
- 1993년 4월 사업비 6천8백80만원을 들여 삼포천 호안제 500m와 돌방배를 축조했다.
- 1993년 9월 사업비 9백40만원을 들여 마을길 10.1a를 포장했다.
- 1995년 4월 1억1천만원을 들여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교량 30m(폭 8m, 높이 5m)으로 새로 가설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2천1백만원을 들여 취입보 24m를 설치했다.
- 1996년 9월 3천8백만원을 들여 삼포천 호안공 200m, 호안블럭 100m, 찰밭기 100m를 정비했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어제는 청춘이더니 오늘 백발이 쉼일이나

일가친척이 많아도 어느 누가 대신가나.

후렴 (아 아 어 어 널리 널리 타루우)

어허 남카야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라.

인제 가면 언제오나 명년 세사때 한번오지.

하늘이 높다해도 삼사오경에 이슬주고

북정친지가 멀다해도 지신행차 왕래하는데

저승길은 멀만리가 되어 한번가면 못오시나.

후렴 (허기남자 어허야)

어허루 다루야 산지조정은 권룡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해수라. 권룡산맥이 흘러 흘러서 백두산이 되었구나.

백두산이 주춤주춤 내려오다가 강원도 금강산에 기봉했어. 금강산에 기봉했다
이산에 내려왔다.

이산 쓰고 삼년후에 아들나면 충신 낳고 딸나면 열녀 낳고

이산 쓰고 삼년만에 서울장안 절반사네

(후렴) 어허루 다루야 어허루 다루야

△ 기타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화전놀이를 할때나 정사난 집에서 늘상 잘 부르는 노래가 전해온다.

〈가사내용〉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 하세
지화자 종네 얻시구나 종네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 하세

① 뱃노래

〈가사내용〉어스렁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지킴뚝간 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일본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나를 두고 열락선 타느냐.

(후렴) 영야노 야노야 영야노 어기여차 뱃솔이 가잔다.

△ 속칭이름

• 포월(浦月) : 약 80년전부터 부락앞에 개(浦)가 있고 그 곳에 달이 비추는 것이 매우 좋아 보이므로 포월이라 칭하여 왔다.

• 황포(黃浦) : 약 100년전 이부락 앞에 소류지가 있었는데 그 수면이 황색을 띄웠다 하여 황포라 칭하고 있다.

• 황포천(黃浦川) : 황포부락 앞을 흐르는 하천.

• 삼포교(三浦橋) : 삼포리 구역에 있는 다리.

• 월재기, 끝월재기 : 끝짜기 이름

• 오마장 줄벌, 삼성당 앵두터 아랫들 : 들관 명칭.

◎ 인정리(仁亭里)

△ 위치 : 동쪽으로는 오호리, 서쪽의 구성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의 삼포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오봉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처음에는 이 마을을 감인당(甘仁堂)이라 하였고 평촌리(坪村里)라는 부속적인 명칭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해 감인당(甘仁堂)의 '인(仁)'자와 화정(花亭)의 '정(亭)'자를 따서 인정1리, 2리로 명명하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

마을을 수호해 주는 봉천(鳳峴)산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은 부영이가 3일만 올면 비가 내린다 하여 봉천산이라 불려오고 있다. 산위에 거대한 바위 열(선선바위)을 지날 때 이 바위에 올라 시를 읊고 글을 지으며 노닐었다고 한다.

○ 인정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3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6명, 여자 47명으로 모두 93명이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9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가구씩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尹씨가 9가구, 손씨와鄭씨,李씨가 각각 3가구씩,崔씨와 조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9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31가구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 일반현황 : 정치면적은 논 29.5ha, 밭 13.1ha, 임야 350ha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가 42두, 개 69마리, 닭 28수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



인정1리 마을전경

화보급이 늘어 현재 3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1대, 냉장고 31대, 자가용 5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유교 25가구, 천주교 1가구 등으로 비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

마을회관은 1972년 4월에 4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평 20평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1982년 2월에 설립된 마을문고는 1985년 25가구가 가입하여 자산액이 250만원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 사업으로는 1975년 5월에 자부담 10만원과 지원금 1백만원을 들여 마을 앞여 길에 30m의 교량을 가설했다. 또 1977년 5월에는 1백20만원의 지원을 받아 마을앞에 위치한 소하천 145m를 정비했고, 145m되는 마을안길을 시멘트 포장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1천3백7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527.5m(폭 3m)를 포장했고,

동년 4월 사업비 5천7백90만원을 들여 인정천 수해위험지구 400m(높이 4.5m, 폭2m)를 개수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1천3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92m(폭 3m)를 포장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4천7백5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포장 7.2a, U형개거 180m, 휴관 10m를 설치했고, 동월 사업비 2천6백90만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50m를 보수했다. 또 10월 7천1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포장 300m, 용벽 282m, 휴관 35m를 시설했다.

△ **특산물** : 1985년도에 산송이 채취에 10세대가 참여해 연간 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1996년 4월 23일 죽왕면 마귀리에서 발생한 산화로 인해 마을일대의 산림이 전소됨에 따라 송이채취 소득이 없어졌다.

△ **마을신앙** : 평촌리에서 옛날부터 마을의 평온과 주민소망을 기원하기 위해 세지머리나 소머리를 준비하여 웃성황당과 아랫성황당에서 성황제를 지내왔는데 일정(日政) 당시의 미신타파로 현재 현재는 성황당 자리만 남아 있고 제사는 지내지 않고 있다.

△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과 추석명절시 가족단위의 윷놀이를 하며 편을 짜서 하루의 명절을 즐긴다.

△ **회다지 노래** : 묘 또는 집터를 다질때 불리워진 노래

(가사내용) 산지조종 골뎡산이요 수지조정은 황하수라	에혜루와 달구
골뎡산맥이 꼭 떨어져서 백두산에 기봉을 하고	에혜루와 달구
백두산이 떨어져서 금강산을 도읍하니 세계명산이 이닌가	에혜루와 달구
금강산맥이 흘러서 수증진국이 되었구나	에혜루와 달구
만두성신 둘러보고 음양가를 둘러보세	에혜루와 달구
고귀한 자 음이 되고 강보한 자 양이로다	에혜루와 달구
산지배복 모르면은 혈지하실 어이하리	에혜루와 달구
침원향상 되었으니 화정세지 학자로다	에혜루와 달구
영송장풍 되었으니 천하지열 개구로다	에혜루와 달구
산에 산에 애위싸영 천원지방 되었구나	에혜루와 달구
시위당국이 분명하니 나성당국이 아닌가	에혜루와 달구
사해사해 성취되고 조해조해 삼점이라	에혜루와 달구
수풍방풍 모르면은 천가구별 누가하리	에혜루와 달구
순양순음 되게되면 무남생애 이아닌가	에혜루와 달구
개구하면 승급이요 승급되면 중자로다	에혜루와 달구
백골안녕되는 땅은 장풍괴살 이아닌가	에혜루와 달구
이주부요 요주기면 귀천빈부 차제로다	에혜루와 달구
라기하에 장군나고 문필하에 장군난다	에혜루와 달구
보금협에 어사나고 와우협에 거부난다	에혜루와 달구
목성연화 장개하니 연화출수 이아닌가	에혜루와 달구
월성이 제자우하니 옥토망월 이아닌가	에혜루와 달구
수전현무 되었으니 자손영귀 장원이라	에혜루와 달구
수요혈이 기천이요 수취당이 복후로다	에혜루와 달구
함급하고 가는길은 천리라도 좋으려니	에혜루와 달구
수구막이 일월되면 왕후지지 이아닌가	에혜루와 달구
이산 쓴지 삼년만에 부귀영화 누릴적에	에혜루와 달구
아들을 나면 충신을 낳고 딸을 나면 열녀를 나소	에혜루와 달구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만우로다	에혜루와 달구...?

△ 정자 및 두(樓)전설

• 송호정(松湖亭) : 1959년 10월 3일 면장 최창길(崔昌吉)씨와 지방독지가가 김원섭(金元燮) 향진기성회장을 중심으로 1백70만원을 모금하여 건립하였다. 송지호 서편에서 동편으로 뻗은 꽃형(串形) 지역에 위치한다. 1994년 완전 보수하였으나 1996년 대화재로 소실되어

화강암 초석 4기가 부서진 채로 남아 있었다가 1997년 8월 군비 8천만원을 들여 새롭게 원형 복원되었다. 지금의 현판은 함귀호(咸貴鎬) 강원도교육위원이 서(書)하고, 이창석(李昌錫)목공예가가 찬(篆)하였다.

△ 산, 나무 등의 전설

• 밤나무 : 연대와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수령 7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밤나무가 있었는데, 옛날 9년동안의 흉년에 뿌리만이 깊숙히 남아 있는 곳에 거지가 살다가 굶주림에 지쳐 자식을 잡아 먹었다는 끔찍한 전설이 있다.

• 중림사 : 즉왕면 인정리 속칭 죽림촌(竹林村)에 지금부터 약 800년전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의 정확한 연대와 유래를 알 수 없다가 지금부터 약 100년전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의 어른에게 물어본 결과 절의 이름이 중림사라고 알려 주었고 지금은 주춧돌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

• 웃서당(書堂) 아래서당(書堂) : 구한국시대로부터 인정리에 2개소 서당이 있었는데 웃서당은 큰서당이라 하고 아래서당은 초학서당이라 하여 인근부락 학생들이 많이 다니 공부를 계속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과거에 합격한 사람은 이 서당 출신)했다.

한일합방후 웃서당을 개량 사숙으로 개편하여 지속하고 다시 보통학교로 승격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결국 현 즉왕학교부지에 오호공립보통학교로 계속하다가 6.25이후 즉왕초등학교로 되었다.

△ 마을 명소현황

• 이덕균 가옥(李德均 家屋) : 전통가옥의 형태를 비교적 양호하게 지니고 있는 이 가옥을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7호로 지정하고 1997년 7월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해체 복원했다.

• 청동기 유물산포지 : 마을 낮은 구릉지에서 마제석기와 토기편이 수집되어 이일대에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선사유적이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1997년 5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인정2리

△ 마을유래 : 옛날 이 마을에 권씨, 왕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노비까지 차림새가 꽃 같이 아름다운데다가 사철 내내 마르지 않는 샘과 샘 주위에 꽃이 만발하여 지나가던 고승이 꽃우물(花井)이라 이름 지은 것이 속칭이 되었다고 한다.

이 우물은 지금까지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 때도 항상 수위가 일정하여 마을에서 보존하고 있다.



인정2리 마을전경

인정리(仁亭里)라 불리우게 된 것은 해정 박엽인데 인근마을 평촌동(坪村洞)과 석교동(石橋洞-대당 李植 선생이 돌다리를 마을에 놓고 명명하였다 함), 화정동(花亭洞)을 합하여 인정리라고 하고 1.2리로 나누었다는데 인근 부락 감인당리(甘仁堂里)의 '인' (仁)자와 화정(花亭)에서 '정(亭)'자를 따서 인정리(仁亭里)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4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가 79명, 여자가 74명으로 모두 15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2가구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5가구, 충북이 3가구, 전남이 1가구 등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李씨가 25가구, 宋씨가 4가구, 金씨와朴씨가 각각 2가구, 기타 8가구 등으로 평창李씨가 많이 살고 있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33가구로 가장 많고, 기타 8가구 등이다.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40.7ha, 밭 14.4ha, 임야 710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8대, 트랙터 9대, 콤팩트 8대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97두, 개 18마리, 닭 72수, 돼지 7두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9년 10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9년 5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3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41대, 냉장고 41대, 자가용 19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네버스는 1982년 5월에 개통돼 하루 7회를 왕복 운행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10가구, 기독교 5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5월에 자부담 2백8십만원과 지원금 3백만원으로 마을 앞의 인정천 위에 10m길이의 교량을 가설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460m(폭 3m)를 포장했다.

1995년 12월 사업비 2천4백70만원을 들여 마을길포장 342m,涵管 15m를 설치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인정2교 교량62m(폭 9m)를 가설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3천1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220m 포장, 축구 65m, 홍관부설 70m, 횡배수관 10m를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음력 1월 3일에 인정2리(仁亭2里)에서 오봉1리로 넘어 가는 농로 길에 위치한 서낭나무(큰소나무) 밑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흔히 성황제라 한다.

그 유래는 정확치 않으나 부락의 재난이나 농사가 잘되지 않으면 제를 올리고 하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곳을 지날때 마다 돌(조약돌)을 1개씩 던지고 가면 가정의 재난을 막을 수 있다 하여 현재도 이 장소를 지날 때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을 던지고 간다고 한다.

의식질차는 부락 주민이 마련한 각종 제물을 준비해 놓고 성황나무 밑에서 주민대표 10명이 참석하여 해질 무렵에 제사를 지낸다.

△ **마을 세시풍속** :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는 전주민이 참석하여 4씨로 나눈 뒤 율놀이로 하고 널뛰기를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 바위 등의 전설

- 시루바위 : 떡 찌는 시루와 모양이 같아 유명한 바위를 옛날부터 시루바위라고 불려왔다.

◎ 구성리(九城里)

△ **위치** : 동쪽으로는 인정 1.2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쪽의 마귀리, 남쪽으로는 아촌리,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간성읍 선유실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구성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속칭 구돈리(九頓里)

혹은 서성리(西城里)라고도 하는데 서기 1564년경 유산 허씨(柳璥 虛氏)가 이 부락을 재건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서기 1600년경에 봉화정씨(奉化鄭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순흥 안씨(順興 安氏) 등이 거주하여 포두리(漣頭里)로 마을이름이 통하여 오다가 그 후 언대는 알 수 없으나 정씨, 김씨, 안씨, 이씨 등이 거주할 당시 포두입을리

(漣頭入乙里), 서파리(西派里) 등으로 계속 개칭되어 왔다. 세조 때에는 간성군 남죽도면 서성리로 다시 개칭되어 그후 여러 성씨로 약 30호 가량이 거주하였다가 서기 1910년 한일합방이 되어 간성군 죽도면 구성리로, 그후 1945년에는 양양군 죽왕면 구성리로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8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71명, 여자 155명으로 모두 32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66가구, 경상도 5가구, 서울 4가구, 전라도 3가구, 충청도 2가구, 부산 1가구가 비교적 토속적인 지역문화가 많이 잔존하고 있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가 20가구,鄭씨 9가구,朴씨와李씨가 각각 7가구씩,崔씨 6가구,安씨와郭씨가 각각 5가구,張씨와姜씨가 각각 3가구,韓씨와宋씨,姜씨,尹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8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76가구로 가장 많고, 상업 5가구 등이다.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64.27ha, 밭 31.9ha, 임야 306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32대, 트랙터 5대, 이앙기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 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217두, 개 64마리, 닭 80수, 산양 43두, 사슴 21두, 양봉 67군을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고, 비육우사육 농가가 늘었다.

전기는 1975년 1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7년 5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 보급이 늘어 현재 81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81대, 냉장고 81대, 자가용 42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8년 4월에 개통돼 하루 7회를 왕복 운행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10월에 사업비 6백만원을 들여 전평 40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으며 지금은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있다.

1973년 11월에는 자본금 40만원으로 마을 공동구관장을 시작하여 1985년도에 1백50만원의 자산액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30가구, 기독교 12가구, 유교 15가구로 대부분의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3년 4월에 자부담 40만원과 지원금 30만원의 지원을 받아 마을 앞 교량을 가설했고 또 중죽골 뒤희의 관터에도 지원금 22만원과 자부담 35만원을 들여 4m 교량을 가설했다. 1975년 3월에는 지원금 80만원과 자부담 40만원 등 모두 1백20만원을 들여 소하천 100m를 정비했다.

1991년 5월 사업비 8천3백60만원을 들여 마을길 980m(폭 7m)를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천5백60만원을 들여 마을길 568m를 확·포장했고, 동월 사업비 4천 2백90만원을 들여 마을길 300m(폭 6m), L형 측구 280m,涵管 8m를 설치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3천5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265m(폭 3~4m)포장, 옹벽 55m설치,
 휴관 180m를 각각 설치했다.

1995년 3월 사업비 2천7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72m포장과 암거 16m를 설치했다.

1995년 4월 사업비 2천8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53m포장과 옹벽 105m축조, 휴관25m
 를 부설했다.

1996년 9월 사업 2천5백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40m포장과 옹벽 140m를 설치했다.

△ 마을 특산물

• 도라지 : 12가구가 6,000평의 경지에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2년후 평당
 2,000원씩 모두 1천2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다.

• 원두콩(약재) : 현재 1가구에서 700평의 땅에 500부의 원두콩을 기르고 있는데 7년후
 생산예정이며 1주에 3근이 생산목표이고 1근에 1만원씩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재래봉 : 26군을 기르고 있으며 1군에 1년 평균 1.5병이 나오는데 1병의 수익이 11만원
 으로 잡고 있으며 1년 총수익은 4백29만원에 달하고 있다.

△ 마을신앙 : 해마다 음력 정월 초순(1, 5일) 길일을 잡아 동네임구의 성황당에서 성황제
 를 지내는데 이는 마을이 생긴 서기1546년경부터 내려오는 제사로서 마을의 평안과 무사고를
 빌었는데 400여년의 역사를 갖고 동네임구 오른 쪽 산에 위치한 성황당에서 대대로 지내오고
 있다.

• 의식절차 : 1955년 이전에는 소를 잡아 지냈으나 현재는 돼지머리 하나를 사서 지내고
 있으며 제비를 뽑아 생기에 맞고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5명정도 정해 일반적인 제사의
 예에 따라 청결하게 지낸다. 이 때에는 마을 전주민이 제양의 예망과 평안, 행운을 소원하며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축원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正月) : 음력 정월 설날과 보름 날에는 주민들이 모여 윷놀이와 널뛰기를 즐기며
 이웃 일가친척과 이웃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제사 지낸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웃과 동리간의
 친목을 두터이 하고 있다.

• 팔월(八月) : 팔월 추석때에는 온주민이 조상에 성묘를 하고 오후에는 그네를 뛰며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온갖 놀이를 하여 하루를 흥겹게 보낸다.

△ 외다지 노래

① 논옥룡자담산가(論玉龍子踏山歌)

〈가사내용〉 여보셔요 상주(喪主)님께 천하명당(天下明堂) 여기보다

신묘봉(申卯峰)이 높고보니 삼성팔현(三聖八賢) 날자리요

손신봉(巽辛峰)이 높고보니 옥당한림(玉堂翰林) 날자리요

곤모봉(坤母峰)이 높고보니 황후왕비(皇后王妃) 날자리요
 경태봉(庚兌峰)이 높고보니 천하명장(天下名將) 날자리요
 건곤간손(乾坤艮巽) 사태봉(四胎峯)은 만고영웅(萬古英雄) 날자리요
 갑경병임(甲庚丙壬) 사순봉(四順峯)은 만고여장(萬古女將) 날자리요
 진술축미(辰戌丑未) 사장봉(四藏峯)은 석승거부(石崇巨富) 날자리요
 딸없다고 한탄마라 인장묘발(寅葬卯發) 여기로다
 아들없다 한탄마라 불유당년(不逾當年) 생귀자(生貴子)라
 삼대백두(三代白頭) 한탄마라 대대정승(代代政承) 여기로다
 주산(主山)이 높고높아 만종(萬鍾)을 올릴거요
 병자봉(丙子峯)이 높고보니 백발부모(白髮父母) 장수(長壽)하고
 건태봉(乾亥峯)이 높고보니 국사왕사(國師王師) 날자리요
 간인봉(艮寅峯)이 높고보니 칠세남아(七歲男兒) 등촌지(登村地)요
 자오묘유(子午卯酉) 사정봉(四正峯)이요 나라님의 필생지(必生地)요
 인신사해(寅申巳亥) 사생봉(四生峯)은 현인달사(賢人達士) 날자리요
 을신정계(乙辛丁癸) 사강봉(四强峯)은 천하구토(天下九土) 날자리요
 간인용(艮寅龍)이 병우(丙午)로다 신술좌(辛戌坐)가 되고보면
 건태용(乾亥龍)이 정미(丁未)로다 갑묘구좌(甲卯九坐)가 되고보면
 손사좌(巽巳坐)이 경태(庚兌)도다 계오좌(癸五坐)가 되고보면
 곤신용(坤申龍)이 임갑(壬坎)도다 을진좌(乙辰坐)가 되고보니
 어화세상 사람들이 수덕적선(修德積善) 명당(明堂)이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올넌어 담넌어 꿀매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든 내손목 잡아라

에야노야 노야 에야노 허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남물이 들었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꽃에 남물이 들었네

에야노야 노야 에야노 허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굴뚝의 연기는 바람에 불리고 남자의 마음은 여자에 쏠린다.

에야노야 노야 에야노 허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속칭이름

• 서성리(西城里) : 조선말엽인 1850년경에 고을도읍지를 정하려고 고을원이 이곳에 와 보니 주위에 높은 산이 처마처럼 둘러싸여 있어 좋으나 자산이 많아 고을 도읍지를 포기하고 간성(杆城)에 정하였다고 하며 그후 산이 주위에 성같이 둘러싸여 있고, 또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서파리(西坡里)라고 부르다가 후에 다시 서성리(西城里)라고 하였다.

• 구돈리(九頓里) : 조선말엽 도공이 명당자리를 찾던중 죽변산(竹邊山 대고깔)아래 평탄한 지대에 금학포도지형(金鶴抱卵之形)이라 하여 이곳에 와서 밭을 아홉번 구르며 명당이라 하였기에 구돈리라 칭하였다.

• 구성리(九城里) : 서기 1915년 행정구역폐합으로 구돈리(九頓里)와 서성리(西城里)를 합하여 구돈리의 '구(九)'자와 서성리의 '성(城)'자를 따서 구성리하고 했다.

• 죽변산(竹邊山, 대고깔) : 산의 형태가 중(僧)이 쓰고 다니는 대(竹)로 만든 모자(邊)같이 생겼다하여 죽변산 또는 대고깔로 부르고 있다.

• 터일(堡一) : 옛날 풍수가 이곳에 와서 이곳은 집터(堡)로 사용할 곳이 하나밖에 없다 하였기에 터일이라 불린다.

• 절터(寺址) : 구성리 마을에서 터일로 넘어가는 발바꿈이에 암자터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고려 때 그곳에 암자가 있었다고 하나 정확한 건립연대나 없어진 연대는 알 수가 없다. 현재는 유물이나 유적은 없지만 절터로 적합한 지형만이 남아 있다.

• 명우산(鳴牛山) : 조선 중엽 서기1546년에 동네가 생기고 그후 구성리(九城里)앞 높은 산을 명오산(鳴鳥山)이라고 칭하였는데 조선 말엽에 와서 1905년경 오봉2리(적동 笛洞)의 용궁 김씨(龍宮 金氏)가 산소를 이 산 밑에 쓰고 부터 와우형(臥牛形)이라 하여 그들이 명우산(鳴牛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 서성산(西城山) : 옛날에는 여인의 치마 폭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치마산이라 칭하여 오다가 조선 말엽 간성군 때에 고을(郡) 도읍지를 정하려고 하였으나 자산이 많아 좋지 않다고 하여 도읍지를 정하지 않고 간성(杆城)으로 옮긴 후 고을원이 서쪽에 자리잡은 성(城)같은 산이라하여 서성산(西城山)이라 정하였다고 한다.

◎ 야촌리(野村里)

△ 위치 : 동쪽으로는 송암리, 서쪽으로는 토성면 운봉리, 남쪽으로는 토성면 벽촌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삼포2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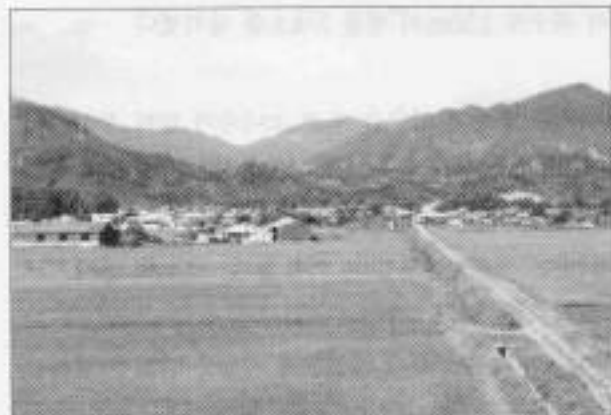
△ 마을유래 : 1915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송정동(松亭洞), 곡실(谷室), 삼성동(三星洞)등 세부락을 합하여 하토성리(下土城里)라 하다가 후에 다시 야촌리(野村里)라고 불렀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0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99명, 여자 200명으로 모두 39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01가구, 전북 1가구, 서울 1가구 등으로 강원출신 가구가 많이 살고 있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가 34가구, 성씨가 19가구,李씨가 8가구, 鄭씨가 7가구, 朴씨가 5



아촌리 마을전경

가구,崔씨가 4가구,姜씨와 沈씨,沈씨가 각각 3가구씩,禹씨와 韓씨,羅씨,張씨,文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89가구로 가장 많고, 기타 14가구 등으로 산송이 채취와 영농과 측산업을 병행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22.5ha, 밭 17.9ha, 임야 20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34대, 트랙터 35대, 콤팩트 12대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386두, 개 69마리, 닭 105수, 산양 2두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고, 낙농업과 비육우사육 능력이 늘었다.

전기는 1968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4년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103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03대, 냉장고 103대, 자가용 52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1984년 9월에는 시내버스가 개통되어 현재 하루 4회 왕복 운행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4년 5월 27일 1백61만1천원의 사업비로 건평 33평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해 지금은 노인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금고는 1980년 1월에 설립되어 1985년도에 85명이 가입해 자산액이 3천만원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25가구와 기독교 5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4년 12월에 자부담 11만6천원과 지원금 1백만원으로 마을의 소하천 270m를 정비했고, 1975년 5월에는 자부담 41만8천원과 지원금 13만9천원으로 교량 16m를 가설했다. 또 1982년 1월에는 지원금 2백32만1천원과 주민부담 1백54만9천원 등 총사업비 3백87만원으로 마을안길 105m를 포장했고, 1984년 6월에는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도로 640m를 사업비 2천만원으로 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2천2백7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600m(폭 3m)를 포장했고, 동년 4월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아촌천 400m 개수공사를 했다.

1993년 12월 사업비 1억1천8백만원과 1995년 5억6백만원을 들여 아촌구역 40.91ha의 면적에 풍리면적 36.59ha에 대한 경지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1996년 12월 사업비 1천8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130m와 맨홀 3개소를 설치했다.

△ 속칭이름

• 송정자(松亭子) : 약 200년전 송처사라는 풍수가 이곳을 보고 소나무가 많이 무성한 곳에 정자가 있다고 하여 송정자(松亭子)라 한 것이 지금은 송공지로 불리운다.

옛날에는 이 부근의 부락을 송정동(松亭洞)이라 했다.

• 삼성동(三星洞) : 옛날 부락 주위에 있던 청룡산, 송정자, 거북산 등 세곳의 산이 마치 별(星) 셋과 같다하여 삼성동이라 했다.

• 곡실(谷室) : 옛날 산계곡에 마을이 있었기에 곡실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주민은 살지 않고 풀로 되어 있어 다시 '곡실'이라 칭하고 있다.

• 거북산 : 산 형태가 흡사 거북과 닮았다고 하여 거북산이라 부른다.

◎ 송암리(松岩里)

△ 위치 : 동쪽으로는 문암1리, 서쪽으로는 야촌리, 남쪽으로는 토성면 배촌리 그리고 북쪽으로는 삼포2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다.



송암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옛날에는 오련된 소나무 1그루가 홀로 서 있다고 하여 독송정(獨松亭)이라고 했다. 1953년에 민통선이 삼포리까지 되자 수천가구가 이 마을에 안착하게 되었고 행정구역 분할시 송암리(松岩里)로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10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60명, 여자 168명으로 모두 328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5가구,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각 7가구씩,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4가구씩, 충청도 2가구, 인천 1가구 등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가 26가구, 이씨가 14가구, 박씨가 9가구, 황씨와鄭씨가 각각 6가구씩, 차씨가 5가구,宋씨와 趙씨가 각각 4가구씩, 文씨 3가구, 徐씨와 申씨, 權씨, 張씨, 任씨, 禹씨, 閔씨, 安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1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40가구로 가장 많고, 공업 2가구, 상업 8가구, 기타 60가구가 살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42.4ha, 밭 8.7ha, 임야 5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5대, 트랙터 5대, 콤바인 5대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 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37두, 개 21마리, 닭 14수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2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5년 8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늘어 현재 110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7호선 국도에 인접해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으로 1980년 2월에 개통되어 주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7호선국도의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 마을 접근 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10대, 냉장고 110대, 자가용 30대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6월에 총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쟁 22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해 현재는 노인회관을 겸용하는 마을공동이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 20가구, 불교 15가구, 유교 51가구, 천주교 2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5년에 마을에서 야촌리까지의 도로 95m를 확포장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는 율놀이와 망월놀이는 즐기고 보름전 날에는 오곡밥을 해먹고 부스럼을 깨물었으며 밥 9그릇 먹고 나무 9점을 하는 고유와 풍습도 있었다.

△ 지정 다지기 노래

〈가사내용〉 백두산이 낙맥이 뚝 떨어져서 태백산맥이 생겼네.

태백산맥이 뚝 떨어져 금강산이 생겼지.

금강산맥이 뚝 떨어져 설악산이 생겼지.

설악산맥이 뚝 떨어져 고성산이 생겼지.

고성산이 뚝 떨어져 명우산이 생겼지.

명우산 앞 들은 문암평야가 생겼네.

집을 지으면 명당이요 아들을 낳으면

효자났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농사를 지으면 천석 찰이로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도라지

〈가사내용〉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에 스스슬슬 다먹는다.

어허야 대해야 어허야 어허라 난다 지화자 좋다

스리슬슬 대바구니가 다차누나.

◎ 문암리(文岩里)

△ 위치 : 동쪽으로는 동해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야촌리와 북쪽으로 송암리와 각각 이웃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토성면 교암리와 연결되어 있다.

△ 마을유래 : 만호리, 췌진리(掛津里), 망포리, 망개리 등의 속칭이 있으며 전해오는 속칭 이름의 유래가 있다.

삼국시대에 신라 유민들이 들어와 어업과 농업을 겸업으로 하여 살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영토확장으로 고구려 군사들이 신라 땅인 이 마을을 침략하였다. 이때 신라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군이 이들과 맞서 치열한 싸움을 하였으나 갑작스런 침략과 힘의 부족으로 혼자 남게 된 장군은 이곳 해안의 바위 밑에서 장렬하게 전사 했다. 그러나 장군은 마을을 지키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탄 하였던지 장군이 죽은 자리에 난데없이 풀로 된 미륵동이 생겨났다. 장군이 돌아올 날 만을 기다리던 고향의 부인은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왔으나 기다리던 남편은 죽고 미륵동만 남아 있었다. 비통함과 애절함을 참지 못한 부인은 바닷가 미륵동 옆에서 밤낮을 슬피 울며 해동해하다가 기진맥진하여 죽게 되었다. 죽은 후에도 남편의 혼(魂)인 미륵동을 지키지 못함을 안타까워 한 나머지 부인의 혼(魂)은 뱀이 되어 미륵동을 지키게 되었다.

죽을 때 부인은 내가 죽어 뱀이 돼 미륵동을 지키면 나를 해하지 않고 보살피 주면 이곳 마을은 신라사람 만호(萬戶)가 거주하여 온 주민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부터 이 마을을 만호리라고 부르게 되었으나 이 소문을 들은 고구려의 박씨란 성을 가진 사람이 부인의 혼(魂)인 뱀을 죽여 버리고 말았다. 이를 본 마을주민들은 멀지 않은 시기에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조선말엽에 와서는 망포리(亡浦里)라고 부르게 되었다가 그후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부락 앞에 개(浦)가 있고 개울을 바라보는 부락이라 하여 망개라고 불렀다. 그후 1919년에 와서 문암리로, 그리고 1954년에 현재의 문암1리와 문암2리로 분리 되었다.

○ 문암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5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53명, 여자 274명으로 모두 527명이 살고 있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28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 10가구, 서울 9가구, 전라도 4가구, 충청도와 경기도가 각각 3가구씩 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가 49가구,李씨가 13가구, 崔씨 12가구, 鄭씨와 黃씨,



문암1리 마을전경

張씨, 全씨가 각각 5가구씩, 咸씨 4가구, 高씨와 林씨, 劉씨, 趙씨, 文씨가 각각 3가구씩, 기타 31가구 등 있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어업 87가구로 가장 많고, 농업 42가구, 상업이 8가구, 기타 20가구로 반농반어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26.9ha, 밭 2.6ha, 임야 1ha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3두, 개 20마리,

닭 49수, 염소 20두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농기계 현황은 정운기 16대, 트랙터 1대, 콤팩트 2대 등이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21척, 1~5톤미만 22척, 5~10톤미만 2척, 10톤이상 3척 등이다.

전기는 1968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0년 3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보급이 늘어 현재 157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57, 냉장고 157대, 자가용 48대와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111가구로 가장 많으며, 기독교 20가구, 천주교 5가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68년에 총 2백만원의 소요하여 30평 규모로 신축했다.

1992년도 어획고는 광어 1천48만원, 이면수 2천5백29만원, 풍치 6백83만원, 청어 6천6백36만원, 대구 1천4백99만원, 도루묵 3천4백29만원, 성게 2천7백96만원 등이다.

1984년 5월에는 5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포구 속항 96m를 시설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80년 4월 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암1리 진입로 100m를 아스콘 포장했고, 1984년 4월에는 마을안길 80m를 250만원으로 시멘트 포장했다.

이어서 1985년 3월에 제3차로 마을안길 72m를 사업비 250만원을 들여 시멘트 포장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1천3백4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33m를 포장했고, 1993년 4월 사업비 2천3백60만원을 들여 마을길 574m(폭 4m)를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6천8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U형 966m를 설치했다.

1993년 9월 사업비 4백5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5.92a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1월3일에 마을 성황당에서 산신제를 지내는데 이는 마을의 도는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며 풍년농사 및 풍어를 기약하는 제례로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최초 마을이 설립된 후 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보이며 제례를 지내는 날은 마을의 가족은 일체 참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금하며 또한 불길한 것을 본 사람도 제례에 참석할 수 없다.

• 의식절차 : 처음 제례를 지낼 당시는 소머리를 사용하여 의식을 행하였으나 10년전부터 돼지머리를 사용하며, 떡과 과일 등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데 마을의 최연장자가 제주가 되며 제례에 참석하는 모든 남·여는 흰옷을 입어야 한다.

△ 회다지 노래 (문암의 노래)

〈가사내용〉 동해바다야 설악산아 내가 살던 문암 정숙아

나는 가네 물결같이 흘러서 간다

몸은 오고 꽃은 피고 나비가 날때 멀리타향

주막집에서 내고향을 바라보네

△ 정자 및 루(樓)전설, 명소현황

• 문암 육각정 : 1965년에 주한 미군의 동해안 주둔시 이들의 휴식처가 되었기에 지역주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 국회의장 정일권씨가 현금을 제공해 마을 주민들이 해안가 야산에 건립한 정자이며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 특색이다.

• 문암리 유적(文岩里遺蹟) : 이 산포지는 죽왕면 회남단으로 동해안에 면해있는 해발 41.9m 야산의 남쪽에 편하여 자리하고 있다. 유적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야산이 감싸 안고 있고, 남·서쪽으로는 넓은 평야와 문암천이 흘러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약 400m 거리에 동해안이 있어 신석기시대인들의 생활근거지로서 알맞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유적일부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밭가들이 들어서 마을을 이루고 있다. 그러소 수해방지 목적으로 두 3m 깊이 1.5m 정도의 수로가 지나고 있어 이 유적의 중요부분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형편이다. 유물은 마을 뒷편 텃밭과 야산의 하단부에서 채집되었다. 특히 유물이 집중수습된 곳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기위하여 구덩이를 판던 지역에서 였다. 수로의 단면에서 나타난 지표하 약 90cm에서의 진흙포함층과, 유물이 구덩이를 판던 곳에서 주로 채집되는 것으로 볼 때, 유물 및 유구 포함층이 진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곳에서 수습된 토기는 구연부분에 주로 압날에 의해 식문된 다양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부형태는 모두 평저이다. 또한 윗기문 토기가 다량 수습됨으로써 이 유적의 성격 및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지 역사와 문화유적〉

• 선사유적 : 마을 산밑 지표에서 용기문, 점열무늬, 손톱무늬 등의 회갈색토기편이 다량 수집되어 199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 이것이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고 있는데 남한지역의 신석기 문화이동 정리를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약수터 및 기타현황

• 문암해안 약수터 : 문암1리 항구 방파제옆 야산 밑에 위치한 샘으로서 이 물을 마시면 장수하며 특히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랜 옛날 신선이 내려와 춤을 추며 놀다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셨다는 전설도 있다.

• 백도 : 일명 '흰섬'이라고 하며 해안에서 약5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항상 갈매기의 똥으로 덮혀 섬 전체가 백색으로 보이며 특히 일출과 일몰때의 섬의 경관은 옛날 임금님이 살던 커다란 성과 같으며 그 우람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은 가히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을 풍긴다.

○ 문암2리

△ 위치 : 동쪽에는 동해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토성면 백촌리, 남쪽으로는 토성면 교암리가 각각 이웃하고 있고, 북쪽에는 문암1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



문암2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1954년 행정구역명 문암2리가 되었다. 마을이 하천 및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섬과 다름없는 마을로서 연꽃형 마을이라고도 불러 왔으며 서쪽으로 큰 하천이 있어 수해 범람시 부락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마을이며, 항상 길러 있다는 뜻에서 길릴 '괘(掛)'자와 바다를 끼고 있다 하여 나루 '진(津)'자를 붙여 속칭 '괘진(掛津)'이라 불러 왔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8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32명, 여자 134명으로 모두 26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분포 현황은 강원도가 68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가 7가구, 전라도가 3가구, 경기도와 충남, 서울이 각각 2가구씩이다.

성씨별 가구현황은 김씨 35가구, 최씨 10가구,朴씨 8가구,李씨 7가구,鄭씨와 朱씨,孫씨, 咸씨, 梁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14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 56가구로 가장 많으며 상업 6가구, 농업 4가구, 기타 18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1.04ha, 밭 3.1ha, 임야 1ha 등이다.

전형적인 어촌으로 사육가축은 소 3두 정도이며, 보유 농기계는 경운기 13대, 트랙터 2대 등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신하고 있고 어구운반에도 사용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은 1톤미만 9척, 1~5톤미만 7척, 5~10톤미만 2척 등이다.

1992년도 위판현황은 광어 1억5백35만원, 명태 1백14만원, 꽁치 1백14만원, 성게 1천만원 등이다.

전기는 1968년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0년 3월에 개통되어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화 보급이 늘어 현재 84대의 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84, 냉장고 84대, 자가용 46대와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 15가구, 불교 2가구 등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7년 7월에 사업비 85만원으로 들어 전평 15평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새마을사업으로는 1974년 4월에 자부담 13만9천만원과 36만원의 지원을 받아 5m의 교량을 가설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1천4백90만원을 들어 마을안길 400m(폭 4m)을 포장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1월3일에 부두 성황당에서 부락 대치성제를 지내는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동리의 모든 질병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정성드려 지내오고 있다.

• 의식절차 : 처음 제례를 지낼 당시는 송아지를 사용하여 의식을 행하였으나 약 10년전부터 소머리와 간단한 음식을 마련하여 제례를 올리고 있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길일세. 어호 어호 어이남차 어호
어제 청춘 오늘백발 저승길이 편발이나 어호 어호 어이남차 어호
일가친척 멀다해도 이길을 누가 대신가라 한번가면 못오는길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눈에 김 낼때 부르던 노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실워마라
일락서단에 해는 지고 월출 동쪽에서 달 밝아온다
어널넬 상사도어야.

△ 마을 명승고적 현황

• 놀파대 : 토성면과 경계되는 문암2리의 동북쪽 해상 위에 기출한 병풍암석으로 약 500척의 천연방파제가 준마(駿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옛날 이곳에 구축하였던 누대의 행적이 폐허가 되어 있었으나 1959년에 지역 주민의 예향 열성으로 이곳에 어항의 기초 축항을 하

여 장차 명승지를 겸한 어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 죽왕면 주민 미거주 마을유래

○ 마좌리(麻佐里)

· 마을 뒤 마산에 위치하여 '마좌리'라 부른다.

이 마을은 1983년 10월 5일 ○○부대 주둔으로 19가구에 남자 43명, 여자 38명 등 모두 81명이 집단 이주한 부락으로 현재 민간인이 살지 않는 마을이다.

VI. 토성면 연혁과 리별현황

1. 토성면 연혁과 리별현황

1910년 간성읍 토성면에서 1919년 양양군에 편입된 후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북괴치하에 넘어갔다.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직법에 따라 양양군에 행정권이 인수되었다가, 1963년 법률제1178호에 의거 고성군에 편입되었다.

1973년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었다.

총면적 120.46㎢에 16개 법정리.

33개 행정리에 130개 새마을반을 두고 있는 토성면은 1991년 세계잼베리아영대회를 신평리(新坪里)에서 개최함에 따라 대대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세계 속의 한국을 부각시키는 약속의 땅으로 각광 받고 있다.



토성면사무소 전경

역대 면장 명 단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	한 치 용	(일제시대)		
2	김 용 집	(")		
3	김 규 병	(")		
4	趙炳爽			
5	尹泰炳			
6	朴周夏			
7	全寅鶴			
8	金正均			
9	韓瑞東			
10	尹富源	1963. 1. 1	1963. 2.23	
11	洪正基	1963. 2.24	1963. 9. 5	
12	朴周夏	1963. 9. 6	1963. 7. 3	
13	金正均	1969. 7. 4	1975. 5.31	

대 수	성 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비 고
14	南正鉉	1975. 6. 1	1980. 3.24	
15	李鎮健	1980. 3.25	1981.12.20	
16	咸正根	1981.12.21	1982.10. 6	
17	崔光允	1982.10. 7	1984.11. 9	
18	南正鉉	1984.11.10	1987. 1.20	
19	朴容來	1987. 1.21	1991. 7.13	
20	金光在	1991. 7.14	1995. 3.18	
21	李喆均	1995. 3.19	1995.12. 8	
22	咸鍾利	1995.12. 9	현 재	

토성면 마을 명칭 변천표

읍 면 별		리 명
1914년 까지	현재 및 8.15해방시	
土城面		乾津(天津), 上土城, 下土城, 院堡, 東老洞, 仁角, 元岩, 獐川, 沙也只津(沙津), 廣浦, 沙也只(沙村), 清澗, 栢村, 杏桃園, 新堡, 新坪, 陽岩, 長興, 星川, 橋岩, 錦花亭, 豐谷, 鳳峴, 廣浦(枯栢津), 我也津(龜岩里), 鶴也洞(26)
	土城面	天津, 清澗, 我也津, 橋岩, 栢村, 雲峰, 鶴也, 桃院, 城堡, 龍村, 新坪, 仁興, 星川, 元岩, 鳳浦, 沙津, 章川 (18) 天津1.2, 清澗, 我也津1~6, 錦花亭, 橋岩1.2, 栢村, 雲峰,
	土城面	鶴也1.2, 桃院1.2.3, 城堡1.2, 龍村1.2, 龍岩1.2, 新坪1.2, 仁興1.2.3, 星川, 元岩, 鳳浦 (33)

◆ 33개 행정리별 현황 ◆

◎ 천진리(天津里)

△ 위치 : 동쪽은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신령1리, 남쪽은 봉포리, 북쪽은 청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당초에는 마을의 여삼평(汝三坪) 들관에서 거주했는데 바람이 세고 반농 반어골 목적으로 점차 해변으로 옮겨 현위치에 집단부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전진리(乾津里)로 불렸으나 잦은 천재지변(天災之變)으로 곤경에 처하자 '건(乾)' 자는 마른다는 의미에서 좋지 않으므로 조선 말엽경 천진(天津)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풍림(천진솔밭)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1970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국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쪽은 천진1리, 천진2리로 나누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천진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3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29명, 여자 243명으로 모두 47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12가구, 경기도 9가구, 경상도 6가구, 전라도와 충청도 각각 2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30가구, 이씨가 22가구,朴씨가 16가구,崔씨가 8가구,徐씨 7가구, 손씨 6가구,張씨와 安씨,尹씨,韓씨,洪씨,鄭가 각각 5가구씩,成씨와 康씨가 각각 3가



천진1리 마을전경

구씩,嚴씨와 趙씨,吳씨,黃씨가 각각 2가구씩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32가구, 상업이 26가구, 어업 12가구, 전축업 6가구, 기타 57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7ha, 밭이 13ha이고, 임야가 30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0대, 트랙터 2대, 콤팩트 2대, 이앙기 6대, 곡

물전조기 1대, 기타 1대 등이다.

선박은 1톤~5톤이하 6척등 모두 소형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은 소 48두와 개 29마리를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59년 12월에 개통돼 현재 130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32대, 냉장고 131대, 자가용 10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4월 총공사비 9백만원에 들여 전평 3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1985년도 연안어업으로는 양미리를 연 150,000kg, 잡어 50,000kg을 잡아 가게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천진 포구의 길이는 약40m로 지난 1976년 3월에 축조했다.

종교는 대부분이 기독교 44가구, 불교 2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2년 9월에 천진교량 서쪽 소하천 120m를 정비했으며, 1974년부터 1985년 5월까지 연 1백20만원을 투자, 마을안길 600m를 식멘트 포장했다.

△ **마을신앙** : 토속신앙으로 매년 음력 10월 1일 성황당 밑 매자나무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임당, 매자나무는 숫당이라 부르며 먼저 임당에서 숫새지를 제물로 바친다.

△ 나무등의 전설

• 매자나무 : 먼 옛날 화산이 폭발하여 불이 나서 마을이 폐허가 되어 이를 방지하고 재건하기 위해 염동(鹽)을 두곳에 묻었다고 한다. 염동 하나는 마을 한 복판에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 있는 염동 옆에 매자나무를 심고 마을사람들의 건강과 마을의 재산보호를 위해 제사를 지낸 것을 계기로 매자나무를 소중히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매자나무 수령은 160년가량 됐으며 6.25동란으로 염동이 폐허가 되었다. 염동 동산에 소금을 묻었다는데 몇가마나 넣고 소금 동산을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 속칭이름

- 뱀 골 : 너삼평 좌측골
- 방죽골 : 갯골아래
- 개 골 : 천진초등학교 뒷쪽 골짜기
- 거북바위 : 바닷가쪽 거북이 모양바위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 율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전날 : 부스럼깨물기)
- 영동날 : 일명 바람님 내려오는 날이라 하여 배를 띄우고 정성을 드린다.
- 모내기 후 : 화전놀이 또는 가까운 명소관광
- 팔월 한가위 : 널뛰기, 그네뛰기
- 동짓날 : 팔죽

△ 구전되어 오는 민요

- 장타령

(가사내용) 절로절로 가다가 바늘하나 얻었네.

얻은 바늘하나 필하나 한강서 집어넣어

낚어보니 붕어네 들어보니 잉어네,
 남은 고기 뭇하노 비늘치고 회치고
 고추가루 양념쳐서 북공강으로 들어치니 뚝뚝강으로 나왔네,
 아들형제 딸형제 한서당에 글 가르쳐
 진사 갑자기 들어가네, 언덕 받아 밭일런가
 이부러 어멈 애미 일런가 총각머리 늘어진전 사무관대가 지직이요,
 색시머리 늘어진전 쪽도리 내생이 지직이라,
 총각에 바니는 점바지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네,
 영감은 홀바지 입었는데 안얼어 죽을까봐 걱정이네.

- 벼플가
- 뱃놀이
- 널리리타령

○ 천진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6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95명, 여자 275명으로 모두 570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37가구, 경기도와 경상도 각각 7가구, 전라도와 충청도 각각 4가구씩, 부산과 대구가 각각 1가구 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윤씨가 40가구, 이씨가 29가구, 박씨가 21가구, 최씨가 12가구, 趙씨 6가구, 조씨와 張씨, 尹씨, 咸씨, 康씨, 鄭씨가 각각 5가구씩, 기타 2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상업이 22가구, 농업이 21가구, 어업 12가구, 건축업 3가구, 기타 11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5ha, 밭이 20ha이고, 임야가 4ha 등이며, 농기계보유현황은 경운기 4대, 이앙기 2대, 콤바인 1대, 기타 1대 등이다.

선박은 1톤이상 5톤미만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은 소 12두와 개 17마리 등 비교적 적은 가축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70년 5월에 개통돼 현재 1백54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56대, 냉장고 156대, 자가용 77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2년 3월 총공사비 2백만원에 들여 전평 16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현황으로는 기독교 41가구, 불교 36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5년 3월에 마을안길 180m와 교량을 가설 했으며, 1984년12월 너삼평에 충공사비 7백만원을 들여 소하천 500m를 정비했다. 또한 1985년에 마을안길 180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천2백만원을 들여 청간리 마을안길과 함께 401m를 포장했고, 9월 사업비 1천1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109m와 4.5a콘크리트 포장했다.

1993년 9월 사업비 9백50만원을 들여 하수도 설치 79m, 마을안길 43.2m 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저라 불리우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0월 그믐 오전10시경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행복과 안녕 중어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옛날에는 소를 잡았으나 요즘에는 돼지머리, 주, 과, 포, 시루떡을 준비하여 제물로 쓰며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5일전부터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에는 율농이를 하며 팔월 한가위에는 여인들의 그네뛰기와 줄다리기를 즐겼다.

△ 산, 나무 등의 전설

• 마을 뒷솔밭 :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전 이장복이란 사람이 16세 되던 해에 해마다 계절풍으로 불어오는 심한 바람을 막기 위해 마을 방풍림으로 심은 나무가 지금까지 웅장하게 자라 여름이면 주민들의 휴식처이며 오가는 이들이 쉬어가는 좋은 휴식처가 되었다.

△ 속칭이름

- 뱀골 : 너삼평 좌측 골짜기
- 갯골 : 천진초등학교 뒤 골짜기
- 방축골 : 개골
- 거북바위 : 삼쪽에 일명 바닷가 쪽에 있는 바위
- 너삼평 : 마을위 들관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성님오네 성님오네 불고개서 성님오네
 성님마중 누가가나 반달같은 내가가지
 내가 어제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앞장에서 낚여다가 굵은 고기 구어놓고
 잔고기는 지저놓고 뒷집에서 먹고 다찌
 앞집에가 사그다져 손님상에 다 올라졌네
 이주머니 누가졌네 작년색시 내가졌네
 이주머니 진사람 은을 줄까 돈을 줄까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그렇다.

◎ 청간리(淸澗里)

△ 위치 : 동쪽에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용암 2리, 남쪽에 천진리, 북쪽에 아야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부터 '군선리' 라고 불리어 왔다고 하며



청간리 마을전경

옛 주민들은 현 청간리(淸澗里) 상수도 서쪽 안터평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현재 청간정(淸澗亭)이 있는 산 및 해변에는 옛날 궁장(창고) 및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하며 군부대가 주둔지를 옮긴 후 주민은 안터에서 해변가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하는데 현 마을명은 그이후 청간정 건립과 함께 청간리(淸澗里)라 불리어 왔다고 한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3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08명, 여자 225명으로 모두 43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13가구, 경상도 7가구, 전라도 5가구, 충청도와 서울이 각각 3가구, 경기도 2가구, 기타 3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37가구, 홍씨가 19가구, 박씨가 14가구, 최씨가 13가구, 권씨 13가구, 손씨와張씨,趙씨,鄭씨 각각 5가구, 康씨 4가구, 韓씨와 洪씨, 吳씨가 각각 3가구씩, 기타 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어업이 47가구, 농업이 21가구, 상업 15가구, 축산업 1가구, 기타 5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4ha, 밭이 7ha이고, 임야가 81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4대, 트랙터 3대, 콤팩트 3대, 이앙기 5대, 곡물전조기 2대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7두와 개 18마리를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선박은 1톤이하 5척, 1톤~5톤이하 11척, 21톤이상 1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60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26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31대, 냉장고 130대, 자가용 36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4월 총공사비 2백만원을 들여 전평 15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는 대부분이 불교 28가구, 기독교 1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5년 4월에 마을 한전된 소하천 400m를 지원금 1백만원과 자부담 50만원을 들여 정비했다. 또한 1985년 3월 지원해준 시멘트 500포와 자부담 50만원을 들여 70m를 포장했다.

1993년 7월 사업비 7백50만원을 들여 청간정 하수도 휴관 99m, 마을안길 25m(폭 3m)를 설치 포장했고, 사업비 6천6백만원을 들여 해안도로 273m(폭 5m)를 양회 포장했으며 용벽 254m, 험스 276m 등을 설치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천2백만원을 들여 천진2리 마을안길과 함께 401m를 포장했다.

1995년 4월 사업비 2천9백만원을 들여 청간정 휴게소 보수 및 진입로 배수로 21m를 설치했다.

1996년 8월 사업비 1천7백만원을 들여 휴게소 화장실 1동 (6.1평)을 신축했고, 사업비 5천 2백60만원을 들여 청간항 물량장 1,060㎡를 축조했다.

△ **마을신앙** : 매년 음력 9월 9일 성황당에서 오후 5시와 7시 사이에 성황제를 행한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마을의 질병을 없애고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지내는 의식으로 도가 집을 몇가구 선정하여 그중 제일 연장자인 세대주와 합당한 집을 선정하여 금줄을 쳐우고 성황당 근처에 쌀 3되3홑으로 제수를 담구어 두었다가 제사를 올린다. 끝난 후에는 마을 노인 등을 초청하여 대접을 하고 남은 제물은 각가정에서 나누어 먹는다.

△ 마을 세시풍속

- 징월대보름 : 달맞이, 망우리
- 팔월한가위 : 그네뛰기
- 동짓날 : 팔죽
- 9월 9일(음력) : 차성제(성황제)

△ 산, 나무 등의 전설

• 노적봉 :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간정의 산봉우리에 접하고 있다. 옛날부터 낮카리 쌓아놓은 것과 모양이 같다고 하여 노적봉이라 하였다고 하며 옛날에는 봉우리 뒤에 정자가 있어 노인 및 마을사람들의 놀이터 노릇을 하였다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 자리에서 낚시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 안터 : 청간다라 위
- 뒷골 : 한전뒤 골짜기
- 개안 : 청간리와 천진리 사이의 들판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늙은이 사람은 죽지를 말고
 젊은 애 사람은 늙지를 말고
 어탕어탕 어어아 열씨구나 좋네
 그래도 내사랑 이로구나
 어스럼 달밤에 단둘이 만나서
 귀를 잡고 입맞춤 할 때 못살았나
 애야노아 노야 애야노아 노 어기며차 젊어서 놀잔다.

△ 정자 및 루(樓)의 전설, 명소 현황

• 청간정(淸澗亭) : 관동팔경의 하나로 창건년대나 창건자는 알 수 없으며 서기 1520년(중종 15년) 고성군수 최정(崔情)을 비롯한 역대군수가 중수한 것으로 보아 건립년대는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동해파도가 암석에 부딪혀 흰거품을 남기며 부서져가는 청간정의 광경은 장관이며 관동팔경의 경치중 가장 빼어난 경치라 한다. 1884년 타버린 것을 1928년 면장 김용집(金鎔集)의 반의로 지금의 정자를 재건하였다. 청간정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로 전해지며 정자안의 현판은 1953년 5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쓴 것이다.

1980년 정자 및 주변일대를 보수 정리했으며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방문기념으로 글을 쓰고 기념식수를 했다. 1997년 4월 12일 토성면 성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청간정 일대를 태우고 정자 난간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997년 7월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보수·정비했다.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중층루정(重層樓亭)으로서 높은 석주(石柱)와 초석경 아래층의 기둥으로 삼은 것이 이 정자의 특징이다.

• 관찰사 조석여 불망비(觀察使曹錫與不忘碑) : 청간정 북편에 있는 경승지인 만경대 절벽 아래에 소재한 선정비이다. 만경대 바위암벽에는 조선조 4대 명필로 유명한 봉래 양사언의 친필인 조서제의 ‘만경대(萬頃臺)’ 암각문이 있다. 비좌는 최근에 시멘트로 만들었고 비신의 재질은 현무반암 계통의 암질로 비수는 없다. 전면에는 ‘관찰사조공석여영세불망비(觀察使曹公錫與永世不忘碑)’라 새겨 있고 후면은 연호가 없이 간지로 ‘계묘십월일(癸卯十月日)’이라 명시되어 있어 조선 후기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비신의 규모는 99cm×37cm×12.5cm이다.

• 효녀 김해 김씨 정려각(孝女金海金氏旌闕閣) : 조석여 선정비와 인접해 있는 정려각으로 원형 주초석 위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효행명정(孝行命旌)에 대한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 내용은 “효녀가선대부박귀룡지정부인김해김씨자문 명정 상지감오팔월일 광무사년경자십월일 증수 본군군수이정하 서(孝女嘉善大夫朴貴龍妻貞夫人金海金氏之門命旌上之甲午八月日光武四年庚子十月日重修本郡郡守李鼎夏書)”라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덧붙여 “개축서기임구칠십년칠월이십팔일 육군대령 소주영(改築西紀一九七〇年七月二十八日陸軍大領蘇珠英)”라 되어 있다.

정부인 김씨의 효행사실에 대하여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현판의 간지로 보아 1900년에 증수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국전쟁 이후 1970년에 정려각을 개축하면서 정려현판 역시 다시 제작하여 개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아야진리(我也津里)

△ 위치 : 동쪽에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도원 3리, 남쪽에 청간리, 북쪽에 교암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 조상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을 속칭명을 구암리(龜岩里)로 불려왔는데 아



아야진항포구 전경

야진 등대한 위치한 바위가 거북처럼 생겼다고 하여 거북 '구(龜)'자와 바위 '암(岩)'자를 써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그후에는 예기미로 애칭되고 있다. 마을의 평안과 자손들의 번창함을 빌기 위하여 남쪽마을의 여자의 신을 모신 작은 서낭(암서낭), 북쪽 마을에 있는 남자의 신을 모신 큰 서낭(숫서낭)에서 매년 산신제를 지내는 풍습이 전래되어 오면서 현재의 아야진 5,6리

지역인 여자의 신을 모신 마을을 작은 예기미라 칭하고 남자의 신을 모신 1,2,3,4리 마을을 큰 예기미라 애칭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야진으로 부르게 된 동기는 현재의 아야진 6리 교회로 접하는 아야진에서 반암리로 넘어가는 산(山)형태가 잇기 야(也) 자처럼 생겼다고 하여 우리라는 뜻을 포함, 아야진(我也津)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1955년 7월 1일분할되어 아야진을 1,2,3리로 구분 하였으며, 다시 행정구역 조정으로 1972년 7월 1일부로 1,2,3,4,5,6



아아진리 마을전경

리로 분할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아아진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0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73명, 여자 179명으로 모두 35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3가구, 서울 4가구, 부산 2가구, 경기도와

경상도, 제주도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 27가구, 박씨 9가구, 안씨와鄭씨가 각각 6가구,李씨와崔씨 각각 5가구씩, 손씨와尹씨 각각 4가구씩,咸씨 3가구, 趙씨 2가구, 기타 31가구 등이 살고 있다.

직업별 가구분포현황은 어업 48가구, 상업 16가구, 농업 14가구 기타 24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3ha, 밭이 5ha로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4대, 이앙기 3대 등이 농어업에 이용되고 있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19두와 개 6마리를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선박은 1톤이하 1척, 1톤~5톤이하 11척, 6톤이상 10톤미만 1척, 11톤이상 20톤미만 2척 등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98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01대, 냉장고 102대, 자가용 15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 23가구로 가장 많으며, 불교 19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천6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암거설치 77m, 찰살기 37m를 시행했다.

1996년 6월 사업비 2천1백만원을 들여 해안도로 아스콘덱트우기 6.87a를 시공했다.

△ 마을신앙 : 약 150여년전부터 유래 되었다고 하는 풍어제를 음력 10월 초순 큰애기미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어업을 생계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어촌 마을이므로 항상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풍어와 해난, 해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무사고를 비는 행사로 소머리 외에 푸짐한 젓상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3년마다 풍어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5년에 한번씩 지내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 달맞이, 망월
- 팔월 한가위 : 그네뛰기, 널뛰기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거북바위 : 아아진 등대에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었는데 현재 방파제를 연장해 만들어 이 바위가 없어졌다.

• 호랑이굴 바위 : 먼 옛날에 호랑이가 나타나 놀다 갔다고 해서 바위이름을 호랑굴 바위라 칭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호랑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보존되어 있다.

• 이근철옹 영세불망비(李根喆翁永世不忘碑) : 7면국도를 통해 트성면에서 간성쪽으로 올라가다 아아진항 입구와 아아진 해수욕장 입구가 만나는 지점, 머스 정류장의 위쪽 밭에 위치한다. 비는 옥개석이 없는 하원형의 형태로 화강암류의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각자의 바모가 심하다. 전면에는 "가의대부이근철영세불망비(嘉義大夫李根喆永世不忘碑)"라 각자되어 있고 전면 우측에 "백가활환 무○제민(百家活換務○齊民)", 전면 좌측에 "일편어석 천재감인(一片語石千載感人)"이라 되어 있다. 건립 연대가 명문되어 있는 뒷면은 바모가 더욱 심하여 "○○○(十○)이년(二年)○삼십(三十)"만을 관독하였다.

흥년으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지역 백성을 위해 나라의 구호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 동네 주민들이 고마운 뜻으로 이곳에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늘던 달아 그 달안에

뭐 있드니 계수나무가 있구나

계수나무 아치기는 12아치 일사귀는 300일사귀 옥도끼로

찍어서 금도끼로 다듬어서 적의 사관 집을 지어서 그 집 짓고

3년만에 아들 낳을때 바랬더니 딸을 낳았구나

○ 아아진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0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73명, 여자 179명으로 모두 35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6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 5가구, 경기도와 전라도, 충청도, 서울시 4가구, 제주도 각각 2가구씩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 26가구,李씨 19가구,朴씨 13가구,崔씨 8가구,洪씨 5가구,全씨 4가구,康씨와鄭씨 각각 3가구씩,咸씨와趙씨 각각 2가구씩,張씨와安씨,嚴씨,吳씨,黃씨

각각 1가구씩, 기타 2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 분포현황은 어업 32가구, 농업 31가구, 상업 6가구, 건축업 2가구, 기타 40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8ha, 밭이 9ha로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0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6대, 곡물건조기 2대, 기타 2대 등이 농어업에 이용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개 14마리를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선박은 1톤이하 2척, 1톤~5톤이하 7척, 6톤이상 10톤미만 1척, 21톤이상 1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09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07대, 냉장고 105대, 자가용 22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3월 지원금 47만원과 자부담 81만원을 합한 1백28만원을 들여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36가구, 기독교 26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2년 10월 사업비 7백50만원을 들여 하수도 흘관 105m 매설, 마을길 156m를 포장했다. 1993년 9월 사업비 1천2백만원의 들여 마을안길 포장 7.58a, 흘관 15m를 설치했다.

○ 아야진3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3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30명, 여자 259명으로 모두 48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20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 5가구, 서울시 4가구, 충청도 3가구, 전라도 2가구, 경기도와 제주도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 48가구, 이씨 9가구, 박씨 14가구,鄭씨 8가구,尹씨 6가구, 손씨와 안씨, 趙씨 각각 5가구씩, 康씨 4가구, 韓씨와 吳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2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 분포현황은 어업 37가구, 농업 22가구, 상업 6가구, 기타 69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6ha, 밭이 5ha로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3대, 콤바인 1가구, 이앙기 2가구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소 4마리와 개 18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아야진3리 마을전경

선박은 1톤~5톤이하 7척, 6톤에서 10톤이하 3척, 11톤에서 20톤이하 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진기는 197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2년 3월에 개통돼 현재 89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33대, 냉장고 131대, 자가용 33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

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으로는 불교 28가구, 기독교 16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 속칭이름

- 봉이재 : 아야진1리 들대민
- 이문개 : 도원3리 앞길
- 넘너곶 : 마을 위 골짜기
- 쪽다리 : 마을 앞 다리

○ 아야진4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9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55명, 여자 163명으로 모두 318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6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라도 3가구, 경상도 2가구, 서울시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숲씨 27가구,李씨 13가구,朴씨와 權씨 각각 7가구, 金씨와 趙씨 각각 3가구씩, 張씨와 尹씨, 康씨, 鄭씨가 각각 2가구씩, 기타 24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 분포현황은 어업 52가구, 농업 9가구, 상업 12가구, 기타 19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4ha, 밭이 5ha로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3대, 콤팩트 1가구, 이앙기 2가구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소 4마리와 개 18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선박은 1톤이하 1척, 1톤~5톤이하 6척, 6톤~10톤 3척, 21톤 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안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89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87대, 냉장고 89대, 자가용 32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3월 지원금 47만원과 자부담 81만원을 합한 1백28만원을 들여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는 불교 23가구, 기독교 12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2년 10월 사업비 2백6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91m(폭 3m)를 포장했다.

1994년 5월 사업비 1억3천2백만원을 들여 해안도로 260m개설, 옹벽 260m설치, 도로및 주차장 47,02a를 포장했고, 12월 사업비 4천6백만원을 들여 해안도로 243m 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 430m, 옹벽 54m, L형측구옹벽 125m를 계속했다.

○ 아야진5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3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27명, 여자 233명으로 모두 460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27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 5가구, 전라도 2가구, 서울시와 인천시 각각 1가구씩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 40가구, 이씨 19가구, 박씨 15가구, 최씨 11가구,鄭씨 7가구, 韓씨 5가구, 康씨 4가구, 안씨와尹씨, 黃씨가 각각 2가구, 기타 30가구등 이다.

직업별 가구 분포현황은 어업 68가구, 농업 6가구, 상업 11가구, 전속업 1가구, 기타 5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7ha, 밭이 5ha로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5대, 이앙기 3대, 콤바인 2대, 트랙터와 곡물건조기가 각각 1대 등이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개 15마리와 산양 4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선박은 1톤이하 7척, 1톤—5톤이하 9척, 6톤—10톤이하 6척, 11톤—20톤이하 3척, 21톤이상 2척 등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34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31대, 냉장고 131대, 자가용 33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5월 25일 군지원금 39만원과 마을사람들의 모금액 98만원을 합한 1백 37만원을 들을 들여 전평 14평 규모로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23가구, 기독교 12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5년 10월 사업비 7천2백80만원을 들여 항포구주차장 46.18a를 조성했다.

○ 아아진6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3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36명, 여자 255명으로 모두 491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30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 3가구, 경기도와 전라도, 충청도 각각 1가구씩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숲씨 39가구, 이씨 24가구, 박씨 12가구, 최씨 8가구,鄭씨 7가구,尹씨와 康씨가 각각 4가구씩,安씨와 韓씨, 吳씨, 黃씨가 각각 3가구씩, 咸씨와 趙씨가 각각 2가구씩, 張씨 1가구, 기타 2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분포현황은 어업 86가구, 농업 5가구, 상업 8가구, 전축업 1가구, 기타 36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8ha, 밭이 7ha로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7대,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 이앙기 4대, 곡물건조기 1대 등이 있다.

가축사육현황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개 10마리를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선박은 1톤~5톤이하 16척, 6톤~10톤이하 6척, 11톤~20톤이하 6척, 21톤이상 1척 등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59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29대, 냉장고 127대, 자가용 28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65년 4월에 전평 10평 규모로 지었으나 인구증가 등으로 마을이 커짐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회관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40가구가 가장 많고, 기독교 9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9백만원을 들여 도원3리와 함께 하수도 53m, 웅벽 26m, 마을 안길 포장 240m가 시행됐고, 9월 사업비 1천9백만원을 들여 안길포장 2.4a, 휴관 등을 설치했다.

1995년 10월 사업비 7천1백만원을 들여 해안도로진입로 도로개설 260m와 옹벽, 펜스가 함께 설치됐고, 사업비 9천1백만원을 들여 진입로 650m에 대한 아스콘포설작업이 시공됐다.

△ 산, 나무 등의 전설

• **작살계** : 현재 아야진6리 어판장에서 조선소에 이르는 지역으로 옛날 이곳에 자갈과 모래가 많았으며 한적하고 위험하다고 하여 '작살계' 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부터 작살계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청간리와 연결되는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여름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 금화정리(錦花亭里)

△ **마을유래** : 마을안 정자가 있었고, 정자주변에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하여 금화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아야진7리 였으나 1997년 8월19일 금화정리로 개칭되었다.



금화정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59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98명, 여자 96명으로 모두 194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9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라도 8가구, 충청도 6가구, 경기도와 서울시 각각 5가구씩, 경상도 4가구, 대구시와 인천시 각각 1가구 등 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 12가구, 이

씨 10가구, 박씨 3가구, 최씨와 조씨,姜씨,鄭씨가 각각 2가구씩,安씨와尹씨,韓씨,洪씨,嚴씨,趙씨,吳씨,黃씨가 각각1가구씩이며 기타 18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 분포현황은 농업 25가구, 상업 3가구, 기타 31가구 등 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5ha, 밭이 13ha로 임야가 적은 편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4대, 콤바인 6대, 이앙기 5대, 트랙터 2대 등이 있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44마리, 돼지 140마리, 개 18마리 등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8년 2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59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91대, 냉장고 59대, 자가용 27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3월에 지원금 14만5천원과 주민부담 44만9천원을 합한 총공사비 59만

4천원을 들여 전평 16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19가구, 천주교 14가구, 기독교 7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4년 3월에 마을앞 소하천 200m를 정비했다.

1993년 6월 사업비 1억4천5백만원을 들여 도원~아야진간 도로 1km(폭 8m)를 확·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단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6일 오전11시에 제당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의 재앙을 물리쳐 줄것과 마을 주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제물은 돼지머리, 시루떡 3되3홉, 두부 3되3홉, 어물, 과일, 포, 술, 소주를 쓰며 제관은 생기가 맞는 사람을 선정하고 일반제사와 같은 절차인데 끝으로 소지를 올린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이산명일 밝은 달은 때구름 속에서

놀고 놀고야 놀고는

한풀 안에서 놀잔다.

허랑허랑 허어야 어아디아

내사랑만 가잔다.

◎ 교암리(橋岩里)

△ **위치** : 동쪽은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 백촌리, 남쪽에는 아야진리, 북쪽에는 문암리가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에는 천학정(天鶴亭)산(성황산) 기슭으로 도로가 놓여 있었으며 산길 중간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어 동행함에 따라 속칭 다리바위로 불렀는데 1972년 7월 1일 교암리(橋岩里)가 교암1,2리 분할 되었다.

○ 교암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9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44명, 여자 141명으로 모두 285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0가구, 경상도 4가구, 충청도 3가구, 인천 2가구, 광주시와 경기도, 전라도가 각각 1가구 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26가구,朴씨가 13가구,李씨가 7가구, 崔씨와 韓씨, 鄭씨가 각각 5가구씩, 趙씨와 張씨 각각 4가구씩, 安씨와 咸씨, 康씨 각각 2가구, 기타 1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이 14가구, 어업이 11가구, 상업 12가구, 기타 55가구 등 반농반어



교암1리 마을전경

의 가구가 많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5ha, 밭이 4ha로 비교적 경지가 적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8대, 트랙터 1대, 콤바인 2대, 이앙기 4대 등이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22마리, 개 22마리 등의 가축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선박 보유현황으로는 1톤미만 8척.

1톤이상 5톤이하가 3척으로 모두 소형어선으로 영세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92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91대, 냉장고 90대, 자가용 27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 22가구, 불교 21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마을안길 150m를 300만원을 들여 시멘트 포장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4천1백5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00m(폭 5m)포장, 옹벽 300m(높이 2.6m)를 설치했다.

1995년 4월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천학정 진입로보차도블럭 442.8㎡와 암거박스 84m를 설치했다.

1995년 9월 사업비 1억2천3백만원에 들여 교암~문암간 도로를 개설했다.

1995년 9월 사업비 1억3천3백만원에 들여 교암항과 주차장 13.72a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이 음력 1월 7일 성황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제관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부정이 없어야 하며 제물로는 소의 사족, 메, 주, 과, 포를 쓰며 리장이 제일 먼저 술을 붓고 술잔을 드리며 소지는 마을 대표로 제관이 올린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설, 술놀이
- 이월초하루 : 명등날이라 하여 풍어를 기원함
- 오월단오 : 널뛰기, 그네뛰기
- 유월 : 유두놀이

△ 축장이름

- 작 골 : 철길 너머에 있는 골짜기
- 복수골 : 학교 밤나무 열 골짜기
- 뽕바우 : 동광농고 뒤에 있는 바위
- 뽕당달 : 마을 뒤
- 재바우 : 군부대 너머에 있는 바위
- 박상골 : 마을위 골짜기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가자가자 어서가자

이수군내 백노가자

백노함께 함께가자 서방낭군

번번 자래딩에 저달을 실어

우리 고향을 함께가자

얼씨구나 좋구나 철씨구 아니아니 놀지는 뭘하나.

○ 교암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7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09명, 여자 112명으로 모두 221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67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와 전라도 각각 2가구씩, 경상도와 서울시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 23가구,崔씨 9가구,李씨 7가구,朴씨 5가구,尹씨와 韓씨,鄭씨가 각각 3가구씩,張씨와 安씨,洪씨,咸씨,姜씨가 각각 2가구씩, 吳씨와 黃씨 각각 1가구씩, 기타 8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분포현황은 어업 23가구, 농업 20가구, 상업 4가구, 기타 26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 19ha, 밭 14ha, 일야 5.4ha로 임야가 적은 편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3대, 트랙터 2대, 콤팩트 2대, 이앙기 5대, 곡물전조기 2대, 기타 1대 등이다.

선박은 1톤미만 7척, 1톤~5톤이하 10척, 6톤~10톤이하 1척 등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9마리, 개 11마리 등을 각가정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73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72대, 냉장고 71대, 자가용 20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

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3월에 지원금 14만5천원과 주민부담 44만9천원을 합한 총공사비 59만 4천원을 들여 전평 16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17가구, 기독교 13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4년 3월에 마을안길 180m를 총공사비 2백84만2천원을 들여 시멘트로 포장했다, 교암포구의 길이는 41m로 총공사비 670만원을 들여 축조했다.

1993년 9월 사업비 4백10만원을 들여 마을길 4.5a를 콘크리트 포장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 율놀이, 달맞이
- 모내기후 : 화전놀이

△ 마을 명소현황

• 천학정(天鶴亭) : 천학정은 토성면과 죽왕면을 경계로 흐르는 문안천을 지나 1km를 가면 교암리 마을 앞에 송림이 무거진 조그만 동산에 건립되었다.

이 동산은 동해의 신비를 간직한 기암괴석의狹이지른 듯한 해안 절벽에 위치해 있으며, 더욱이 남북으로 청간정과 능파대가 위치하여 정자의 풍광을 돋우고 있다. 천학정은 1931년 지방 유지 한치웅·최순문·김성운 등이 발의하여 전면 2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단층으로 건립하였다. 정자의 전면에 “천학정” 현판이 게판되어 있으며, 정자 내에는 “천학정기(天鶴亭記)”와 그 좌측으로 “천학정” 시판이 게판되어 있다.

【참고문헌】 고성군, 1985, <고성군지>; 고성군·강릉대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면장 한치웅 영서 기념비(面長韓致龍永世記念碑) : 토성면 교암리에 있는 ‘천학정(天鶴亭)’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편 공터에 자리하고 있다. 비는 자연 암괴의 평편한 윗면에 흙을 파서 세웠다.

비 전면에는 “면장한공치룡영세기념비”로 각자되었으며, 그 후면에는 “단기사오삼년 경신팔월일교암송계”라 음기하여 1920년에 이 지역 계원들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한치룡의 호는 오봉으로 현존하는 ‘천학정’에 대한 ‘천학정기’를 쓰신 분이다. 비는 화강암재를 사용하였으며 비고 110cm, 폭 41cm, 두께 18.5cm 규모로 갖은 없는 형태이다. 기념비의 전면에는 “면장한공치룡영세기념비(面長韓公致龍永世記念碑)”로 각자되어 있으며, 그 후면에는 1920년에 교암송계의 계원들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백촌리(柏村里)

△ 위치 : 동쪽에 교암1리, 서쪽에 도원2리, 남쪽에 아야진7리, 북쪽에 운봉리에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고려말 김씨 조상이 처음 들어와 마을을 형성 할 당시 마을어귀까지 바닷물이 차서 해안과 연결된채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양이라 하여 해상리(海上里)라 불리워 오다 조선 조 초기때 잣나무가 많이 있다하여 백촌리(柏村里)로 개칭, 현재까지 불려오고 있으며, 마을 앞산 골짜기에 잣나무 숲이 남아 있다하여 아직도 잣골이라는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백촌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0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78명, 여자 178명으로 모두 35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94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와 충청도, 서울시 각각 2가구씩, 그리고 경기도가 1가구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윤씨가 60가구로 가장 많으며,李씨와崔씨가 각각 8가

구씩, 조씨와 홍씨가 각각 4가구씩, 안씨 3가구, 황씨 2가구,朴씨와趙씨 각각 1가구, 기타 10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76가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상업이 4가구, 기타 2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95ha, 밭이 20ha로 비교적 많은 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59대, 트랙터 12대, 콤바인 11대, 이앙기 19대, 곡물전조기 7대, 기타 4대 등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136마리, 돼지 640마리, 개 52마리 등 집단 축사시설을 가지고 있다.

전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01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97대, 냉장고 95대, 자가용 27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3월에 총공사비 4백만원을 들여 전평 17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32가구로 가장 많고, 기독교 4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6년 4월 지원금 27만9천원, 자부담 37만원을 들여 마을위에 10m 교량을 가설했으며, 1981년 9월 교양 7호선 국도에서 백촌 마을끝 160m를 지원금 1백 88만4천원과 주민부담 1백88만4천원을 합한 총공사비 3백76만8천원을 들여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3천8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용관 300m, 암거 72m를 설치했다.

1996년 5월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들여 아스콘포장 252m과 시멘트포장 120m를 시공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를 음력 1월 15일 성황산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각종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일년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기원해 온 의식으로 마을 리장이 제주가 되어 행사를 주관하며 아현과 종현은 리장이 하고 초현은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되어 일반 제사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제물은 큰 가족은 사용하지 않고 닭과 채물 만을 사용한다. 제관은 생기가 맞는 사람으로 지정되는데 제사 7일전부터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방문을 금지하여야 하며 특히 성황당의 나무나 낙엽은 땀값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초하루 : 제사, 세배, 연날리기
- 정월 보름 : 성황제, 마을 농악놀이, 연날리기, 췌불놀이, 팽이치기
- 팔월 보름 : 제사, 율놀이
- 동짓날 : 팔죽

△ 나무 등의 전설

• 팽두나무 : 조선시대 채적과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마을에 병영을 설치하고 주변을 성으로 쌓아 지방의 군량미를 공납 받아 보관하고 무기를 보관하던 곳으로 팽두나무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주변 밭에서 근래까지도 기와 등 옛 성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 술모정거리 : 150여년전 조선시대 경주 김씨 집안에서 과거에 합격, 진사벼슬을 얻게되어 이를 경축로써 마을 입구에 술문을 만들고 두달간 진마을 잔치를 하였다 하며 마을 입구를 그 당시부터 술모정거리라고 (현 농협지소) 칭한다.

• 성문(석문石門)계 : 마을 형성당시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도적과 외침을 막기 위하여 마을 주변에 성을 쌓아 방비를 하였다고 하여 지금도 그 자리(栢村마을 끝어귀)를 성문(石門)계라 칭하고 있다.

△ 속칭이름

- 무레이골 : 마을 위 학야티가는 쪽 골짜기
- 뱀장골 : 마을 앞 골짜기
- 잣골 : 마을 아래 교암사이 골짜기

- **넙바위** : 동광농고 옆 백촌뒤
- **밥나무골** : 마을위, 옛날 집단이주 하기전에 거주하던 마을
- **자사성지(城址)** : 동문지(東門址)와 서문지(西門址)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주둔군부대의 방호(교통호)시설로 훼손되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뱃놀이

〈가사내용〉 에야노야 노야 에야노야 노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뱃놀이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강릉에 정포대로 가잔다.

② 조선아리랑

〈가사내용〉 여보게 김도령이 일월을 날게

시살문 동천에 해들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문봉리(雲峰里)

△ **위치** : 동쪽에 아촌리가 있으며, 서쪽으로 운봉리, 남쪽에 도원2리, 북쪽에 삼포리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마을의 속칭명은 토성리로 운봉 토성을 현재 청재등이라 하나 이곳이 바로 토성이라고 하며 그 앞을 쪽지 고개라 부르고 있으나 옛이름은 죽지 고개라 했다고 한다. 고개의 이름중 운봉을 상토성(上土城)이라 부르고 죽왕면 아촌을 아래토성(下土城)이라 했으며, 마을



문봉리 마을전경

곳곳의 명칭으로 뒷말은 토성의 뒤에 있는 곳이라고 하여 뒷말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남운경이란 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시초) 그 연적이 약500년이 되고 최초에는 권씨, 둘째는李씨가 거주했었다. 그 후에는 현재李씨만이 14가구가 살고 있다. 그리고 동구밖에는 동그란 우물이 있었다고 하며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43

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79명, 여자 55명으로 모두 134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0가구로 가장 많고, 경상도와 전라도, 서울시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윤씨가 15가구로 가장 많으며, 이씨 5가구, 황씨 4가구, 최씨 3가구, 박씨와張씨, 최씨가 각각 2가구씩,尹씨와趙씨,鄭씨 각각 1가구씩, 기타 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36가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타 7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52ha, 밭이 17ha로 비교적 많은 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6대, 트랙터 4대, 콤팩트 5대, 이앙기 16대, 곡물건조기 3대, 기타 3대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117마리, 돼지 250마리, 개 71마리, 산양 14마리, 사슴 1마리 등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6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43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43대, 냉장고 41대, 자가용 12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59년 4월에 총공사비 5만7천원을 들여 전쟁 12평 규모로 착공 건축하였으나 현재 마을회관은 폐쇄됐다.

종교현황은 기독교 16가구, 불교 8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 사업실적으로는 지원금 1억5백만원과 자부담 1천5백만원을 들여 울봉교 120m를 가설했으며 1984년 4월부터 연차사업으로 마을안길을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천5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651m(폭 3m)를 포장했다.

1995년 3월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마을길 340m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를 매년 음력 1월 15일 새벽 4시경 마을 앞산에서 행하고 있다. 먼 옛날 약500년전 부터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 마을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풍년을 비는 의식으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나 옛날에는 마을에 3개의 우물이 있어 제사때는 반드시 그물을 떠서 메를 지었다고 한다. 제관은 생기에 맞는 사람을 지정하여 일반 제사절차와 같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웃어른께 세배
- 정월대보름 : 연날리기, 윷놀이, 망우리돌리기, 팽이치기
- 모내기후 : 화전놀이
- 팔월한가위 : 그네뛰기, 널뛰기
- 동짓날 : 관죽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대한민국 팔도강산이 생겼네, 예혜루 달구야

백두산이 되었구나 예혜루 달구야

금강산 낙력이 짙 떨어지 향로봉이 생겼구나 예혜루 달구야

뫼고깬이 되었구나 예혜루 달구야

이산 쓰고 3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요 딸을 낳으면 열녀로다.

예혜루 달구야.

닭을 낳으면 봉황이요 예혜루 달구야

개를 낳으면 참말개요 예혜루 달구야

이산 쓴지 3년만에 팔도 거부로다 예혜루 달구야.

△ 산, 나무 등의 전설

• 운봉산(雲峰山) : 옛날에 아주 부지런한 장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장사는 지금의 금강산을 이룩한 장사와 집짓기 시험을 하였다고 한다. 이 부지런한 장사의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무렵 금강산 장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나는 벌써 완성했노라고 소문을 내었다 한다. 그러자 이 부지런하고 순진한 장사는 원통함을 참지 못해 3일 동안 울면서 통곡을 하며 주먹으로 이 돌성을 쳐서 부수진 돌이 사방으로 굴러 내려 현재 운봉산의 기둥바위가 8각형의 모양으로 즐비하게 늘어진 것이라 하는데 그 형상은 가히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병충바위와 거북바위 등 신비의 바위가 있고 이 때의 돌성 높이를 구름 위까지 올려 쌓았다고 하여 구름 '운(雲)' 자와 봉우리 '봉(峰)' 자를 따서 운봉산(雲峰山)이라 부르고 있다. 이 산은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표적이 되고 있는데 또한 옛날에 이 산 상봉엔 호수가 있었다는 전설도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마나리

〈가사내용〉 오늘해도 거의지니 골골아다 그늘일세

산이 높아 그늘인가 해가 저서 그늘일세

삼삼하고 남남하니 오돌때기나 불러보세

② 오돌때기 : '오독도 대기 춘합월'에 로 시작된다.

△ 속칭이름

- 떡바우 : 바위 위에 바위라 하여 덩바위를 이렇게 일컫음
- 굴 슬 : 수동굴 넘어가는 곳
- 뒀지바우 : 학야 가는 길목
- 수동굴

• 봉화터 : 현재 봉재라 불리우고 있으나 이곳은 옛날의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전해 오는 전설로는 봉화대의 물이 흘러 봉재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부터는 봉화터란 말이 없으나 리바위라 불리우는 괴상한 바위가 있어 동쪽으로는 자유로이 오를 수가 있어 이곳의 안식처가 되었다. 즉왕면 봉수에서 봉화가 시작되면 다음이 이곳이고 이곳에서는 양양군 국수봉에 연락했다고 전해진다.

◎ 학야리(鶴也里)

△ 위치 : 동쪽에 백촌리와 문봉리가 접해 있으며, 서쪽과 남쪽에는 도원리, 북쪽에 윤봉산이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에는 헛골과 뒷골이 한 마을로 합하여 불리 오던중 1940년대 일제시대 때 학야(鶴也)로 명명되면서 학야1리는 뒷골과 용기점만이 한부락으로, 학야2리는 헛골이 한부락으로 독립되었으며 뒷골의 명칭은 헛골 뒤에 있다고 하여 뒷골이라 하였으며 용기점말은 100여년전부터 鄭씨 집안이 이주 정착하면서 용기를 만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용기점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용기' 자를 빼고 점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1반은 뒷골이며, 2반은 용기점말이라고 한다.

○ 학야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85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28명, 여자 135명으로 모두 26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9가구, 경상도 17가구, 충청도 7가구, 경기도와 전라도 각각 6가구, 기타 10가구 등이다.



학야1리 마을전경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20가구, 홍씨가 15가구, 박씨와崔씨가 각각 5가구씩, 鄭씨 4가구, 손씨와張씨, 康씨가 각각 3가구씩, 安씨와尹씨, 洪씨, 咸씨, 吳씨, 許씨가 각각 1가구씩이며 기타 2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30가구이며 상업 4가구, 기타 5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1ha, 밭이 14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5대, 트랙터 2대, 콤바인 6대, 이앙기 8대, 곡물 건조기 5대, 기타 1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86마리, 닭 50마리, 개 35마리, 산양 11마리, 토끼 8마리 등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기는 1972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85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84대, 냉장고 82대, 자가용 46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4월에 지원금 40만원과 주민부담 1백1만원을 합한 총공사비 1백41만원을 들여 건평 17평 규모의 아담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가 5가구, 불교가 4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25동, 군인아파트 40동, 연립주택 20동 등이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3년 3월에 운봉과 학야간에 50m의 교량을 가설했으며, 1975년 7월 지원금 50만원과 주민부담 14만5천원을 합한 64만5천원을 들여 마을안길 85m를 시멘트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3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379m를 포장했고, 9월 사업비 1천2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115m설치, 포장 2.6a, 맨홀과 출관을 설치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2천9백만원을 들여 야면석부침장기 320m를 시공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길일을 택해 마을 뒷산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빌며 재난을 막아 줄 것과 풍년을 이루어 달라고 기원하는 의식으로 주,과,포 및 가축을 잡아 제물로 쓰며 마을 주민 중에 일진과 사주팔자가 맞는 사람을 제관으로 선별하는데 제례시간은 낮 12경으로 마을주민 각자가 소지를 제관이 일괄하여 한집씩 올려주고 소지 태우기가 끝나면 재배를 하고 제사를 마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세배
- 정월대보름 : 윷놀이, 연날리기, 망월놀이
- 정월대보름전야 : 부스럼 깨물기
- 음력 오월단오 : 이웃끼리 나들이 감
- 팔월한가위 : 널뛰기, 그네뛰기
- 영동날 : 팔밥 지어먹고 잘 피기를 기원함
- 동짓날 : 팔죽먹기

△ 속칭이름

- 팥알골 : 학야1리에서 학야2리 넘어가는 곳
- 송하수
- 동산팔재 : 학야1리에서 학야2리 넘어가는 곳
- 민소골 : 마을앞 골짜기
- 후자골 : 마을앞 골짜기
- 떡바우골 : 운봉산 위 골짜기
- 전팔알 벼당 : 마을아래 벼판
- 둔봉 : 학교 밑
- 미루재 : 쌍다리
- 박골
- 뒤장골 : 북쪽 골짜기



△ 산, 바위 등의 전설

• 운봉산(雲峰山) : 명산으로 일컬어 상단 부근에 표를 쓰지 못하게 하여 현재 이곳에는 표가 하나도 없다고 하며 먼 옛날 조선시대때 조선사람이 3일간 먹고도 남은 보물이 묻혀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기차바위 : 마을 뒤 운봉산 밑에 위치한 바위로 기차가 집을 싣고 학야리로 들어오는 형상이라고 하여 이것을 보고 학야리가 대성하리라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학야리에 ○○부대가 들어와서 큰동네가 생기고 모든 생활이 편리해져 이로 인해 학야리 기차바위 전설이 성취되었다고 마을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노새 노새 젊어서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단도차면 기우나니 열세구 질씩구 차차차 지화자 줄구나 차차차 만화

방장 만화방장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① 도라지 타령

② 미나리

③ 오동메기

④ 군밤타령

○ 학야2리

△ 위치 : 학야2리는 동쪽에 운봉리와 백촌리를 접해 있으며, 서쪽에 민제군, 남쪽에 도원리가 각각 위치하며, 북쪽에 운봉산이 있다.



학야2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햇골이란 속칭명을 지니고 있는 마을로 동방골에 산소가 있었는데 묘의 후손들의 집에 시주를 갓던 도승이 산소의 후손들에게 냉대를 받고 이에 반감을 갖게되어 동방골에 있는 바위를 엮어 놓으니 그 속에서 학 2마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학골이라고 불려오던중 후일 발음이 변하여 햇골이 되었다고 한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7

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7명, 여자 25명으로 모두 5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 15가구로 대부분이며, 서울시와 대구시가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5가구, 허씨가 4가구, 배씨 4가구,尹씨 1가구, 윤태씨 1가구, 河씨 3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15가구로 대부분이며, 기타 2가구가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0ha, 밭이 7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2대, 트랙터 2대, 콤팩트 2대, 이앙기 5대, 곡물 건조기 1대, 기타 3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16마리, 개 15마리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11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7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7대, 냉장고 17대, 자가용 3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도에 13평 규모의 벽돌조스라브 건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가 4가구, 불교가 2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3년 3월에 마을안에 8m되는 교량을 가설했으며, 1972년 2월에 소하천 150m를 정비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00m(폭 4m)를 포장했다.

1992년 4월 사업비 5천1백만원을 들여 교량가설 25m, 소하천정비 136m, 하수도설치 139m, 마을길 160m를 포장했다.

1994년 1월 사업비 4천2백8십만원을 들여 학야~도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455m(폭

8.5m), 포장 455m(폭 6.5m)를 시행했다.

1996년 9월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200m를 포장했다.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 밖임새.

간다간다 나는 간다 이제가면 언제오나 내년 춘삼월에 올까맘까
어허남창 어허야

실악산 낙력이 죽 떨어졌네 예헤루 다투야

이집 짓고 3년만에 아들을 나면 효자나고 딸을 나면 열녀를 낳고
예헤루 다투야

부도님에 효도하고 나라님에 충성하여 예헤루 다투야

△ 산, 바위 등의 전설

• 선바위 골 : 이곳에 용마가 나고 장사가 태어났는데 3일만에 장사가 죽어 용마가 슬피 울며 다녔다 하여 선바위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 속칭이름

- 뱀장골 : 마을 위 골짜기
- 적골 : 마을 앞 개울 건너 골짜기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매어주게 매어주게 여러분이 일십발아 매어주게

상대방 머리맡에으로 뽕뽕 매어주게

양구 영천 흐르는 냇가에 배추씻는 자 치녀야

겉에 겉일 제쳐놓고 속에 속일 나를 주오

◎ 도원리(桃院里)

△ 위치 : 동쪽으로는 학야리, 서쪽에는 간성읍 홀리, 남쪽으로는 성대리, 북쪽에는 마차리를 바라보고 있다.

△ 마을유래 : 마을의 속칭이름은 향도원이라 하는데 전해 내려오는 유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으며, 1968년 8월 도원저수지 신축공사때 현재 저수지내에 살던 주민 일부가 도원리로, 일부는 도원3리로 각각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도원1리

△ **마을유래** : 정확한 마을유래는 알 수 없으나 향도원, 사기막, 원터가 합해서 지금의 도원1리를 형성했다고 한다.



도원1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3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5명, 여자 61명으로 모두 11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9가구, 서울시 9가구, 경상도 2가구, 경기도와 전라도 1가구, 대구시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7가구,朴씨와 손씨가 각각 4가구,李씨 3가

구,安씨와 康씨가 각각 2가구,崔씨와 張씨,黃씨,徐씨가 각각 1가구, 기타 6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24가구로 대부분이며, 상업 7가구, 기타 3가구가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10ha, 밭이 10ha, 임야 49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5대, 트랙터 1대, 콤팩트 1대, 이앙기 3대, 곡물 건조기 1대, 기타 1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8마리, 닭 70마리, 개 23마리 등을 작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83년 8월 20일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34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4대, 냉장고 33대, 자가용 13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에어컨 2대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3월에 총공사비 1백만원을 들여 전평 14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19가구, 기독교 4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1년 10월 원터에 교량 5m를 70만원을 들여 마을 차체적으로 가설했으며 도원리 알 소하천 100m를 100만원을 들여 정비했다.

1992년 4월 사업비 1천9백60만원을 들여 도원1리~도원2리간 도로 390m(폭 6.5m)를 포장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6천1백만원을 들여 교량 29m(폭 5m) 가설, 진입로 265m(폭 5m)를 개설했다.

△ **마을신앙** : 산신제와 성황제를 음력 3월 30일과 9월 9일 산신당 및 성황당에서 년 2회 봄, 가을에 행하고 있다.

산신제는 산악지대에 위치한 마을로서 옛부터 생계에 보탬이 되는 산나물이나 기타 약초 등을 캐기 위하여 입산하는 사람들의 부사고를 기원하고 성황제는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지내는 의식으로 마을사람들이 모두 참석하되 여자와 상주, 불순한 사람은 참석할 수 없으며 제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로 산신제를 먼저 지내고 성황당으로 이동하여 성황제를 지내는데 산신제는 돼지(생육)를 놓고 매를 지어서 지내며 성황제는 다리 밭목과 머리를 놓고 지낸다.

△ 마을 세시풍속

- 구정 : 윷놀이
- 정월보름 : 햇물놀이
- 한식 : 성묘
- 오월단오 : 그네뛰기
- 유월 유두 : 전주민이 술과 떡을 장만하여 춤과 노래로 하루를 즐겁게 보냄
- 팔월추석 : 성묘
- 텃제사 : 가구미다 길일을 선택하여 술, 떡, 어물을 준비하여 성주님께 무사함을 기원함.

△ 산, 바위 등의 전설

• 아들바위 : 윈터에서 셋령을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바위로 왼손으로 돌을 쥐어 양다리 사이로 던져서 돌이 바위에 올라 앉으면 아들을 낳고 떨어지면 딸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다.

△ 속칭이름

• 새박골 : 윈터(마을위 골짜기)

• 운다지 : 윈터 옆

• 셋령 : 샘수골짜기(완산물). 수성지(水城誌) 기록에 의하면 "소파령(所坡嶺) 또는 석과령(石坡嶺)이라고 하는데 가장 험준하여 죽도와 토성 두개의 장애가 되고 있다. 영서로 통하는 소로에 윈(院)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래서 혹은 윈기령(院基嶺)이라고 말한다."

- 신선봉 : 부대 위에 있는 바위
- 용수골 : 마을앞 골짜기
- 먼의골 : 저수지 위 골짜기
- 포갈봉 : 마을뒷산
- 성황골 : 윈터 근처 다리부근
- 용산대골 : 마산 가는 골짜기
- 구절토 : 옛날 절이 있던 자리

• 신방소 : 선녀가 목욕을 하고 놀다가 승천하였다고 하는 곳

• 굴바위 : 바위 굴 속에 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가는 세월 누가나 붙들고 오는 해 백발은 어느 누가 막아 주느냐

어아디야 어아디야 에헤어디야 시절이 젊어 놀시다

△ 냉천현황

• 관섿물 : 섿물 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전되어 오는 말로는 결핵환자가 3년을 치료해 병을 완치하였다고하며 '천산물'이라고도 칭한다고 한다.

○ 도원2리

△ 위치 : 동쪽으로는 백촌리, 서쪽으로 도원1리, 남쪽으로는 성대1리, 북쪽으로 학야1리가 자리잡고 있다.



도원2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옛날 선조들께서 사기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여 사기박이라 부른 것이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으며 자세한 유래는 아는 사람이 없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3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6명, 여자 48명으로 모두 94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5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가구씩, 기타 2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崔씨가 8가구,朴씨가 6가구,李씨가 3가구,金씨와張씨,尹씨가 각각 2가구씩,韓씨와洪씨,成씨,吳씨,徐씨,鄭씨,權씨 각각 1가구, 기타 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30가구로 대부분이며, 상업 1가구가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5ha, 밭이 4ha, 임야 13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1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4대, 곡물 건조기 1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24마리, 개 38마리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5년 11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재동래 현재 30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1대, 냉장고 31대, 자가용 7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4년 3월에 총공사비 120만원울 들여 전평 12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가 13가구, 불교 11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금고는 1975년 11월에 처음 자본금 1만2천원으로 설립되어 1985년 2백73만원, 가입자수가 16가구 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1994년 4월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237m(폭 3m)를 포장했고, 사업비 1억4천6백만원을 들여 도원2리-도원3리간 도로 1.8km(폭 6m)확장과 1.6km(폭 5m) 포장, 옹벽 66m를 각각 시설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40m를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3월 3일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가축이 잘 자라고 농사가 대풍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매년 재관을 선정하여 선정된 재관이 먼저 절을 두번 한 다음 분향하고 난 뒤 부락대표(리장)가 1년동안 질병을 예방해 달라는 축문을 낭독하고 부락민 개개인이 일년 내내 건강하고 질병없는 한해가 되어달라는 기원으로 소지를 불살라 올리는 것으로 제식이 끝나는데 제사 시간은 오전 10시로 정하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 3명이 1개조가 되어 3개팀으로 구성하여 율놀이를 즐기며, 밤이되면 횃불놀이를 하는 하는데 일명 망월놀이라고 한다.

• 속칭이름 : 독바위, 진물산, 개금바물산, 문지방고개, 내가(노로소개), 진소.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도라지 타령

〈가사내용〉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산산천에 백도라지

어디에 날매가 일어 양바우삿에 낚네.

② 켈지나 창칭

③ 회심곡

〈가사내용〉 천지천지 부나무에 삼라만상 일어나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뒤덕으로 나왔으며

불과살림 온덕으로 석가어래에 제도했네

어머님전 살을 빌어 아버님전 뼈를 빌어

칠성당에 명을 빌어 재성님께 복을 빌어

이세상에 탄생하니 이삼십을 당해도
부모온공을 못다갈고 가오가오 나는 가오
인제기면 인제오나 명년 춘삼월에나 다시오기가 어려워라.

○ 도원3리

△ 위치 : 동쪽으로는 아아진리, 서쪽으로는 도원1리, 남쪽으로는 용암1리, 북쪽으로는 학야1리가 위치하고 있다.



도원3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도원3리는 도원1리에서 1967년까지 거주하였으나 정부에서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도원저수지를 축조, 침수지역이 되어 집단이주가 불가피하여 1968년 8월 27가구중 18가구는 도원1리에 이주하였고, 9가구는 현재 토성면 신평2리 재전촌에 이주하여 새로이 마을이 생겼다하여 새말(新里)이라 부르게 된 것이 속칭명이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29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1명, 여자 51명으로 모두 10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6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10가구,李씨와 조씨가 각각 4가구,朴씨 3가구,崔씨와 黃씨,林씨가 각각 2가구씩,安씨와 尹씨 각각 1구씩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29가구 모두가 농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며, 농한기에는 약초를 채취하여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3ha, 밭이 8ha, 임야 11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7대, 트랙터 5대, 콤팩트 9대, 이앙기 10대, 곡물 건조기 6대, 기타 4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53마리, 닭 85마리, 개 31마리, 토끼 9마리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6년 7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28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29대, 냉장고 29대, 자가용 8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3년 10월에 송공사비 3백만원을 들여 건평 17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가 7가구, 불교 7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2년 3월 사업비 2천7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600m(폭 4m)를 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1천3백6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50m(폭 3m)를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9백만원을 들여 도원3리와 함께 하수도 53m, 옹벽 26m, 안길포장 240m가 시행됐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절일대보름 : 마을사람들을 아랫마을, 윗마을 2개조로 편성하여 율농이를 하여 배한 마을에서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여 마을 전주민의 단합을 유도 하였으며, 밤에는 불방망이를 돌리며 마을에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잡귀를 망원놀이(구멍을 뚫은 빈 항통에 불을 피운 나무를 넣고 돌리는 놀이)를 한다.

△ 회다리 노래

① 선소리 (상여가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 어허남차— 어허야, 어허남차 어허야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 밖일세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오나

내년 춘삼월에나 올까 말까 ~

② 회다리 노래

〈가사내용〉 설악산 남대가 뚝 떨어졌네

에헤라 다루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을

날라면 효자 날고 딸을 날라

면 열너 날아라.

에헤라 다루야 에헤라 다루야

△ 속칭이름

• 냇골 : 선생평야지 마을로써 마을할 1km지점에 유일한 냇가가 있는 골짜기를 냇골이라 부른다.

• 새박골 : 도원저수지 위 북쪽으로 약3km거리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박달나무가 많은 골짜기라 하여 새박골이라 한다.

• 진동 : 마을들판을 말하는 것으로 들판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우천시 들판 전체가 진다 하여 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매어주게 매어나주게

여러분 일심 많아 매어나주게

양구 영천 흐르는 냇가에

매추 잘 썬 저 처녀야

길에 걸인 제치 놓고

속에 속임 나를 주소.

◎ 성대리(城垈里)

△ 위치 : 동쪽에는 용암리와 아아진리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인제군이 있으며, 남쪽으로
는 신평리, 북쪽으로는 도원리가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구전에 의하면 약 360여년전 嚴씨 성을 가진 이가 살면서 마을이 동쪽을 향
해 위치하고 마을 모양이 다락처럼 생겼다고 하여 동루동 또는 동노동리(東老洞里)라 불렀는
데,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다.

○ 성대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3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3명, 여자 56명으로 모두 10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6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와 서울시가 각각 3가구씩, 경
기도 2가구 등이다.



성대1리 마을전경

가구별 성씨분포는 송씨가 7가구,
李씨와 崔씨 각각 5가구,朴씨와 鄭씨
각각 2가구씩, 全씨와 韓씨, 咸씨, 黃
씨, 趙씨, 徐씨 각각 1가구, 기타 7가
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 23가
구, 상업 2가구, 기타 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8
ha, 밭이 16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7대, 트랙터 4대, 콤바인 3대, 이앙기 9대, 곡물 건조기 4대, 기

타 3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136마리, 닭 21마리, 개 21마리, 토끼 14마리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32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4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일6회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4대, 냉장고 32대, 자가용 9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3월에 총공사비 77만7천원을 들여 전경 15평 규모로 아담하게 건축됐다.

종교현황은 기독교 11가구, 불교 9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0년 3월 마을안길 100m를 지원금 2백50만원과 기부금 1백50만원을 들여 도로를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7백50만원을 들여 마을길 462m를 포장했고, 9월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27m설치, 안길포장 1.9a, 휴관과 댐홀을 각각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월 2일 성황당에서 행하고 있다. 마을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재물로 소를 바쳤으나 최근에는 주, 과, 포(술,과일,포)와 세, 시쿠먹을 준비하여 제관은 나이와 생기에 맞는 사람을 골라 제관 주세하에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여 새벽 7시경 의식을 갖는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 널뛰기, 윷놀이
- 음력 이월초하루 : 바닷님이 내려오는 날이라 하여 풍년을 기원하면서 정성을 드린다.
- 팔월한가위 : 그네뛰기, 축구대회

△ 산, 바위 등의 전설과 명소현황

- 치마바위 :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위로 이 바위 때문에 남자들은 일찍 죽고 여자들은 오래 산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 갯바위 : 갯과 같이 생겨서 갯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바위 밑에 큰 구멍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어서 피난터로 이용했다고도 한다.

△ 속칭이름

- 웅장골 : 학교앞 골짜기
- 석남 : 천차대대 밑
- 윗터 : 마을 뒤
- 소고개 : 향도원 넘어가는 고개
- 넘더골 : 마을 위 골짜기

• 쪽다리 : 마을 앞 다리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정월대보름에 칠집마다 다니면서 축원하는 노래

〈가사내용〉 국태는 민안하고 시와 연풍 연연이 돌아드니 삼정승 육판사 오옥혁문

가잡사 각도 가람이 마른 한데 군으로는 고성군이며 변으로는 토성면 동리로는
성대리며 이집승씨 잡아들여 살랑자는 서방님이며 그 아기가 자라날때 외크듯
가지크듯 억수 장마에 비 퍼붓듯 만사살에 구름검듯 문기 문기를 자라나여 글썽
부나 하여보자 천자유학 등문산집 논어맹자 시전 서전 주약팔매 사서삼경 무불
동지 하였구나 한양서 과거본단을 맡을 바람에 풍년 넘짓 듣고 과거보라 올라가
니 삼시관이 자개하직고 어떤글자 걸렸드나 일필이지 선정하니 감구연월이 득문
이라.

○ 성대2리

△ 위치 : 동쪽에는 용암1리, 서쪽에는 성대1리, 남쪽에는 신평1리, 북쪽에는 도원3리가 각
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성대1리에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새로 마을을 형성하며 거주한지가 얼마 되
지 않아 신평리(新堡里)라고도 불렀으
며 그 후 성대1리에서 분할되었다.



성대2리 마을전경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35
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57명, 여자 53명으로
모두 110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3가
구로 가장 많으며, 충청도와 서울시가
각각 1가구씩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송씨가 13가구,

林씨 6가구,李씨 5가구,張씨 4가구,崔씨와鄭씨 각각 2가구씩,朴씨와韓씨 각각 1가구씩,
기타 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 31가구, 기타 2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55ha, 밭이 7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9대, 트랙터 5대, 콤바인 4대, 이앙기 6대, 곡물 건조기 3대, 기

타 4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88마리, 닭 8마리, 개 60마리 등을 각가장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4년 3월에 개통돼 현재 35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5대, 냉장고 33대, 자가용 16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12가구, 기독교 9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5년 3월 10일부터 마을앞길 80m를 시멘트 500포를 지원받아 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란 토속신앙을 음력 1월 15일전 적당한 길일을 택해 서낭당에서 행하고 있다. 먼 옛날부터 서낭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호랑이가 온다고 하여 제사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무사고와 안녕을 빌던 의식으로 최연장이며 생기에 맞는 재관 3명의 주관하에 주,과, 포를 준비하여 일반 제사절차와 같으며 오전 10시에 지낸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 율놀이, 췌불놀이, 망월
- 토네기후 : 화전놀이, 마을앞 벼당에서 두레조 별로 모여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 음력 팔월한가위 : 그네뛰기
- 동짓날 : 관죽

△ 속칭이름

- 웅장골 : 마을위 골짜기
- 부평골 : 전차대대 아래 골짜기
- 횡재 : 마을앞 벼당
- 석낭 : 용암1리 위
- 쪽다리 : 다리 밑
- 대밭골 : 웅장골 옆 골짜기

△ 구전되어 오는 민요

- ① 미나리 : 논이 집을 땔때 부르는 노래

〈가사내용〉 미나리는 잔다마는 바드레기는 늦어 간다.

아침이슬 만난 등우 해 절곳이 이별이라.

또 오늘 해는 늦은 산에 올라졌네

고슬고슬 그늘졌네 지어가네 지어가네 정승참이 지어가네

매어주게 댈어주게 이논자리 댈어주게

△ 마을명소현황

• 동정대부 김정권 불망비(通政大夫金正權不忘碑) : 신평-용암-성대리로 연결되는 304번 군도의 도로변 우측, 성대리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건너 동편 길가에 세워져 있는 비이다. 영월 영씨비에서 약 90m동편 도로가에 있다. 보(泐)의 측조과정에서 자신을 배운 김정권의 공덕을 기려 1904년 3월에 보자주(泐地主)일동이 건립하였다. 비의 전면에는 '동정대부김정권영세불망비(通政大夫金正權永世不忘碑)'라 새겼으며, 후면에는 '병바우보게들인수자선기념비(泐開引水慈善記念碑)'라 되어 있다. 콘크리트기단에 오석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111cm×42cm×15.5cm이다. 옥개석이 올려져 있다. 이 비에 각자된 병바우는 약 400m동쪽 낮은 아산의 바위를 말한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열녀 영월 엄씨 정려(烈女寧越嚴氏旌閭) : 영월 엄씨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온순하고 부모에 효도함이 극진하였으며, 김동경에게 시집가서도 남편 김동경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간병을 극진히 하였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치병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부인은 단치하여 끼를 마시게 하여 남편은 완쾌되어 6년을 연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1928년 열녀로 표창되었다. 비가 이 세워진 열녀비의 비신은 1470cm, 두께는 21cm이며, 1928년에 작성된 "열녀 엄씨 포창완의문(烈女嚴氏褒彰完議文)"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열녀비는 용암리에서 성대리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비각은 건립되지 않았다. 그전면에는 "전참봉 김동경지 처 열부 영월 엄씨지 비(前參奉金東經之妻烈婦寧越嚴氏之碑)"로 각자되어 있으며, 그 후면에는 효행과 행장이 기술되어 소개되고 있다. 비석은 화강암재이며 크기는 140cm×44cm×21cm이다.

【참고문헌】고성군, 1985, 《고성군지》;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용암리(龍岩里)

△ 위치 : 동쪽으로는 청간리, 서쪽에는 성대리, 남쪽으로는 천길리와 신평리, 그리고 북쪽에는 아야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날에 동쪽 산에 청룡이 살아 청룡바위, 남쪽 산에 맹이 살아 맹바위, 신선이 내려와 바위를 두었다는 신선바위 등 여러바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넓은 터가 있어 누씨와 숲씨가 터를 두고 집을 지어 살면서 마을명을 용암(龍岩)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서쪽에는 넓은 들과 골이 있었는데 가뭄이 들어도 샘이 계속 흐른다고 하여 속칭 잠샘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용암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3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68명, 여자 63명으로 모두 131명이다.



용암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0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라도와 서울시가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李씨가 12가구, 김씨가 11가구,趙씨가 3가구, 한씨와 손씨,洪씨가 각각 2가구씩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 24가구, 상업 2가구, 기타 6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55ha, 밭이 5ha, 임야 51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2대, 트랙터 4대, 콤바인 5대, 이앙기 10대, 곡물건조기 3대, 기타 5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80마리, 닭 32마리, 개 32마리, 토끼 9마리 등을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1년 7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5대, 냉장고 31대, 자가용 11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12월에 총공사비 1백만원을 들여 건평 15평 규모로 아담하게 건축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1994년 30평의 벽돌조스라브로 건물로 재건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10가구, 기독교 6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5년 3월에 지원금 1천만원과 자부담 1천만원을 들여 마을 앞에 50m되는 교량을 가설하였고 1982년 4월 지원금 1백만원과 자부담 1백만원을 들여 마을 앞 소하천 200m를 정비하였음, 1980년에 150m, 1985년 110m되는 마을인길을 두차례에 걸쳐 시멘트로 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천1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572m를 포장했다.

1995년 3월 사업비 2천1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240m포장,涵管 15m를 부설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2천9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U형측구 125m, 하수관로 63m를 각각 설

치했다.

△ **마을신앙** : 마을이 질병과 재앙을 예방하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부락제로서 매년 음력 정월 3일 오후 3시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부락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제관을 뽑으며 제물을 매년 제일 위쪽에 위치한 집에서 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장만하는데 옛날에는 소를 잡았으나 현재는 돼지를 잡고, 주, 과, 조, 떡, 메를 쓰나 형편대로 성의껏 음식을 장만하면 된다고 한다.

△ 마을 세시풍속

• **덧제사** : 정초에 지내며 1년 내내 가정과 가족이 무사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집집마다 지낸다.

• **정월보름** : 율놀이

• **질놀이** : 매년 보네기가 끝나는 제일 한가한 때인 6월 중순경 모내기 두레조 별로 모여 품삯을 계산하고 남은 돈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 **관원한가위** : 널뛰기, 그네뛰기, 축구대회

△ **회다지 노래** : 지금은 실시하지 않으며 곡조는 주관자가 즉석에서 생각나는대로 부른다.

△ 속칭이름

• **호골** : 부락서쪽 이른개 넘어가는 골짜기에 위치

• **범바우** : 옛날 범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하여 범바우라 부른다.

• **셋골** : 하룡암(下龍岩), 상룡암(上龍岩)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른개 넘어가는 지름길로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① 거기누가 날 찾느냐

거기누가 날 찾느냐

거기누가 날 찾느냐

거기누가 날 찾나

술 잘먹는 이태백이가

술추렴 하자고 날 찾는다

②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워마라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은 한번 나자 돌아서면 열열종천 그만일세.

○ 용암2리

△ 위치 : 동쪽에 청간리, 서쪽에 용암1리, 남쪽에 천진리, 북쪽에 도원3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용암2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상용암리와 청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 '간(間)' 자를 따서 간청간(間淸澗)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사이라고 하는 말이 세이라고 발음이 변해 세청간(歲淸澗)이라 불리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3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70명, 여자 53명으로 모두 123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2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와 충청도가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6가구, 이씨와 박씨, 홍씨가 각각 5가구씩, 박씨가 3가구, 안씨와徐씨, 권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 7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24가구, 상업 1가구, 기타 10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4ha, 밭이 12ha, 임야 24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4대, 트랙터 3대, 콤바인 6대, 이앙기 10대, 곡기 3대, 기타 3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300마리, 개 26마리 등을 집단사육하고 있다.

전기 1972년 3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32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34대, 냉장고 34대, 자가용 14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2년 3월 10일에 총공사비 41만8천원을 들여 전평 11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8가구, 기독교가 7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9년 3월 지원금 8백79만8천원과 자부담 7백43만3천원을 들여 마을 앞 56m의 교량을 가설했다. 1985년 3월 마을안길 85m를 확포장했다.

1991년 12월 사업비 4백30만원을 들여 진입로 130m를 포장했다.

△ 마을 세시풍속

- 음력 정월대보름 : 훑놀이, 췌불놀이
- 음력 오월단오 : 그네뛰기
- 음력 팔월보름 : 훑놀이

△ 회다지 노래

(가사내용) 에헤루 달회야 갑바위골 주렁이 내려오다 여기가 기사명당이 되었구나
에헤루 달회야 이산쓰고 삼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로다 에헤루 달회야

※註 달회 : 회가루를 반죽하여 무덤에 바른다는 뜻

갑바위 : 지금의 화암사 말산에 위치한 바위로 금강산 주렁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 사
람들은 이바위를 명산 명바위로 생각하고 있다.

△ 속칭이름

- 셋골 : 마을 서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용암1.2리 간에 위치하고 있다.
- 뿔골 :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滿淵, 我也津으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뿔셋골 : 마을 앞 남쪽에 위치한 개울로 옛날에는 이곳 개울 앞에 마을이 위치 하였으나
병자호란때 마을이 침수, 지금의 용암2리에 이주하였다. 당초 이 마을의 뿔편에 개울이 있었
던 관계로 지금도 뿔개울이라 부른다고 한다.
- 산지당골 : 마을뒤 골짜기
- 서낭골 : 천진1리에서 올라오는 서낭이 있는 골짜기
- 너삼평 : 신평 올라오는 벌판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지정되기 노래

(가사내용) 에헤루 지정이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에헤루 지정이야 이집짓고 삼년만에 천석군 아니면 만석굴 난다.
에헤루 지정이야

② 조선아리랑

(가사내용) 여보게 김도령이 입찰을 날게 시살문 동천에 해들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신평리(新坪里)

△ 위치 : 동쪽에 천진리, 서쪽에 현제군, 남쪽에 인흥리와 원암리, 북쪽에 성대리가 각각 차

리라고 있다. (1991년 신평1리 마을유래를 보면 신평1리 마을은 옛날에 신대리라고 하였는데, 신대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 **마을유래** : 옛날에 성대리가 처음 마을로 형성된 후에 성대리의 남쪽으로 성남이라 부르던 곳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말이라 명명한 것이 속칭명이 되었는데, 신말(新末)은 쌀밥 먹고 장작만 뎌다는 마을로 그만큼 부유하였다는 유래도 있으며 성남이란 제일 먼저 생긴 곳으로 간성 둘레를 성으로 쌓은 남쪽에 있다 하여 부르게 된 것이다. 1991년도 신평1리에서 제17회 세계쟁버리가 개최 됨에 따라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 신평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72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23명, 여자 130명으로 모두 253명이다.



신평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68가구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2가구, 경상도와 충청도가 각각 1가구씩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솔씨가 25가구, 최씨가 19가구, 황씨와鄭씨가 각각 3가구씩, 張씨와 尹씨, 韓씨, 成씨, 趙씨가 각각 1가구씩, 기타 8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70가구, 축산업 2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84

ha, 밭이 30ha, 임야 315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37대, 트랙터 7대, 물바인 10대, 이앙기 21대, 곡물건조기 5대, 기타 3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316마리, 개 68마리 등을 집단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71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0년 5월에 개통돼 현재 1일 6회 왕복 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72대, 냉장고 70대, 자가용 28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0년 6월에 건평 22.3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16가구, 기독교 13가구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84년 4월 너삼정에 1백만원을 들여 20m되는 교량을 가설하였으

며, 1978년 11월에 1백만원을 들여 마을 앞 소하천 500m를 정비하였고, 1981년 3월 20일부터 3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100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또한 1984년 3월에는 마을안길 100m를 시멘트로 연장 포장했다.

1991년 3월 사업비 9백20만원을 들여 하수도 120m를 설치하고 20m를 포장했다.

1992년 6월 사업비 1억2백만원을 들여 천진~신평간 도로 1.32km(폭 7.5m)를 확포장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1천8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598m를 포장했고, 사업비 1천6백만원을 들여 U형 하수도 188m를 설치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천진~신평간 도로 1.8km를 아스콘 확포장했다.

1994년 1월 사업비 16억 8백만원을 들여 신평지구 126.01ha 경지, 113.59ha의 물리 면적에 대한 정지정리 작업을 시행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1천9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92m포장,涵管 48m를 설치했다.

1994년 5월 사업비 2억3천2백만원을 들여 100m/일 규모의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를 설치했다.

1994년 6월 사업비 4억2백만원을 들여 신평~천진간 도로 1.56km를 확·포장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이 있어 매년 음력 3월과 10월, 성황당에서 길일을 택해 행하고 있다. 옛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던가 잡귀가 들에 성황당에서 장성것 예를 짓고 빌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하여 마을의 무사와 증년과 질병을 없애기 위한 의식으로 지내오고 있다. 3월 제사에는 주, 과, 포를 준비하며 10월 제사에는 소를 잡아 지내오다 최근에는 소머리를 준비하여 지내고 있다. 리장 주재하에 제관은 생기가 맞는 사람으로 지정된 제관은 제물준비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제사 3일전부터 송침을 달아 놓고 부정한 것을 금하고 외부 방문자도 금하며 깨끗한 마을과 정성을 다하며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오후 7시경 제사를 지낸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에는 물꽃놀이와 보름달 먼저 보기, 달맞이, 햇물, 방월놀이를 즐겨하였다.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서당바위 : 옛 전설에 가뭄이 들면 이 바위에 처녀가 올라가 옷을 벗고 춤을 추며 소변을 보면 비가 온다하여 서당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 가선대부 김학현 묘비(嘉善大夫金鶴鉉墓碑) : 마을 입구에서 남쪽 개천을 따라(남쪽 농로)설악산 쪽으로 약 1km정도 가다보면 광산 김씨 묘역이 나온다. 이 묘역 동편 아래 도로변에 김학현의 묘가 있다.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이 있으며 묘역 주변에는 수령 100년 정도 되는 소나무들이 있다. 비는 비갓이 있고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크기는 115cm×40.3cm×17cm이다. 비의 정면에는 “가선대부광산김공휘학현지묘비(嘉善大夫光山金公諱鶴鉉之墓碑)”

라 새겼고, 비 오른편에는 “계미년구월 일 계미년구월이십일손백수군지(癸未年九月立癸未年九月二十日孫伯洙謹識)”라 적어 1943년에 이 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비 좌편에는 “공즉광성군휘정십팔세손아조휘기설구가선재윤유삼(公即光城君諱鼎十八世孫也祖諱姜雙父嘉善在尹有三)”이라 적혀 있다. 비의 뒷면에는 4행으로 “남일녀장석현삼차두현차즉공야기삼월사일장해최원자동정옥모재수청치대평병자유비석손백수력양양고성춘○학교훈도현임양양공의차손중수익수원수○금공지행장이준복지입언군자불감술언계미구월이십일(男一女長額銘三次斗銘次即公也忌三月四日葬亥坐原子通政旭墓在水清峙大坪○坐有碑石孫伯洙歷襄陽高城春○學校訓導現任襄陽公醫次孫仲洙仁洙○今公之行狀以竣復之立言君子不敢違焉癸未九月二十日)”이라 적혀 있다. 김학현은 갑寅(甲寅)년(1854)에 태어나 공의(公醫)를 지내다 계미(癸未)년(1943)에 사망하였다. 김두현의 형이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김두현 송덕비(高城金斗鉉頌德碑) : 이 비석은 권영구씨덕 뒷편 밭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밭의 소유주는 김용문씨이다. 김두현은 김용문씨의 고조부인데 소화(昭和) 6년(1931) 문중에서 그의 공적을 기려 세운 비다. 비 대좌는 경자토에 대좌되어 있으며 비신과 비각은 화강암제로 이루어져 있고 각에는 기왓골 조각이 있다. 비의 전면에는 “증통훈대에조판서광산김공두현지비(贈通訓大夫禮曹判書光山金公斗鉉之碑)”, 전면 우측에는 “평 성자질중의운고 회노불형처사중시전(銘性姿沈重義尤高喜怒不形處事中矢見)”, 좌측에는 “교자논손활인구제 언어부정자선보시(敎子論孫活人求濟言語無 慈善普施)”라 새겨 있다. 6행으로 된 음기에 의하면 김두현은 계해년(癸亥年)(1863)에 태어났고, 광무(光武) 2년(1898) 중직, 경오년(庚午年)(1929)에 사망하였으며 특별한 벼슬은 없었다.

비문은 참봉 엄주열(嚴柱烈)이 짓고, 종손 백수(伯洙)가 세웠다. 비의 크기는 132cm×55cm×21.5cm이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선바우 : 신평1리, 봉포리, 인흥리 3개 부락의 경계로서 바위가 저 있다하여 선바위라고 한다.

• 산재당나무 : 신평1리에서 남서쪽 설악목장 아래에 위치한 소나무로 약200년 되었으며 옛부터 나무 밑에서 쌀을 가지고 가서 메를 지어 놓고 가정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빌었다고 한다.

• 뱀골 : 신평아래 농경지 임구 뒷골짜기에 위치하여 형체가 죽은 뱀처럼 생겨 그 집안이 대성을 못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 속칭이름

• 뽕골 : 마을에서 천진쪽으로 가는 골짜기

• 횡재 : 신평국교 옆 골짜기

• 원고개 : 마을 위

• 산양평 : 마을 옆 벌판

○ 신평2리

△ 위치 : 동쪽에 신평1리가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천후산을 바라보며, 남쪽에는 원암리, 북쪽에는 성대1리가 위치하고 있다.



신평2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1961년 8월 21일 서울에 거주하던 118세대의 746명이 정착하여 15동, 20동, 10동, 73동의 4개 지역에 각각 분산 입주하여 주택을 짓고 농토를 개간하여 호당 대지 120평, 밭 5,900평을 개간하여 거주하였다. 1965년 1월 1일자로 15동, 20동, 10동 모두 45동이 신평3리로 분구하였다가, 1966년 5월 30일자로 화전면 이주로 62세대가 떠나게 되어 1968년 12

월 1일자로 신평3리가 폐지되어 지금의 신평2리가 되었으며 속칭 재전촌이라 불려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5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95명, 여자 72명으로 모두 167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8가구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6가구, 경상도 4가구, 전라도와 충청도가 각각 3가구씩, 경기도 2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20가구,李씨가 11가구,朴씨와 손씨,鄭씨가 각각 3가구씩,崔씨와 안씨,康씨,嚴씨,趙씨가 각각 2가구씩,洪씨 1가구, 기타 5가구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47가구, 상업 1가구, 기타 8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6ha, 밭이 35ha, 임야 677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0대, 트랙터 2대, 콤바인 3대, 이앙기 5대, 곡물 건조기 1대, 기타 3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35마리, 돼지 14마리, 닭 360마리, 개 53마리, 기타 87마리를 집단 사육하거나 각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8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53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56대, 냉장고 54대, 자가용 22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6년 4월에 총공사비 1백39만8천원을 들여 전평 20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가 12가구, 기독교가 11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2년 3월 사업비 1천7백4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632m를 포장했다.

1992년 4월 사업비 7천1백만원을 들여 신불전 도로 340m(폭 6m)를 확·포장했다.

특산물로는 당귀, 도라지, 버섯, 양파, 약초를 5가구에서 재배하고 있다.

△ **마을신앙** : 매년 양력 10월 3일 삼수암(三穗岩, 三原岩) 북포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다. 처음 입주하여 바람이 세게 불고 황무지를 개간하느라 갖은 고생이 되어 마을의 위로와 협동 단결, 추수감사의 의미로 마을 주민이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마을 대표 한분이 축문을 읽고 가구주 마다 잔을 올리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 달라고 산신령에게 소원을 빌며 소지를 올리고 끝내면 음식을 마을 주민이 함께 나누어 먹는데 제사시각은 오후 8시경이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와 망월놀이를 하며 모내기 후에는 화전놀이를 한다.

△ **산, 바위 등의 전설, 명소현황**

• **선인대(仙人臺)** : 태백산맥 준령에 자리잡고 있는 산중에 선인대라는 바위산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선녀, 신선들이 만월이 되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는 장소로써 바위 정상에 목욕탕 모양의 웅덩이가 9개 있으며 이곳에 불이 항상 고여 있어 지금에도 정월 대보름이나 한가위가 되면 선녀, 신선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수암(穗岩)** : 임진왜란 때 왜적이 온갖 노략질을 많이하여 이름모를 장군이 양민을 동원하여 이영을 뚫어 바위를 싸서 노적더미처럼 가강하여 노적에 천옷을 입힌 허수아비 수진개를 산 속에 세워 놓고 군량미와 병력이 많이 있는 것 처럼 알리고 자생된 밤나무를 베어 적이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때 연기를 피워 적을 완전 소탕하였던 곳으로 지금은 이삭 '수(穗)'자를 써서 수바위라 일컫고 일명 노적바위라 한다.

• **화암사(禾巖寺)** : 신라 혜공왕(惠恭王) 5년(769)에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창건하고 화암사(華巖寺)라 칭하였다. 여러번 불에 타서 조선 고종 원년(1864) 이곳 수바위 밑에 옮겨 짓고, 수바위를 한자로 표기해 수암사(穗岩寺)라 하였다가 1912년 화암사(禾巖寺)라 하였다. 사찰내에 관음보살상과 삼성각서편 부도군과 입구 부도군과 비가 남아 있으며 1991년 세계평버리 종교의식장으로 사용된 후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 **화암사 삼성각 서편 부도군** : 이 부도군에 대한 조사내용은 강릉대학교박물관의 조사보

고서(1995)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부도군이 있는 곳은 삼성각 서편 약 20여평의 대지로 2기가 자리하고 있다. 석조부도 1은 2대석으로 방형의 지대석을 이루었으며, 이 지대석 위에 아무 조식이 없는 평면 8각의 부재를 놓아 중대석을 삼고 있다. 하대석과 중대석 받침은 없다. 탑신 받침인 상대석은 상단에는 복엽 8판 연화문이 돌려 있고(양면) 판단과 마주보며 하면에 단엽 8판의 연화문이 대칭되게 조각되어 있다. 탑신은 원구형으로 표면에는 아무 조식이 없다. 옥개석은 사모지붕의 형태인데, 지붕위 상면에는 기와끝이 조각되어 있고 4우(隅)의 합각선이 두들려 있다. 낙수면에는 각각 화문(花紋)이 조각되어 있는데, 합각의 상면과 연결되어 있다. 옥개석 상면에는 보주형의 상륜부를 놓았다.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어 불안한데, 강릉대 조사단은 2기의 부도대를 합하여 전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높이는 249cm이다. 석조부도 2는 석종형 부도로 탑신의 상단에는 화문이 양각되었고, 보주의 하단에도 단엽 16판의 복엽이 조식되어 있다. 보주의 하단과 탑신의 화문 사이에는 단엽 8판의 복엽이 있다. 전체 높이는 120cm이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화암사 일주문 부근 부도군 : 일주문에서 화암사 정내로 들어가는 입구(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17.8cm×9.5cm 규모의 담장 내에 13기의 부도와 1기의 비석이 2열로 배치되어 있다. 각 부도에 대한 설명은 뒷줄 좌측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를 정해 설명할 것이다. 영담탑(影潭塔)은 장방형의 지대석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이다. 지대석은 83cm×71cm×15cm 크기로 높이 115cm의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부도의 상면에는 1조의 음각선을 돌리고 뒤편에는 7엽의 삼각형 모양의 화문을 음각하였다.

정상에는 탑신과 1석으로 구성된 낮은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면에는 자경 13cm의 '영담탑(影潭塔)'이란 명문이 있어, 이 부도의 주인공이 영담(影潭)임을 알 수 있다. 원봉탑(圓奉塔)은 장방형의 지대석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이다. 지대석은 108cm×110cm×15cm 크기로 상면에 높이 180cm의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부도의 상면에는 탑신과 1석으로 구성된 높직한 보주를 배치하고 화면에는 2조의 음각선을 돌리고 보문처럼 처리하였다. 부도의 전면에는 자경 14cm의 '원봉탑(圓奉塔)'이란 명문이 있다. 청암탑(淸巖塔)은 자연석의 장방형 지대석(거칠게 치석)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이다. 지대석은 126cm×112cm×23cm 크기로 상면에 높이 134cm의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상면에 놓인 보주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되었는데, 하단에는 2조의 음각선을 돌리고 있다. 부도의 전면에 자경 15.7cm '청암탑(淸巖塔)'이란 명문이 있다. 춘담당대선사비(春潭堂大禪師碑)는 비좌·비신·이수를 갖춘 비석이다. 비좌는 장방형으로 133cm×93cm×20cm의 크기로 양면에 명문을 새기고 있어 2면 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의 자경은 양면이 모두 4cm으로 동일하다. 이수는 123cm×85cm×68cm의 크기로 전면에는 장방형 액(額) 3개가 산자형을 이루고 있고 측면에는 음각된 장방형 액이 2개씩 있다. 후면에는 세로

방향의 장방형 액 2개를 중앙에 놓고 좌우에 소형석은 음각하였다. 이수의 하단은 각면의 모를 죽여 굴형을 이루고 있고, 정상에는 2개의 보주석을 놓았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3.1m이다. 또 음기(陰記)된 내용 중 “봉수(奉修)”는 봉수(奉秀)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경파치성상과 연대성인(鏡波致聖上佐蓮城大仁)”에서 “상좌(上佐)”의 음각은 자체(字體)가 비문의 글자와 비교할 때 조잡하여 처음에는 낙서로 생각하였으나, 내용상으로 볼때 누락된 자구를 후일 누군가 추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춘담대법사탑(春潭大法師塔)은 화강암을 거칠게 치석하여 상면에 불룩하게 부도를 놓을 수 있는 원형의 대를 다시 마련하고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36cm×82cm×17cm의 크기로 상면에는 높이 5cm의 부등변 8각형 단발침을 형성하여 석종형 부도를 받고 있다. 부도는 높이 170cm로 전면에 자경 18cm로 “춘담대법사탑(春潭大法師塔)”이라 음각되어 있다. 부도의 상면에는 삼산형의 고사리문이 음각되어 있고, 상단에는 높직한 단위에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보주를 놓고 있다. 전면에는 단엽 9관의 양면이 음각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화곡당탑(華谷當塔)은 8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지름 76cm, 높이 48cm의 8각형으로 전면에는 단엽 8관의 2중 양면이 들려져 있고, 연화문의 사이 사이에는 간엽이 조식되어 있다. 석종형 부도는 높이 124cm로 정상에는 1단의 받침을 마련하고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보주를 놓았다. 부도의 전면에 자경 13cm의 “화곡당(華谷堂)”이라 음각되어 있다. 무명 부도(無名浮屠)는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부도는 석종형으로 높이 105cm 크기이다. 상면에는 단엽 12관의 돌출된 양면대 상면에 삼지창형의 양각선이 형성되어 있고, 정상에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낮은 보주가 있다. 부도 대석(浮屠臺石)은 장방형 지대석 상면에 높이 12cm, 지름 47cm의 8각형 받침을 조출하고 있다. 탑신받침은 1면 길이 14cm로 복엽 16판 복면이 들려져 있다. 무명 부도(無名浮屠)는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기단, 탑신, 옥개석을 받고 있다. 지대석은 장방형으로, 상면에는 부등형 8각형의 받침을 조성하여 기단을 받고 있다. 기단은 팔각형으로 높이 12cm, 1면 35cm, 지름 72cm의 크기로 상면에 복엽 11판의 복면이 조식되어 있다. 탑신은 원구형으로 높이 50cm, 지름 72cm의 크기이다. 옥개석은 상면의 모를 죽인 사모지붕의 형태로 합각선이 두툼하여 전체적으로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8cm이다.

무명 부도(無名浮屠)는 방형 지대석 상면에 높이 19cm의 2단으로 조성된 8각형 기임대를 조출하였다. 기임대의 상면에는 8각형의 2단의 하대석을 놓았는데, 상면에 복엽 16판의 복면대가 조식되어 있다. 하대석의 상면에는 8각형의 중대석과 고목형 석재등 1석으로 조성된 부재가 놓여 있고, 상면에 옥개석을 놓았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합각선이 두툼하다. 전체 높이는 180cm이다. 무명 부도(無名浮屠)는 지대석 상면에 원통형의 탑신을 놓았다. 상면에 높이 20cm의 2단으로 구성된 원형 받침부를 조출하여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은 상면

이 수평인 원구형으로 높이 60cm, 지름 44cm의 크기이다. 인봉탑(印奉塔)은 창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고, 높이 95cm의 상면에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보주가 있는데, 상면에 12엽의 삼각형 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무명 부도(無名浮屠)는 지대석, 하대석, 탑신석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별개의 부재로 보인다. 지대석 상면에는 복엽 16판의 복연이 원형을 이루며 음각되어 있고, 상면에는 단엽 16판의 양연이 조식된 8각형의 하대석이 놓여 있다. 탑신은 높이 90cm의 석종형이다. 월송당탑(月松堂塔)은 평탄한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삼아 하대석, 탑신석, 옥개석을 놓았다. 2단으로 구성된 높이 30cm의 원형 하대석 하단에는 복엽 16판 복연이, 상면에는 단엽 21판의 양연이 선각되어 있다. 탑신은 높이 77cm의 석종형이고, 8각형의 옥개석은 보주까지 1석으로 조성되었는데, 함각선이 두툼하고 낙수면의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낙수면의 길이가 짧아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88cm이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천후산(天吼山) : 일명 신선봉이라고 불리우는 이산에는 돌이 많고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는 바람 때문에 “하늘이 울다(天吼)”라고 전해오고 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은 이산에 성인(聖人)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높은 곳에 있는 바위가 마치 부처와 같고 그 옆에 있는 큰 돌은 팔 곳간(困廩)같아서 사람들이 화암(禾岩)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방수(防戍) 수자리 살며 국경을 지키는 이곳에 있었는데 고점라(藁苴樓)라는 돌(石)이 적(敵)에게는 양쪽을 쌓아둔 것으로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고 하여 화암(禾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杆城郡邑誌】

△ 속칭이름

- 수바위굴 : 마을 위 미시령과 화암사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수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 샘지굴 : 화암사 우측 골짜기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오동나무 뽕뽕아 난고 자지를 말어라.

아이밤쪽 해다 손에 전골이 녹는다.

에야노야 노야 에야노야 노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너는야 내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나는야 너 생각을 나날이 한다네

에야노야 노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 제17회 세계잼버리 : 1991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8박9일간 신평벌에서 129개국 19,062명(국외 11,612, 국내 7,450)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는 하나(Many Land, One World)”란 주제로 열려 국제친선과 화정활동을 훌륭히 마쳤다.

◎ 인흥리(仁興里)

△ 위치 : 동쪽으로는 봉포리와 용촌리, 서쪽으로는 신정리, 남쪽으로는 성천리와 속초시, 북쪽으로는 신평리를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속칭 장흥리라고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전 일제시대 때 인흥리에서 성천리에 이르는 지금의 성황당 산맥으로 이어지는 언덕이 노루목과 생겼다고 하여 장항리(獐項里)라고도 불렀는데 그로 인해 위 언덕 맥을 잘라 인제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전설도 있다.

○ 인흥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4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89명, 여자 52명으로 모두 141명이다.



인흥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34가구로 가장 많으며, 충청도 4가구, 서울시 2가구, 경상도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상씨분포는 숯씨가 14가구,李씨와 卓씨가 각각 8가구씩, 崔씨와 嚴씨가 각각 2가구씩, 朴씨와 張씨, 權씨 각각 1가구씩, 기타 4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 29가구, 상업 6가구, 기타 6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정지면적은 논이 37

ha, 밭이 7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8대, 트랙터 1대, 콤바인 5대, 이앙기 10대, 목물전조기 3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31마리, 개 14마리 등을 각가정에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2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2년 3월에 개통돼 1일 4회 왕복운행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41대, 냉장고 41대, 차가운 12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7년 3월에 총공사비 1백57만8천원을 들여 건평 12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 8가구, 불교 7가구등 비교적 적은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1991년 4월 사업비 1천2백90만원을 들여 인흥~용촌간 도로포장 170m와 용수로 170m를 설치했고, 1992년 5월 사업비 3억2천3백70만원을 들여 인흥~용촌간 도로 0.8km(폭 6.5~7.5m)를 아스콘 확·포장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5억7천만원을 들여 인흥~용촌간 도로 2km(폭 6.5m)를 아스콘 확·포장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8억3천4백만원을 들여 인흥~용촌간 교량 2개소 96m(폭 5m)를 가설했다.

△ **마을신앙** : 성황제로 불리는 토속신앙이 음력 3월3일과 9월9일 년2회 마을 앞산 정상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서 행해지고 있다. 마을의 평안과 발전을 축원하며 지내는 의식으로 약 150년전 마을 창설 당시부터 있었다고 한다. 제관은 생기가 맞는 처연장자로 제사 7일전부터 묵욕 재계하여 단정히 하고, 제사시간은 오후 8시경으로 마을의 세대주가 전원 참석하여 일반 제사와 같이 지내며 끝난 후 백설기를 일정한씩 배분해 집집마다 가족들이 나눠 먹으면 길하다고 하며 제관으로 지정된 집안이 성황당에서 채취된 낙엽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세배
- 정월 대보름 : 율놀이, 망월, 연날리기, 자치기, 팽이치기
- 모내기 종료후 : 화전놀이
- 팔월한가위 : 그네뛰기, 널뛰기
- 동짓날 : 팔죽

△ 회다리 노래

〈가사내용〉 에혜달구, 강원도로 들어서서는 금강산이 명산이세 금강산 명산을 줄기

따라 이삼자라가 되라고

에혜달구, 이산쓰고 3년만에 아들을 나니 효자요, 딸을 나니 열녀로다.

에혜달구, 전라도로 내려가니 계룡산이 명산이세 충청도로 들어서선

지리산이 명산일세

에혜달구, 경기도로 들어서서는 북한산이 명산이요 평양으로 들어서선

모란봉이 명산일세

에혜달구, 함경도로 들어서서 백두산이 명산일세 우리조상 명산일세

에혜달구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

- 화전토(花田土) : 마을 옆 습밭으로 이어지는 산에 진달래가 많아 옛부터 화전토라고 하

었는데 어린이들이 이곳에 잣을 따먹으러 다니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에서 문둥이가 나와 간을 빼먹는다고 하여 어린이들이 입산을 막았다고 한다.

• 간나바위 : 성전천 바위 옆에 위치한 바위로 아낙네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즐겨하며 달소를 나눌 것이 바위산에서 여자목소리가 난다 하여 간나바위라 하였다고 한다.

△ 속칭이름

- 미노골 : 마을 위쪽에 위치한 골짜기
- 뿔 골 : 미노골로 향하는 옆 골짜기
- 왕당골 : 마을 바로 위의 작은 골짜기
- 동네골짜 : 왕당골 옆 골짜기
- 마우돌 : 마을 앞 버덩
- 고개넘어 : 마을 앞 성전터가는 북쪽길
- 하상골 : 인흥3리 골짜기
- 가메골 : 신평2리 8동 골짜기
- 하상골 : 가메골 골짜기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모내기 때 허리 아픔을 잊기 위하여 부르던 노래

(가사내용)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함으는 십일홍이요 달도처럼 기우나니

일장일단 출몰이여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② 허랑타령

(가사내용) 허랑타령 본고향은 함철도 심마치 원대

우리네 본고향은 부모님 옛 속이요

허랑 허랑 허어아 어야리야 내사랑이로구나.

높은 산 상상봉 홀로선 저소나무

나와같이 외롭기만 하네

허랑 허랑 허어아 어야리야 내사랑이로구나.

구시단풍은 홀로 앉지요

허랑 허랑 허어아 어야리야 내사랑이로다

허랑 허랑 허어아 좋구나 좋소.



인홍2리 마을전경

○ 인홍2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53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92명, 여자 84명으로 모두 176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7가구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4가구, 부산시 1가구, 경기도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李씨가 14가구,

崔씨가 9가구, 金씨와 朴씨가 각각 8가구, 嚴씨가 3가구, 尹씨와 洪씨, 趙씨, 吳씨, 鄭씨가 각각 1가구, 기타 6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 40가구, 상업 4가구, 전속업 1가구, 기타 8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8ha, 밭이 15ha, 임야 47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8대, 트랙터 4대, 콤바인 5대, 이앙기 16대, 곡물 건조기 7대, 기타 1대 등이다.

가축은 소 119마리, 돼지 120마리, 개 19마리 등을 집단 사육하거나 가정에 기르고 있다.

전기는 1970년 4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51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53대, 냉장고 52대, 자가용 14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8년 4월에 자부담 38만6천원과 보조금 9만1천원을 합한 총공사비 47만7천원을 들여 건평 17평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노후되어 1995년 30평 규모로 재건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12가구, 기독교 9가구등 비교적 적은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4년 3월 총공사비 3,498,000원을 들여 마을안길 115m를 식변트르 포장했다.

1991년 12월 사업비 3천2백만원을 들여 용촌~인홍2리간 도로포장 320m(폭 6m)과 T형 측구 320m를 설치했다.

△ **마을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연날리기, 세배
- 정월보름 : 마을농약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망우리, 부르림새놀이
- 팔월한가위 : 율놀이
- 동짓날 : 팔죽

△ 속칭이름

- 너다리 : 봉포저수지 위쪽
- 서남대 : 마을앞
- 송 정 : 마을뒤 송밭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베를가

〈가사내용〉 서전 서전이요
 찢벽은 오병이요
 상강은 주전이요

② 마나리

〈가사내용〉 오늘해도 거의지니 골골마다 그늘일세
 산이높아 그늘인가 때가 저서 그늘일세
 심심하고 남남하니 오독메기나 불러보세

△ 마을 명소현황

• 인흥리 사지(仁興里寺址) : 이곳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토성면 사무소에서 7번 국도를 타고 속초시 방향으로 남향하다 광포호를 지나면 켄버리 대희장으로 가는 306번 군도가 나오는데 이 도로를 타고 가다 세종레미콘회사의 레미콘 차량 출입구로 들어가는 방법과 둘째는 7번 국도를 타고 더 남향하여 용촌리로 진입하여 인흥리 마을에 도달하기전 도로 우측에 있는 세종레미콘으로 들어가는 농로를 통하여 도달하는 방법이다. 사지라고 알려진 곳은 레미콘 공장에서 100m거리로 현재 약 400평의 밭과 묘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뒷편 산록에는 40~50년생의 소나무와 활엽참목이 우거져 있고, 주위에서는 예전에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하듯 약간의 기와와 토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인흥리 247번지에 거주하는 박창동(朴昌東)씨(47세)에 의하면 증조부 때부터 대 절기마다 치성을 드려왔고, 6.25이후 도난당한 것을 다시 지금의 위치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벽돌전물은 약 20년전 사비(私費)로 지었다고 한다. 사지 서편에는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벽돌전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내부에는 석조여래좌상인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석불은 낮은 육계가 돌출되어 있고, 양귀는 어깨까지 닿았다. 동그란 상호에 표현된 양 눈, 코, 입은 모두 인위적으로 마멸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상에 치성을 드리던 불임 여인들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마을 주민의 전언으로는 이 마멸은 한국전쟁 중에 북한군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상호에 비해 비교적 넓직한 어깨를 지닌 신체에는 좌견 편단의 법의가 착용되었는데, 전면에 7~9조의 의문이 흐르고 있다. 양팔은 밑으로 내려 무릎 위에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팔, 왼팔 모두 손목 이하의 파손이 심하여 수인을 확인할 수 없다. 상호는 둥근 원만상으로 신라불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가슴과 배부분이 전면으로 심하게 돌출되어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어 신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목 부분은 체형에 비해 두껍고 삼도의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분상은 평면 팔각형의 대좌에 안치되었는데 대좌의 하부는 매몰되어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으나 각형 2단의 받침이 조출되고 있다. 대좌와 분상재질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조형 수법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상고 114cm, 두께 34cm, 두폭 34cm, 전폭 60cm, 흉폭 42cm, 슬고 22cm, 슬폭 86cm, 대좌지름 80cm이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고성군·장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인흥3리

△ 위치 : 동쪽에 인흥1리, 서쪽에 원암리, 남쪽에 성천리, 북쪽에 성천1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인흥3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오래 전부터 구전에 의하면 작은 골짜기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마다 풍년이 찾아온다고 하여 풍곡(豊谷)으로 명명된 것이 지금의 속칭명이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26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49명, 여자 42명으로 모두 91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23가구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3가구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9가구, 이씨가 4가구,崔씨와 최씨,鄭씨 각각 2가구,朴씨와尹씨 각각 1가구, 기타 5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7ha, 밭이 11ha, 임야 38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4대, 트랙터 3대, 콤바인 3대, 이앙기 9대, 곡물 건조기 3대, 기타 3대 등이다.

가축은 소 18마리, 개 19마리, 사슴 28마리, 토끼 8마리 등을 집단 사육하거나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5년 5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26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85년 5월에 개통돼 1일 4회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26대, 냉장고 25대, 자가용 14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2년 5월에 총공사비 1백만원을 들여 전평 13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 4가구, 불교 3가구등 비교적 적은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4년 3월 마을안길 100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 마을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세배
- 정월보름 : 달맞이, 율놀이, 불꽃놀이
- 팔월한가위 : 그네뛰기, 상모, 율놀이

◎ 성천리(星川里)

△ 위치 : 동쪽에 용촌리, 서쪽에 원암리, 남쪽에 속초시, 북쪽에 인흥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성천리 마을전경

△ 마을유래 : 이 부락은 옛부터 시냇가 건너에 산세가 수려하고 지리적으로 잘 생긴 수자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장수와 용마가 났다고 전하며 장수는 비통하게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고 장수를 잃은 용마는 부락 뒷산으로 넘어 갔는데 용마능선 바위 위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 부락이 수자벌에서 현재 부락으로 이

전한 유래는 수자벌 동쪽 산봉우리와 수자벌이 서로 상충하여 대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마을로 옮겨졌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속칭 '수자벌' 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성천(星川)이란 시냇가에 작은 돌이 많이 있어 하늘의 별과 같다하여 '성(星)' 자를 써서 성천(星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의 마을로 옮긴 후에는 화재도 없으며 마을에 탁(卓)씨가 대대 손손 살아오고 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58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02명, 여자 106명으로 모두 208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50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상도 3가구, 경기도와 충청도, 서

을시 각각 2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주씨가 28가구,崔씨 9가구,尹씨 8가구,金씨 4가구,金씨 3가구,李씨와朴씨,張씨가 각각 2가구 등으로 주씨의 집성촌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은 농업 52가구, 축산업 3가구, 기타 4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7ha, 밭이 13ha, 임야 361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33대, 트랙터 5대, 콤바인 6대, 이앙기 13대, 곡물 건조기 4대, 기타 5대 등이다.

가축은 소 198마리, 개 30마리, 산양 13마리, 사슴 10마리 등을 집단 사육하거나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4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56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973년 4월에 개통돼 1일 4회 왕복운행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58대, 냉장고 57대, 자가용 19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4월에 총공사비 5백만원을 들여 전평 21평 규모로 아담하게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21가구, 기독교 11가구 등이 신앙생활을 하고있다.

마을금고는 1978년 50만원으로 설립되어 1985년 자산액 4백40만원 43가구가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4년 7월 지원액 5천만원과 자부담 111만원을 들여 마을 남쪽에 57m의 교량을 가설 하였으며, 1981년 2월 지원금 5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들여 마을 남쪽 소하천 950m를 정비했다.

1992년 3월 사업비 1천1백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332m(폭 3m)를 포장했다.

1993년 10월 사업비 2천1백만원을 들여 축제 185m, 호안공 185m, 옹벽 14m를 각각 설치했고, 사업비 1천4백만원을 들여 잠수교 24m를 시설했다.

1994년 4월 사업비 2천5백만원을 들여 용배수로 수로관 1,416m를 설치했다.

토질이 자갈과 모래가 많아 김나무 재배에 적당하므로 각 가정마다 4~5그루의 김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전체에 600여 그루의 김나무가 자라고 있어 감을 생산하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세배
- 정월보름 : 율놀이, 망월, 달맞이
- 팔월한가위 : 그네뛰기

△ 산, 바위 등의 전설

- 말바위 : 이 바위에 말발굽자국이 있어 말바위라 칭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옛날 무사가 싸

우던 팔발굽자국이라고 하며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 속칭이름

- 고구골 : 마을위 골짜기
- 석창골 : 성천리에서 북서쪽으로 2km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
- 갯 가 : 집 앞 버덩
- 머술바우 : 마을아래 2km 지점에 있는 바위
- 참나무 버덩 : 마을 위 버덩
- 우렁골 : 석창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
- 웅진바우 : 성천리와 원암리 중간지점
- 덕넘어 : 마을아래 버덩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회심곡

〈가사내용〉 천지천지 부나무에 삼리하상 일어나소.

이세상에 나온 사람 뷔덕으로 나왔으며

불과살림 문턱으로 석가여래에 제도했네.

어머님전 살을 밧어 아버님전 뼈를 밧어

이세상을 탄생하나 이잠심을 탈해도

부모은공을 못다갚고 가오가오

인제가면 언제로나 평생 춘삼월에나 다시 오기가 어려워라.

◎ 원암리(元岩里)



원암리 마을전경

△ 위치 : 동쪽에 속초시 장천리, 서쪽에 인제군, 남쪽에 속초시 학사평, 북쪽에 인흥리와 신평리를 각각 접하고 있다.

△ 마을유래 : 과거 미시령 고개를 넘으려면 마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속칭 역동네라 불리웠으며 마을 가운데 서낭봉이 있어 영을 넘을 때는 서낭봉에서 제를 올리고 넘었다고 한다.

1919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양양군 토성면 원암리 였던 것이 1963년 1월 1일 고성군 토성면

원알리로 다시 돌아왔다.

△ **가구 및 인구** : 가구는 모두 6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113명, 여자 96명으로 모두 209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9가구, 서울시 9가구, 경상도와 충청도 각각 3가구씩, 전라도 2가구, 경기도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21가구, 이씨가 14가구, 박씨가 6가구,鄭씨 5가구, 최씨 3가구, 윗씨와徐씨 각각 2가구씩, 안씨와洪씨,咸씨 각각 1가구씩, 기타 11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31가구이며 축산업 3가구, 건축업 2가구, 기타 3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47ha, 밭이 10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2대, 트랙터 2대, 콤팩트 5대, 이앙기 13대, 곡물 건조기 4대, 기타 5대 등이다.

가축사육현황은 소 109마리, 돼지 80마리, 개 27마리, 토끼 9마리 등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7년 2월 9일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65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67대, 냉장고 66대, 자가용 34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 4월에 총공사비 1백20만원을 들여 건평 30평 규모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종교현황은 불교 16가구, 기독교 12가주로 비교적 적은 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0년 3월 자부담 21만6천원과 지원금 1백50만원을 합한 총공사비 1백71만6천원을 들여 마을뒤 소하천 100m를 정비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1천4백80만원을 들여 마을안길 483m(폭 3m)를 포장했다.

1995년 4월 사업비 3억5천6백만원을 들여 용천~원암간 도로 1.74km(폭 8m)를 확·포장했다.

1996년 4월 사업비 3천4백만원을 들여 취입보 37m, 용수로 10m를 설치했고, 5월 사업비 2억5천6백만원을 들여 제방 650m를 쌓아 원암까지 68,777㎡를 조성했다.

△ **마을 신앙** : 성황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이 매년 음력 9월 9일 해질무렵 7시경 서낭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마을 창설 당시부터 온갖 제앙을 풀리치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지내는 의식으로 숫돼지 1마리를 잡아 머리와 간을 제물로 쓴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대보름 : 연날리기
- 팔월한가위 : 널뛰기, 그네뛰기

△ 산, 바위 등의 전설

• 울산바위 : 울산에서 왔다고 하여 울산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금강산을 향해 울산에서 출발하자 그 옆에 있는 바위 하나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매달려 온 것이 달래봉이라고 부르며 북쪽으로는 선선바위가 있어 모두가 금강산으로 향해 가던중 미시령 밑에 있는 칼바위가 해가 저물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하여도 늦지 않다고 권유 함에 쉬었다 가기로 하였는데 미시령 너머에 있는 선바위와 창바위가 아침에 전갈을 보내 왔다. 내용은 자기들이 금강산을 갔다 오는 길인데 금강산 1탄2천봉 모으는 일이 다 끝났다고 되돌아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 현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옛날에는 울산에서 울산바위세를 해마다 받아 갔는데 한해 흉년이 들어 울산바위세를 걱정하자 한 어린이(호림)가 그 사연을 물어 부모들로부터 울산바위세를 물어줄 일이 걱정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조금도 걱정 말라고 부모를 안심시키며 언제든지 울산에서 바위세를 받으러 오거든 알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던중 울산에서 울산부사가 보낸 하인이 와서 울산바위세를 달라고 하자 이제 현암에는 저 울산바위가 필요 없으니 제발 가져가 달라고 하였다. 울산에서 온 사람이 그러면 울산까지 날라다 놓으라는 말에 호림이 울산까지 등점으로 쳐다 줄테니 땀땀근을 준비하여 울산바위에 매어 놓으면 지고 가겠다고 하니 울산에서 온 사람은 여기에 있다가는 호림장사에게 번을 당할 것을 느끼고 돌아가서는 그 후 부터는 일절 오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울산바위세가 없어 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차타고 놀고야 놀고는 우리 정의로 놀잔다.

각각 있건만 이물이 늙어지니 임자도 없더라.

어랄어랄 어허야 어아디아 놀고 놀잔다.

지금에나 시속은 먼시속인지

뽕따러 가면은 뽕타령 뿐이고

시집을 가면은 임타령 뿐일세.

허랑허랑 허어야 허아디아 놀고 놀잔다.

△ 속칭이름

- 서낭골 : 마을잔네 골짜기
- 밭 골 : 돌산
- 우렁골 : 돌산너머 골짜기
- 간남골 :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골짜기

- 신흥골 : 신흥사너머

- 무량골 : 고주골

- 아래 건너 남골

- 윗 건너 남골

• 미시령(彌矢嶺)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간성군에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미시파령(彌時坡嶺) : 고을 서남쪽 80리 쯤에 있다. 길이 있었으나 예전에는 폐지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成宗) 24년에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하여 다시 이길을 열었다.(彌時坡嶺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襄陽府所冬羅嶺險峻復開此路)” 성종 24년(1493)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으로 이 미시파령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파른 고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동국여지(東國輿地志)에도 미시파령(彌時坡嶺)이라고 표기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다만 설명 끝부분에 속칭 여수파령(麗水波嶺)이라고도 한다고 적혀 있다. 간성군 읍지(邑誌)에는 미시파령(彌時坡嶺)과 함께 미시령(彌矢嶺: 원본82쪽)으로 표기되어 있다. 관찰 기록으로 이전 기록을 참고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미시파령(彌時坡嶺)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조선 후기에 이미 현지에서는 미시파령(彌時坡嶺) 대신 미시령(彌矢嶺)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록인 택리지(擇里志)에는 미시파령, 미시령 대신 연수령(延壽嶺)으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연수파령(連水坡嶺)으로 기록되어 있어 민간인들 사이에선 연수령(延壽嶺), 연수파령(連水坡嶺), 여수파령(麗水波嶺)으로 더 많이 불리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간성군 읍지에 미시령(彌矢嶺)이란 이름으로 기록이 존속되어 오늘날까지 미시령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해방이후 1950년경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뚫었으며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미시령(彌矢嶺)이라고 써서 세운 비석이 아직도 정상에 남아 있다. 그러나 6.25이후 폐쇄되어 방치되었던 도로를 1989년 다시 개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1년 제17회 세계캠버리 개최와 최근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중요한 접근로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용촌리(龍村里)

△ 위치 : 동쪽에 동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으로 인흥리, 남쪽에는 속초시가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옛적에는 사야지리(沙也只里)라 불렸다. 농촌마을임에도 대지 부분이 모래가 많아 속칭 사촌리(沙村里 촌모래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뒷산 용바위가 등척하였다고 하여 용촌리(龍村里)라 명명한 것이 지금의 명칭이다. 원래는 용포리(龍浦里)와 사촌동(沙村洞) 두마

읍을 1915년 행정구역 병합으로 용포(龍浦)의 '용(龍)'자와 사촌(砂村)의 '촌(村)'자를 합쳐 용촌리(龍村里)라 부르게 되었는데 과거의 용포리(龍浦里)는 용촌2리이며 사촌리는 용촌1리가 되었다. 최근 편리해진 교통 소통에 따라 인근 속초시에 생활권이 전이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용촌1리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137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223명, 여자 229명으로 모두 452명이다.



용촌1리 마을전경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84가구, 경상도 18가구, 서울시 10가구, 충청도와 전라도가 각각 8가구, 경기도 2가구,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각각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손씨가 49가구, 홍씨가 18가구, 박씨 14가구, 장씨 12가구, 조씨와鄭씨 각각 6가구,尹씨 4가구,崔씨 3가구,康씨와趙씨가 각각 2가구,成씨와 윗씨 각각 1가구, 기타

19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48가구이며 상업 8가구, 기타 81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36ha, 밭이 13ha, 임야 24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7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6대, 곡물 건조기 2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41마리, 개 14마리 등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0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32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137대, 냉장고 135대, 자가용 64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에어컨 4대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기독교 32가구, 불교 9가구로 비교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구가 많다.

마을회관은 1980년 4월에 총공사비 6백만원을 들여 전평 30평 규모로 현대식 건물로 신축

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1년 3월에 마을안길 130m를 2백54만3천원을 들여 농로를 개설했다.

1992년 4월 사업비 2천9백70만원을 들여 용존천 170m(폭 2m)를 개수했고, 사업비 5천4백만원 들여 암거 275m를 설치했다.

1993년 4월 사업비 8천9백만원 들여 하수도 378m설치와 진입도로를 포장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87동, 아파트 48동, 연립주택 2동 등이며, 속초시의 배후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마을 세시풍속

- 정월초하루 : 세배
- 정월대보름 : 망월, 달맞이, 윷놀이
- 모내기 후 : 화전놀이
- 팔월한가위 : 그네놀이
- 동짓날 : 팽죽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과 명소현황

• 용바위 : 마을에서 들판으로 넘어 가면 큰 바위가 있다. 먼 옛날 번개 안에서 강씨 총각이 살았는데 형이 세어 강장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너무 형이 세어 뒤 후환이 두려울까봐 누나가 동생을 죽여 총각이 죽은지 3일만에 이 바위에서 용마가 등천하여 그후 부터 용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번개 안에 기와 조각과 샘물이 남아 있으며 원래 번개 안은 호수였으나 강총각이 하룻밤사이 바다에 물을 모두 몰아 넣어 3만여평의 논을 만들었다는 전설도 있다.

- 유물산포지 : 마을 주변에 선사유물이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늙은애 사람은 죽지를 말고

젊은애 사람은 늙지를 말고

어랑어랑 어어야 업씨구나 좋네 그래고 내사랑이로구나

어스럼 달밤에 단줄이 만나서

귀물잡고 입맞춤 할때 왜 못살았나

애야 노야 노야 애야노야 이기여차 젊어서 놀아라.

① 벼들가

② 꾀지나 칭칭

③ 딜리리 타령

④ 뗏노래

○ 용촌2리

△ 위치 : 동쪽에 동해가 있으며, 서쪽에 인흥2리, 남쪽에는 속초시, 그리고 북쪽에는 봉포리가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1915년 행정구역 병합으로 구포리(龜浦里)와 사촌리(砂村里)를 합쳐 용촌리(龍村里)로 개칭하여 현재 아랫마을인 사촌리는 용촌1리이고, 용포리(龍浦里)는 용촌2리로



용촌2리 마을전경

부르게 되어 용포동(龍浦洞)이 속칭명이 되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54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91명, 여자 92명으로 모두 182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46가구, 경기도와 서울시, 부산시 각각 2가구, 경상도와 전라도 각각 1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김씨가 13가구,李씨가 5가구,崔씨 4가구,朴씨 3가구,張씨와 安씨,洪씨 각각 2가구,嚴씨와 趙씨,鄭씨 각각 1가구씩, 기타 20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농업이 41가구이며 상업 5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9ha, 밭이 13ha, 임야 25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7대, 트랙터 3대, 콤팩트 4대, 이앙기 6대, 곡물 건조기 2대, 기타 1대 등이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44마리, 개 18마리 등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75년 9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51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54대, 냉장고 52대, 자가용 25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은 불교 16가구, 기독교 2가구로 비교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구가 많다.

마을회관은 1980년 4월에 총공사비 600만원을 들여 전경 30평 규모로 현대식 물로 신축했다.

새마을사업 실적으로는 1977년 3월에 용촌2리 마을앞 소화천 200m를 지원해 준 시멘트 300포와 자부담 50만원을 들여 새롭게 정비했으며, 1985년 3월 20일부터 자부담 60만원과 지원해준 시멘트 500포를 들여 마을앞길 115m를 시멘트로 포장했다.

△ 구전되어 오는 민요

(가사내용) 나무나무 송진나무 가지꽃 피었네

춘나무 점점 이골몰이 주루주루 저골몰이 팔팔

열에 열골몰은 한나라 합소서.

저전너 백운사 마루사 광장사너 우드르 떠나잔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워 마라.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는 피련마는

우리 인생은 한번나자 돌아가면 열열종친 그만일세.

△ 마을 명소현황

• 노상언효자각(盧象彦孝子閣) : 노상언(盧象彦)은 충명하고 행실이 바르고 사리판단이 옳으며 의로운 일을 행하고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는 불문 웃어른을 공경하는 등 성인다운 선비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함에 후세에 그 공을 길이 전하고자 1892년 이 효자각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 연안 김씨 열녀비각(延安 金氏 烈女碑閣) : 조선 고종때 남편의 혼을 모시고 수절하면서 지동생의 장남을 양자로 삼아 부군의 대를 잇게 하고 시부모에게 효도하여 열녀로서 인정을 받아 1952년 10월 10일 마을입구에 비각을 건립했다.

◎ 봉포리(鳳浦里)

△ 위치 : 동쪽에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인흥리와 신정리, 남쪽에는 송촌리, 북쪽에는 천진리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 마을유래 : 한일합병 이전에 해변가는 광포(廣浦), 산너머는 봉현(鳳峴)이라 칭하여 오다 한일합병 이후 1914년에 2개리를 합함에 따라 그 당시 리장 박매정씨가 봉현(鳳峴)의 '봉(鳳)'자와 광포(廣浦)의 '포(浦)'자를 따서 봉포리(鳳浦里)로 했다.

△ 가구 및 인구 : 마을에는 모두 221가구가 살고 있다.

인구는 남자 358명, 여자 320명으로 모두 678명이다.

출신도별 가구현황은 강원도가 169가구, 서울시 21가구, 경상도 9가구, 충청도 8가구, 경기도 6가구, 전라도 4가구, 제주도 1가구, 기타 3가구 등이다.

가구별 성씨분포는 金씨가 46가구, 朴씨가 39가구, 李씨가 24가구, 崔씨 17가구, 鄭씨 9가구, 趙씨 8가구, 韓씨와 尹씨 각각 6가구, 張씨 5가구, 康씨와 黃씨 各 4가구, 嚴씨와 吳씨 각각 3가구, 趙씨 2가구, 洪씨와 徐씨 각각 1가구, 기타 39가구 등이다.

직업별 가구현황으로는 어업 41가구, 상업이 32가구, 농업이 18가구, 제조업 16가구, 기타



봉포리 마을전경

114가구 등이다.

△ **일반현황** : 경지면적은 논이 25ha, 밭이 8ha, 임야 50ha 등이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8대, 트랙터 3대, 콤팩트 5대, 이앙기 8대, 곡물 건조기 2대 등이다.

소규모 어항인 봉포항엔 선박이 1톤 미만 5척, 1톤~5톤 미만 28척으로 최근 주말을 이용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축 사육현황은 소 41마리, 개 14마리 등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전기는 1965년 6월에 들어 왔으며, 전화는 1985년 3월에 개통돼 현재 188대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TV 220대, 냉장고 186대, 세탁기 91대 등과 세탁기, 오디오, 비디오, 에어컨 1대 등 가전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현황을 보면 불교 42가구, 기독교 39가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 2월 지원금 44만6천원, 주민부담 90만9천원을 합한 총공사비 1백35만5천원을 들여 전평 20평규모로 건축됐으나 1996년 30평규모의 벽돌조스라브 건물로 재건축했다.

항포구는 1965년 5월 총공사비 2천만원을 들여 240m를 축조했다.

새마을사업실적으로는 1983년 3월 350만원을 들여 마을중심로 100m를 포장했으며 1982년 3월에는 봉포리 7반 앞길 진입로 137m를 6백11만3천원을 들여 포장했다.

1992년 10월 사업비 4백70만원을 들여 옹벽 60m(높이 1.85m)를 설치했다.

1993년 5월 사업비 1천8백만원을 들여 마을길 494m를 포장했다.

1995년 3월 사업비 3천9백만원을 들여 하수도 총관 312.8m매설, 펌프 6개소를 설치했다.

1995년 9월 사업비 9천3백만원을 들여 봉포항 주차장 43.13a포장과 경계석을 설치했다.

△ **마을신앙** : 성화제라 불리는 토속신앙을 매년 음력 10월 1일 성화봉에서 행하고 있다.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옛 조상때 부터 음력 10월에 남을 받아 지내오다 약10년부터 10월 1일자로 정하여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부락에서 폐지를 잡아 웃실황제부터 제를 올리고 야랫달에 와서 제를 올린다. 제관은 리장이 하며 각부락 반장들이 모여 세력에 일시를 정하여 제를 올린다.

△ 산, 바위, 나무 등의 전설과 명소현황

• 대섬 : 봉포리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대나무가 많아 죽도라고 칭하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대섬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 잔넘어 : 이곳은 먼 옛날에 장안(長安) 해방청(海防廳), 즉 현재의 해군 과전대가 있던 곳으로 주위의 원형체에 흙과 골로 쌓아 올려 성을 만들어 경비하던 곳으로 흙으로 쌓아올린 성이라 하여 토성면이라 칭하였다 하며 현재 그곳에 가보면 성을 쌓은 흔적이 있다고 한다.

• 봉우재 골 : 서남 너머에 있는 골짜기

• 큰 골 : 마을 앞 골짜기

• 봉포봉수지(鳳浦烽燧址) : 일명 성황당이라 부르며 그 흔적만 남아 있다.

• 봉포 토성(鳳浦土城) : 토축성으로 해안에서 약200m 서쪽에 위치한 곳에 옛성터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둘레 약500m이며 외편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국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대부분 훼손됐다.

△ 김행음 기념비(金杏陰記念碑) : 속초-고성간 7번국도 서편의 설악물산 공장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다. 현 위치는 신도로 건설로 인해 원 위치에서 약 150m정도 설악물산 쪽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비의 전면에는 “김행음선생영생기념비(金杏陰先生永世記念碑)”라 되어 있고, 전면 우편에는 “공시백초 포개생○(公試百草 再生○)”, 좌편에는 “석어불후 용표미리(石語不朽 用表微裹)”, 후면에는 “기묘(己卯) 4월(月) 日 안동 양영창(安東襄永昌)”이라 음각된 것으로 보아 의술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건립 연대는 1939년이다. 비의 크기는 97cm×48cm×26.5cm 인데 비가이 있고,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문화재연구소, 1998, 문화유적총람

△ 구전되어 오는 민요

① 아리랑

〈가사내용〉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저전너 물레방아 굴굴대는 물살을 안고

빙글빙글 사시장천 돌지마는 우리야 낭군은 날았구나 못오나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냉천현황 : 봉우재란 곳에 냉천이 있었으나 1954년 9월 13일 6.25사변 당시 매몰되어 현재는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옛부터 이 물로 목욕을 하고 물을 먹으면 설사 및 피부병이 완치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편집후기

천혜의 의구한 산천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 하는 우리의 평범한 모습에서 삶의 무상함을 되뇌어 봅니다. 언제나 정제되지 않고 변함없이 흐르는 세월을 돌이켜 보며 세상 우리는 그동안 우이 삶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시간을 잊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0년대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우리의 서정적인 농어촌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와 내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약적인 발전과 격랑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땅의 역사(歷史)를 세세히 기록해 후세에 바로 알리고, 우리 고장의 전통과 맥을 잇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役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료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우리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고성군지(高城郡誌)의 읍·면, 마을연혁과 유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작업 과정에서 감사한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미흡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우리 것을 찾고, 알고, 가꾸는 작은 일들이 주체적인 문화유산을 위한 토양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별한 서구문화 유입에 의해 자칫 가치관의 혼돈 또는 아노미 현상을 초래해 소중한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비록 아쉬운 점 없지 않으나 지금 보다 훨씬 나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 땅일을 거중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자랑스런 사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



K o s ō n g 2 명 2 K o s ō n g